

THE CONCEPT OF “FINISHING WELL” FOR KOREAN PASTORS:

A Case Study of the Northern Seoul Branch of GAPCK.

한국교회 목회자의 ‘유종의 미’에 관한 연구

-서울 북노회 목회자 중심으로-

A Doctor of Ministry Professional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Grace Theological Seminary

Winona Lake, Indiana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Degree

Requirements for the

Doctor of Ministry

Intercultural Studies Track

by

Suk Jin Kim

May, 2018

© 2018
Suk Jin Kim
ALL RIGHTS RESERVED

Grace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Dissertation Approval Sh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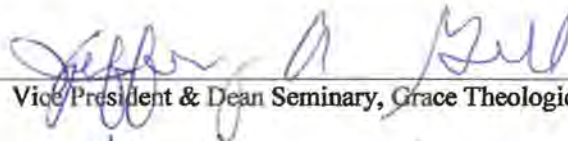
**THE CONCEPT OF “FINISHING WELL” FOR KOREAN
PASTORS: A Case Study of the Northern Seoul Branch of GAPCK**
한국교회 목회자의 ‘유종의 미’에 관한 연구
-서울 북노회 목회자 중심으로-

Written by
Suk Jin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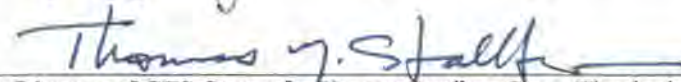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pproved by the undersigned member of
the Faculty of Grace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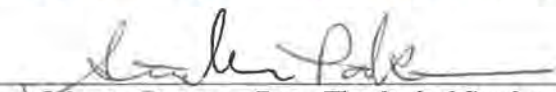
Appro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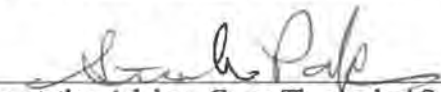
Vice President & Dean Seminary, Grace Theological Seminary



Executive Director of GTS Center for Korean Studies, Grace Theological Seminary



Director of Korean Program, Grace Theological Seminary



Dissertation Advisor, Grace Theological Seminary

No Part of this dissert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author and the Committee for the Doctor of Ministry Degree.

Grace Theological Seminary
Winona Lake, Indiana

Abstract

Kim, Suk Jin

2018 “The Concept of ‘Finishing Well’ for Korean Pastors: A case Study of the Northern Seoul Branch of GAPCK”, Grace Theological Seminary. Doctor of Ministry. 154 pp.

The Korean Church, in general, is on the verge of crisis in its spiritual vitality as well as numerical growth. Above all, the church's still low reliability poses a hazard factor in Korea. The Korean church leaders are the main causes in this issue. Due to the pastors' discrepancy between Biblical principles, their church ministries and personal life, they are losing reliabilities from their target people. In order to regain the reliability and leadership, 'Finishing Well' of retiring pastors is one crucial factor, making themselves as an exemplary for the young junior pastor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creative way of 'Finishing Well', especially for those pastors and key leaders who are preparing their retirement. To achieve this, this research seeks to analyze the last stages of the pastors' ministries within GAPCK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to find out the obstacles in finishing well, and to suggest the creative way to finish well effectively.

The research consists three parts; First, it deals with theological foundations, the biblical definitions, and the biblical models of 'Finishing Well'. Second, it examines Korean pastors' retirement plan with case studies, focusing for those who are in Northern Seoul Branch of GAPCK, with special assessment of obstacles in it. Third, it largely relies theoretical basis on J. Robert Clinto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nd his leadership theories. In addition, it is second purpose to assist those pastors who even

failed their ministries, to encourage them to take on the right track.

It may not be right to judge someone's ministry solely from secular perspectives. Strictly speaking, the word 'success' is not in the pastoral ministries. Likewise, the word 'failure' should not be placed in it. The minister's ultimate goal is to finish well in the sight of our Lord and his flock as well.

Mentor: Dr. Stephen Park

개요(ABSTRACT)

Kim, Suk Jin

2018 “한국교회 목회자의 ‘유종의 미’에 관한 연구: 서울북노회 목회자 중심으로”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154 pp.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하였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가 해를 거듭하여 낮아지고 교인 수의 증가는 제자리 결음을 하고 있다. 그 중심에 목회자가 있다.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다. 목회자의 리더십 회복과 목회자가 그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유종의 미’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은 리더십 위기 가운데 한국교회 목회자의 ‘유종의 미’에 대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필자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북노회 목회자들의 사역 마무리를 분석하고, ‘유종의 미’를 가로막는 요소는 무엇이며, ‘유종의 미’를 이루기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탐색할 것이다. 아울러 이 분야에 대하여 통찰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적인 상황에 맞는 창의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첫째는 ‘유종의 미’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신학적인 기초와 성경의 경의, 성경의 모델들을 살펴 볼 것이다. 둘째는 한국교회 목회자의 ‘유종의 미’를 분석하고 종합한 것이다. 특별히 서울북노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한 30 명의 목회자와 10 년 이내 정년은퇴 한 목회자 17 명의 생각을 조사하여, ‘유종의 미’를 가로막는 걸림돌들을 분석할 것이다. 셋째는 ‘유종의 미’에 대한 창의적 방안을 제시한다. 이 분야에 선구자적인 클린턴(J. Robert Clinton)교수의 방안을 바탕으로 한국적인

상황에 맞는 창의적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덧붙여, 목회자로서 ‘유종의 미’를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도움을 주려고 한다.

목회의 성공과 실패에 대하여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목회에서는 ‘성공’이 없으며, 마찬가지로 실패 ‘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목회자는 다만 ‘유종의 미’ 거두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최종적으로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다.

헌정 (DEDICATION)

To Dear members of Jesusroad Church
and
my lovely wife Myunghee

•

감사의 말 (ACKNOWLEDGEMENTS)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불러 주시고 교회를 섬기도록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항상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특히 그레이스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연구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주심을 한없이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과정을 감당하도록 시간을 허락해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지원해주신 예수로교회 장로님들과 온 교우들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또한 서울북노회 선배 목사님들과 동역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논문이 완성 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으로 지도해주신 박시경 교수님과 편집 과정에서 친절하게 지도해주신 김정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곁에서 사랑과 격려로 함께해준 사랑하는 아내 명희 그리고 두 아들 정민, 영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목 차 (TABLE OF CONTENTS)

ABSTRACT.....	i
개요(ABSTRACT).....	iii
헌정(DEDICATION).....	v
감사의 말(ACKNOWLEDGEMENTS).....	vi
목차(TABLE OF CONTENTS).....	vii
제 1 장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과 중요성.....	3
3. 연구 가설 및 연구 질문.....	6
4. 연구 범위 및 한계.....	7
5. 용어 해설.....	9
6. 연구 방법 및 절차.....	10
제 2 장 ‘유종의 미’의 성경적 근거.....	13
1. 신학적 기초.....	14
1) 성경.....	14
2) 상황화.....	16
3) 성육신.....	18
2. ‘유종의 미’에 대한 성경적 정의 및 모델들.....	20
1) 성경적 정의.....	20
2) 성경적 모델.....	22
3. 성경 속의 ‘유종의 미’ 모델들.....	23

1) 아브라함의 ‘유종의 미’	23
2) 모세의 ‘유종의 미’	25
3) 다윗의 ‘유종의 미’	28
4) 바울의 ‘유종의 미’	30
5) 예수님의 ‘유종의 미’	32
4. 성경 인물들의 ‘유종의 미’ 종합	38
 제 3 장 서울북교회 목회자들의 사역 마무리	41
1. 사례들	42
2. 사례분석	43
3. 사례분석 종합	48
4. 성경 인물과 비교	54
 제 4 장 ‘유종의 미’ 를 가로막는 장애물들	57
1. 클린턴의 분석	57
2. 서울북교회의 상황	59
1) 교회성장 부진.....	59
2) 당회 갈등.....	61
3) 건강문제	65
4) 재정문제	68
5) 윤리문제	71
6) 가족문제	73
3. 예수로교회 성도들의 평가	77

4. 은퇴를 앞둔 목회자들의 평가	78
5. '유종의 미' 실패	80
제 5 장 '유종의 미' 를 위한 창의적 방안	84
1. 클린턴의 방안	84
2. 서울북노회 목회자들의 방안	88
3. 창의적인 방안	90
1) 개인적인 방안	91
2) 교회적인 방안	131
4. 목회자의 '유종의 미'	139
5. 인생의 '유종의 미'	142
6. 은퇴 준비와 은퇴 이후	145
제 6 장 결론과 제언	150
부록(APPENDIX)	155
부록 1. 서울북노회 목회자 사역 마무리 조사	155
부록 2. 은퇴를 앞둔 서울북노회 목회자 설문	157
부록 3. 예수로교회 리더 설문지	160
참고도서목록(BIBLIOGRAPHY)	161
약력(VITA).....	167

제 1 장

서론

1. 연구배경

2017년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본부의 통계 발표는 한국교회의 실상을 정확히 보여준다.¹ 한국교회 전반적인 신뢰도가 20.2%로 나타났으며, 비기독교인의 신뢰도는 겨우 10.7%이다.²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독교신문은 ‘무너진 기독교’라며 심각한 위기의식을 나타냄과 동시에 한국교회의 신뢰회복이 시급하다고 평가하였다.³ 해마다 낮아지는 신뢰지수와 특히 교회 밖의 비신자들의 부정적 평가를 비춰볼 때 한국교회의 미래는 물론 현재 그 존립자체가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음이 분명하다.

신뢰지수가 하락하는 구체적인 원인으로 ‘불투명한 재정사용’, ‘타종교에 대한 태도’, ‘교회지도자들의 삶’, ‘교인들의 삶’, ‘교회의 성장 제일주의’ 등이 꼽혔다.⁴ 이러한 원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소위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전반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몇몇 대형교회 목회자의 ‘교회 세습’과 ‘교회 재정 사고’, ‘윤리적 실수’, ‘논문 표절’ 등은 이러한 불신을 더 키우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것이다. 인터넷과 SNS의 급속한 발전은 이러한 부정적인 뉴스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시켜 더 큰

¹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2017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2017.3.3

² Ibid. 3

³ 기독교신문, 제2095호, 2017년 3월 7일

⁴ 조흥식, “2017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분석”, 기윤실, 2017.3.3.

불신으로 이어지고, 결국 심각한 신뢰하락은 기독교 전파에 큰 장애로 이어질
것임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 한국교회 신뢰지수 하락의 중심에 있는 목회자들의
문제는 곧 리더십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고,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겠다.

이러한 목회자의 리더십 위기를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목회자의 유종의 미’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목회자의 유종의
미’는 목회 사역 전체를 아우를 뿐만 아니라, 특별히 목회를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목회자 자신은
물론 교회를 살리는 방안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한국교회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기여하는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필자는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에 소속된
서울북노회 노회장(2016.4-2017.4)으로 섬겼다. 그 기간 동안 노회 내 사역을
마치는 목회자들을 가까이 만나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들의 사정을 깊이 알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목회자들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다양한 배경과 양태에
주목하고 ‘목회자의 유종의 미’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았으며, 그 과정에서
목회자 본인은 물론 교회에도 큰 상처와 불명예를 입히고, 결과적으로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이 모여
한국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게 한다고
본다. 목회자의 리더십 위기 가운데 한국교회 신뢰회복과 ‘목회자의 유종의
미’는 서로 긴밀히 연관되며, 이를 극복하는 창의적인 방안이 결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 연구 목적과 중요성

연구 배경에서 지적 한대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 하락은 대개 목회자 문제이며, 결국 목회자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는 결국 어떻게 목회가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목회자 사역 마지막 단계의 '유종의 미'에 주목함으로써 목회자 개인에게 최종적인 지향점을 의식하도록 하고, 동시에 목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목회자 개인은 자신의 현재 사역을 부단히 되돌아보고 장래의 목표를 교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목회자 리더십 회복 과정의 일부라 할 수 있다. 목회자의 사역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때, 리더십에 설득력이 생기고, 사회가 기독교를 보는 시각이 변화될 수 있다. 목회자 사역의 '유종의 미' 연구에 대한 사회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목회자 개인의 성공적 마무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신뢰 회복, 더 나아가 효과적인 기독교 복음전도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유종의 미'는 목회자 자신과 교회, 나아가 한국교회 전체에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회자들이 '유종의 미'를 바로 알고 그것을 이뤄나가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목회 일선에서 늘 바쁜 일에 쫓기는 목회자들은 '유종의 미'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또한 눈앞에 닥친 미시적인 자신의 업무에만 함몰되어 다른 목회자들의 사역 마무리에 대해 관심이 적고 또한 충분히 알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유종의 미를 방해하는 요소들'과 '유종의 미를 이루는 창의적인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

한다면 ‘유종의 미’를 이루어 나가는 데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 분야에 대하여 미국 플러(Fuller)신학교 클린턴(J.Robert Clinton) 교수의 연구 성과는 특별히 주목할 만 하다.⁵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적인 상황에 적합한 창의적 방안을 이해하게 된다면 자신의 ‘유종의 미’를 성취하는데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둘째, ‘유종의 미’ 연구는 목회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고, 소명을 새롭게 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함이다. 목회자가 ‘유종의 미’를 고민하고 이해하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현재의 자신을 신분과 사역에 대하여 진지하게 돌아보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목회자는 자신의 소명을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것이며, 목회자의 사명이 보다 선명해짐으로써 자신의 사역을 이전 보다 더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이다.

셋째, 교회와 목회자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상호 유익을 얻기 위함이다. 목회자의 ‘유종의 미’는 목회자 혼자서 이룰 수 없는 문제이다. 교회는 교회대로 이에 대한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다. 나아가 노회의 책임과 역할 또한 결코 적지 않다. 목회자의 ‘유종의 미’를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간 서로 협력하고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특히 당회는 목회자와 밀접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며 목회자의 목회 성공 여부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 이러한 상호 관계를 알고 목회자-교회-노회가 서로 협력한다면 큰 유익을 얻고, 교회의 안정적인 발전과 부흥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교회와 목회자간의 올바른 인식을 통해 무엇보다 목회자의 사역 마무리 과정에서 교회와

⁵ J. Robert Clinton, *유종의 미 (An Exhortation to Finish Well)*, 이영규 옮김, 서울: 메다니출판사, 2015.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고 목회자는 보람과 기쁨으로 자리를 떠남으로써 목회 리더십 교체를 원만하게 이루게 될 것이다.

넷째,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일에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남은 기간 ‘인생의 유종의 미’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목회자의 유종의 미’와 ‘인생의 유종의 미’를 구분할 것이다. 모든 목회자들이 목회 사역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희망하지만 모두가 그 기대를 실현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미 목회자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에 실패한 목회자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일이 분명 열려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는 필자 자신의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이유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하겠다. 스스로의 연령과 은퇴시기를 감안할 때 ‘유종의 미’에 대한 실제적이고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⁶ 필자가 속한 서울북노회 목회자 중 정년 은퇴가 10년 이내인 목회자는 대략 24여명이다. 그 중 18명을 직접 설문조사 하였다. 그들 역시 자신의 사역 중, 목회자의 유종의 미를 매우 중요한 마지막 과제로 여기고 있다. 지금까지 목회를 성실하게 감당해 온 목회자일수록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여긴다.

“시작이 중요한가? 끝이 중요한가? 과정이 중요한가? 그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다 중요하다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과 끝 가운데 어디가 더 중요한가 묻는다면 성경에선 모두 중요하지만 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⁶ 본 연구를 시행하는 필자는 2018년 현재, 61세로 한국사회에서는 ‘회갑’으로 부른다. 한국 교회 은퇴 시기는 만 70세이며, 앞으로 은퇴까지 9년을 남겨두고 있다.

같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세상에도 ‘시작의 미’ 라는 말은 없지만 ‘유종의 미’ 라는 말은 있습니다.”⁷

3. 연구가설 및 연구 질문

연구가설

목회자들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원인과 과정은 다양하지만 큰 범주에서는 일반화가 가능하므로, 개별적인 실제 사례를 조사하여 목회자의 ‘유종의 미’ 를 방해하는 장애 요인들을 범주화하고, 이를 제거 또는 극복한다면 ‘유종의 미’ 를 거둘 수 있다.

앞서 지적인 대로 이 분야에 대하여 선행된 미국 플러신학교 클린턴교수의 훌륭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되, 문화적 차이를 감안하여 한국적인 상황에 맞는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교회에 맞는 창의적 방안’ 은 한국 목회자의 리더십을 회복시키고,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필요하다.

연구 질문

목회자들이 사역 마무리하는 이유와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이유와 원인에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목회자가 ‘유종의 미’ 를 거두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성경에 나타난 사역자들의 ‘유종의 미’ 는 어떠한 모습인가?

목회자 사역의 ‘유종의 미’ 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⁷ 이강현, *유종의 미*, 이강현, 서울: 보이스사, 1994, 341.

‘유종의 미’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극복하는 클런턴 박사의
방안은 무엇인가?

한국교회 목회자의 ‘유종의 미’에 대한 창의적 방안은 무엇인가?

4. 연구 범위 및 한계

본 연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의 서울북노회 목회자를 중심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서울북노회는 경기도 고양시와 과주시를 지역기반으로 하는
지역노회이다. 2001년 서울노회에서 분립하여 조직되었으며, 2018년 현재 105개
교회가 소속되었고, 목사 회원 224명이 소속되어 있다.

본 연구는 2001년에서 2017년 사이, 목회 사역을 마감한 목회자 3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역 마무리를 추적 및 조사하였다. 아울러 향후 10년 이내
사역을 마무리할 목회자 18명을 설문 조사하였다. 사역을 마무리한 목회자 30명,
10년 이내 해당자 18명, 총 48명의 목회자에 대한 조사이다. 비록 다수는
아니지만 이미 사역을 마무리한 목회자들과 사역 마무리를 실제적인 과제로
인식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조사 및 연구이다. 따라서 장로교 교단 내 하나의
노회에 국한된 연구이지만, 그 결과는 장로교회 전체의 단면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필자는 2016~2017년 동안 서울북노회의 노회장으로 섬기면서 그들의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필자의 조사 결과 그 대상 가운데는 정년
은퇴자와 조기 은퇴자, 불명예 퇴직자들이 포함되었으며, 사역 마무리에 대한
다양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목회자의 ‘유종의 미’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알 수 있었고, 이를 극복하는 창의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내 하나의 노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기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고, 정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연구대상의 숫자가 적고, 그 기간도 충분히 길지 못하며,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유와 원인에 대한 다양한 형편과 복합적인 사정을 정형화하기에 부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속사정이 다르고, 그 내막을 다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의 사역 마무리는 패턴은 몇 가지 경우로 한정되어 나타나며, 대부분 노회마다 그 형편이 유사하다고 본다. ‘인생은 지위고하, 명예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걷는 길은 거의 동일하다.’⁸ 클린턴 박사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유종이 미’를 거둔 리더는 소수에 불과하며, 본 연구의 결과도 거의 유사하다.

앞으로 연구 범위를 더 크게 확대하여 교단 총회 전체나, 한국교회 전체를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한계 중 하나는 자료의 빈곤이다. 한국교회 내 연구가 아직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시도한 것은 목회학 박사과정의 연구는 자신의 목회에 실질적인 도움과 유익을 주어야 한다는 지도교수의 지혜와 해안에 용기를 얻어 연구하게 된 것을 밝힌다.

⁸ Clinton, *유종의 미*, 78.

5. 용어 해설

정년은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헌법에 의하면 목사의 정년을 70 세로 규정하고 있다.⁹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총회 헌법의 규정에 따라 한 교회에서 20 년 이상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만 70 세 은퇴한 경우를 말한다.

조기은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헌법에 따라 만 70 세까지 사역하고 은퇴를 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은퇴하여 사역을 마무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불명예퇴임: 목회자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만 70 세 정년 은퇴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고 명예로운 마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불명예퇴임도 존재하는

데, 이때 불명예퇴임이란 퇴임할 때 정년은퇴나 조기은퇴를 하지 못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목회자의 '유종의 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의거 목사가 한 교회에서 20 년 이상 사역하고, 70 세 정년으로 은퇴하면서 원로목사로 예우를 받아

그 명예를 보존하는 경우이다.¹⁰ 또한 70 세 정년 이전에 조기 은퇴하여 원로목사가 되거나, 그 사역 기한이 20 년에 이르지 못하여도 명예롭게 은퇴목사가

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하겠다.

'인생의 유종의 미': 사도바울이 고백한 디모데후서 1 장 7 절-8 절에 근거하여 생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외의 면류관을 확신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 마지막이 신앙의 본을 담겨주는 생애를 말한다. 목회자가 그 사역에서 '목회자의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여도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⁹ 헌법(개정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16.11.25, 156.

¹⁰ Ibid, 157.

* 유종의 미'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이나 종회의 변화 제도

* 유종의 미' (정년은퇴)를 방해하는 장애물

* 정년은퇴까지 남겨두고 있는 기간

* 현재 교회에서 사역해온 기간

(2) 10년 이내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는 목회자에 대한 조사

* 목회자 그들의 평가

* 교인들의 일반적인 평가

* 사역의 공간

* 사역을 마친 연령

* 사역을 마무리하게 된 사유

* 사역 기간

* 목회자 이들

* 사역한 교회명

(1) 사역을 마무리한 목회에 대한 조사 내용

포함되어야 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조사를 위한 기준과 원칙들이 만들어져야 한 것이다. 조사에

조사하였다. 그들이 '유종의 미'를 위하여 어떤 생각과 준비를 하는지 살펴본다.

하였는가를 조사한 것이다. 아울러 사역을 10년 이내에 마무리하는 목회자 18명을

마감한 목회자 30명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사역을 왜, 어떻게 마무리

준비를 조사한다. 서울북노회 의사자료 중 2001년과 2017년을 비교하여, 사역을

목회자를 48명에 대한 목회자의 사역 마무리-유종의 미-와 그에 대한 생각과

본 연구를 위해서는 '정성연구'를 사용 한 것이다. 서울북노회 내

6. 연구 방법 및 절차

- * 목회자의 정년 (만 70 세)에 대한 생각
- * '유종의 미' 를 위한 여러 방안들
- * '유종의 미' 를 위한 인적 자원에 대한 우선순위
- * 은퇴 이후 사역 계획
- * 은퇴 이후, 본 교회와 관계
- * 은퇴 이후, 영적, 육체적 건강관리

이러한 정성연구를 중심으로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interview)'를 하고, 추가적인 자료들을 모을 것이다. 그러나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목회자나, 이미 사망한 목회자의 경우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료를 모을 것이다.

목회자 그룹의 평가를 위해서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인터뷰' 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역 마무리' 에 대한 사례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유종의 미' 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유추될 것이다.

이어서 목회자의 '유종의 미' 에 대한 '창의적인 방안' 을 위해서는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10 년 이내인 목회자들을 설문조사 할 것이다. 이들은 은퇴를 눈앞에 두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목회자의 '유종의 미' 는 매우 현실적인 과제이면서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필자가 속한 평신도들, 교회의 리더 약 40 명을 설문 조사할 것이다. 그들은 필자와 평균 20 년 동안 교제하며 사역하였기 때문에 목회자의 단점과 강점을 잘 알고 있는 그룹이다. 이들은 목회자의 '유종의 미' 에 대한 이해와 진실한 조언이 가능한 집단이다. 이 설문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당신은 김석진목사와 교제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 * 지금까지 사역을 평가한다면?

* 안식월 이후 2018 년부터 '제 3 기 사역'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 목회자의 '유종의 미'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자료를 중심으로 '목회자의 유종의 미'를 위한 창의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이다. 그 과정을 요약하면, 서울북노회 목회자의 사역 마무리를 조사함으로 '유종의 미'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발견하고, 은퇴를 앞둔 목회자들의 생각과 준비를 추가함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창의적 방안을 도출한다. '유종의 미'를 가로막는 장애물과 '창의적 방안'은 필연적으로 연관을 갖게 될 것이다.

제 2 장

‘유종의 미’의 성경적 근거

‘유종의 미’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가? 과연 ‘목회 성공’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또 ‘목회의 실패’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보는가? 세속적 가치관이 팽배한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그 정의와 기준을 바르게 해야 할 것이다. 세속적 가치 기준에 따라 성공과 실패를 규정한다면 그것은 바른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의 모든 논의의 기준과 기초는 성경에 두어야 한다. 오로지 성경만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목회만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평가도 예외가 아니다.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자세로 성경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파이프(John Piper)는 “성경을 당신의 모든 삶에 적용하라”¹¹ 하였다.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이며 성경만이 성공과 실패를 정의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오늘의 사회 현실을 무시하고 오로지 성경만 절대 기준이 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하기도 한다. 마치 이러한 태도가 오직 ‘성경적’이고, ‘신앙적’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보수적인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주장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태도는 지나치게 현실을 무시하며, 합리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성경은 목회자의 정년을 제한하지 않는다. 마지막 죽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오히려 마지막 죽음을 통해 가장 위대한

¹¹ John Piper, 존 파이프의 생각하라 (Think), 전의우 역, 서울:ivp, 2010, 211.

사역을 감당하는 경우도 있다. 삼손의 경우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¹² 그렇다고 이러한 예를 일반화 할 수 있는가?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100 세까지 목회 일선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비효율적 될 것이다. 한국사회가 100 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현실에서 정년 없이 목회사역을 감당 해야 하는 주장은 지나치게 현실을 무시하는 균형 없는 태도이다.

따라서 성경과 현실, 두 요소가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성경을 기초로 하되 현실을 수용하는 태도이다. 그것은 “비행기의 왼쪽, 오른쪽 날개 중 어느 날개가 더 중요한가” 라는 속담과 같다.¹³

1. 신학적 기초

신학적 기초는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그것은 먼저 ‘성경’ 이며, 그 다음은 ‘상황화’ 그리고 ‘성육신’ 이다. 여기서 상황화는 구체적으로 ‘비판적 상황화’ 를 말한다.

(1) 성경

‘유종의 미’ 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난다.

고린도전서 10:6,11 “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

¹² 사사기 16장 30절.

¹³ Jeffrey A. Gill, *지역교회에서의 리더십*, Grace Thrological Seminary, October 26-30, 2015 강의안.

되었느니라.” 성경의 모든 기록은 각 세대마다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고 본보기가 되도록 교훈한다. 우리는 성경 전체 또는 부분에서 목회와 사역의 본보기를 삼을 수 있다.

로마서 15:4 “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1-2 “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 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과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감당하며 그러한 태도를 자신의 섬기는 교회들에게 제시하였다. 목회자의 사역은 이러한 원리와 기준에 따라야만 한다. 제프리 길(Jeffrey A. Gill)은 “교회의 리더십은 성경적인 리더십이어야 하며, 세속적인 경영과 다르다 ... 미국교회들 대부분 ‘경영’은 잘하지만 성경적 리더십이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한다.¹⁴

히브리서 11 장은 ‘목회자의 유종의 미’에 대한 가장 좋은 성경적 기초이다. 한 장 속에 성경 인물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여기 한 장에 16명 이상의 인물들의 삶과 사역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들의 일생 전부를 다 기록하지는 않고 있다. ‘유종의 미’를 연구하기에는 주의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비록 일생에 대한 전기적인 기록은 없다 할찌라도 전후 문맥을 통해서 그들의 ‘유종의 미’를 판단할 수는 있을 것이다.

¹⁴ Ibid., 13.

디모데후서 4:7-8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기에 ‘유종의 미’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이 본문은 ‘목회자의 유종의 미’를 연구하는데 신학적 기초와 정의로
 삼기에 충분하다.

그것은 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그를
 비참하게 생각하고 수치스런 죽음을 예상했지만, 그들의 왜곡된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큰 용기를 가지고 모든 재앙에서 일어서고 있으며, 그 결과 아무것도
 자신의 행복과 영광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기에 그가 싸워온 싸움은
 선하고 영예로웠던 것이다.”¹⁵

② ‘달려갈 길을 마치고’ - “경주의 목표처럼 바울은 죽음을 자신의
 목표지점으로 보고 달성하였다는 고백이다. 죽음을 앞에 두고 즐거워하기 까지
 하며 목표에 도달하였다고 본다.”¹⁶

③ ‘믿음을 지켰으니’ - “바울은 끝까지 자기 대장 예수에게 충실한
 군인이었으며, 복음의 순수한 교의를 계속 증거하였다.”¹⁷

(2) 상황화

토마스 스텔터 (Thomas M. Stallter) 는 “우리들의 자민족중심적 문제들(Our
 Ethnocentric Problems)을 상황화가 필요한 기초적 요인”¹⁸ 이라고

¹⁵ Joha calvin, *칼빈성경주석 9*, 존.칼빈성경주석출판위원회, 서울:성서교재간행사 역,1980. 603.

¹⁶ Ibid., 603.

¹⁷ Ibid., 603.

¹⁸ Thomas M. Stallter, *의미 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TMS Oct. 2015. 1.

지적한다. 그것은 다음 몇 가지 성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는 성향’,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처음) 나타난 문화적 시스템의 중요성을 간과하려는 경향’, ‘타 문화권 행위 이면에 있는 가치관, 신념, 전제들을 무시하려는 경향’, ‘우리 식으로 성경 진리를 적용한 것을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¹⁹ 때문이다. 여기서 상황화가 필요하다.

폴 히버트(Paul G. Hibert)는 개신교 선교사가 과거 100 년 동안 다룬 방법을 조사하여 ‘비판적 상황화’를 제시한다. 그는 “선교사는 문화적 공백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회와 문화의 구성원을 찾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문화를 정착 시키려 하면 비판적 상황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는 다음 세 단계를 제시한다.²⁰

첫 번째 단계는 현상학적으로 지역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다.——두 번째 단계에서는 목사 또는 선교사는 이 질문에 관련된 성서의 연구를 통하여 회중을 인도한다——세 번째 단계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그들의 새로운 성경적 이해에 비추어 과거의 관습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이 발견된 진리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결정하는 것이다²¹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새로운 진리에 비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화를 평가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힘에 의지한다. 그들은 선교사보다 그들의 전통문화를 더 잘 안다. 그리고 일단 그들이 성경적 교훈을 가진다면 그것을 비평하는데 있어서 더 나은 위치에 있다 … 기독교에 위배되는 다른 관습은 회중에 의해 명백히 거절될 것이다.”²² “만약 목사나 선교사가 성경적 가르침의

¹⁹ Ibid.,1.

²⁰ Paul G. Hibert, *인류학적 접근을 통한 선교현장의 문화이해*, 안영권 역, 죠이선교회 출판부, 95.

²¹ Ibid., 113-114.

²² Ibid., 115.

기준에서 그들의 오랜 관습을 분석하도록 그 사람들을 인도 하다면, 그들이 사건의 기독교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새로운 의식으로 선택한 관습을 정리하게 해야 한다. 그러한 의식은 명백히 성경적 가르침을 표현하기 때문에 기독교적이 될 것이다. 자신의 문화 안에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형식을 사용하면서 교회가 그것을 창출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상황적이 될 것이다.”²³

(3)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급진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신앙을 다른 그 어떤 것과도 구별해 주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에 들어오신 것이다. 성육신을 통하여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개인적 관계를 갖게 되는 문이 넓게 열렸다.”²⁴

사도 요한은 성육신을 이렇게 말하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²⁵ 이에 앞서 “사도 요한은 ‘로고스’를 말씀(Word)으로 이야기 할 때 그것은 예수님과 연관시키며 일반적인 용어를 넘어서 나아갔다. 즉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셨다고 선언했다. 이와 같이 요한은 ‘로고스’를 상황화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역동적인 방법으로 동시에 사용한다”²⁶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깝게

²³ Ibid., 116.

²⁴ Charles H. Kraft 편저, *말씀과 문화에 적합한 기독교*, 강승삼 감수, 김요한 외 번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696.

²⁵ 요한복음 1장 14절.

²⁶ Charles H. Kraft 편저, *말씀과 문화에 적합한 기독교*, 강승삼 감수, 김요한 외 역, 697.

거하신다고 말할 때 그것은 복음이 선언하는 것들과 도전하는 것들에 의하여
접촉을 이루지 못하는 삶의 국면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⁷

딘 길릴랜드(Dean S. Gilliland)는 성육신적 선교 패러다임을 세가지
차원에서 적용한다. 첫 번째는 복음전도인데 “회심에 필요함을 알게 해주는
환경과 사건들은 개인마다 다르다 ... 분명히 메시지가 전달되는 양식뿐 아니라 그
내용도 그 장소의 문화와 언어에 적합한 필요가 있다.”²⁸ “두 번째 차원은 양육
혹은 가르치는 것이다. ... 상황화의 양육 차원은 새로운 회심자들을 세우고 장소에
따라서 적합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표현들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극단적으로 중요하다 ... 성경적인 가르침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그들의 일상적인 용어를 통하여 신앙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인도할 때
성육신적이다”²⁹ “세 번째 차원은 사회적 행동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돌보아야 하며 삶을 쇠퇴시키고 파괴하는 잘못된 것들을 바로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 여성을 귀히 여기셨고, 시대적
상황을 뒤집히셨으며, 종교 및 정치적 지도자들의 죄를 드러내셨고, 전통을
비판하고 새 왕국의 평화와 공의에 대한 계획을 펼치셨다.”³⁰

그가 뉴욕의 정신과의사인 존 로슨(John Rosen)박사에 관한 글을
인용하는데 여기 재인용 한다.

보통 의사들은 자신들의 환자와 다로 떨어져 홀로 있다. 로슨 박사는 그들과
함께 있는 병실로 이사한다. 그는 그들의 침대 가운데서 자신의 침대를 자리
잡는다. 그는 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을 산다. 날마다 그는 그렇게 나눈다. 그는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도 이야기 하지 않는다. 마치도

²⁷ Ibid., 712.

²⁸ Ibid., 713.

²⁹ Ibid., 713.

³⁰ Ibid., 713.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처럼, 그가 거기 있는 것,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들이 수년 동안 경험하지 못하였던 무엇인가를 의사 소통한다. 누군가 이해한다. 그제야 그는 무엇인가 다른 일을 한다. 그는 그의 팔로 그들을 감아 껴안는다 ... 그리고 삶 가운데로 돌아가 그들을 사랑한다. 때때로 그들이 처음 하는 말은 “단순히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다.³¹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 세상에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있는 병실로 이사 오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침상을 우리 침상 가운데에 펴셨다 ...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기록한 적합한 기독교이다.”³²

토마스 스텔터는 ‘성육신적 사역’ 을 ‘자기 자신의 상황화’ 라고 하였다.

³³ 아주 탁월한 이해이며, 매우 적절한 적용이라고 본다.

2. ‘유종의 미’ 에 대한 성경적 정의 및 모델들

(1) 성경적 정의

“ ‘유종의 미’ 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공헌하는 것을 의미한다.”

³⁴ 클린턴은 ‘유종의 미’ 를 거두는 리더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 (1) 끝까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생생한 관계를 유지한다.
- (2)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고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통해 배우며, 특히 삶의 경험을 통하여 계속 배운다.
- (3) 삶에서 성령의 열매의 증거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나타낸다.
- (4) 진리를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본다.
- (5) 하나 혹은 더 많은 영적 유산을 남긴다.

³¹ Ibid., 737.

³² Ibid., 717.

³³ Thomas M. Stallter,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81.

³⁴ Clinton, *유종의 미*, 31.

(6)사명의식을 점차적으로 분명히 확신하고 그것의 일부나 전부가 성취되는 것을 본다.³⁵

유진 피터슨(Eugene H. Peterson)은 이 시대 종교가 관광객의 구미에 맞추는 것을 지적하면서 “고어 비달(Gore Vidal)이 현대인의 ‘즉각성과 일회성 추구 성향’으로 분석한 이 세상의 속성이다. 너 나 할 것 없이 급하다 … 하지만 목회자는 관광 가이드가 아니다 … 그리스도인의 삶은 관광객의 자세로는 성숙할 수 없다.”³⁶고 지적하면서 그가 존경하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을 인용한다.

“지상과 천상을 통틀어 절대적인 사실은 …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있어야만 하며, 그 때에만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게 해주는 결과가 있게 마련이고, 또 언제나 그래왔다는 것이다. 결국 세상의 분위기가 그토록 좌절시키려 드는 것도 이러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다.”³⁷ 그는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의 그러한 조류를 인식하고 저항하는 데 매우 유용한 두 가지 성경적 호칭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제자와 순례자’이다.”³⁸ 목회자의 유종의 미는 ‘제자와 순례자’로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은 앞서 디모데후서 3장 7-8절과 같다.

이는 또한 “바울이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빌립보서 3:14)고 했던, 발전적인 성숙의 단계로 이행하는 실존적 삶을 표상한다.”³⁹

³⁵ Ibid., p.61-65.

³⁶ Eugene H. Peterson, *한 길 가는 순례자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김유리 역, 서울: IVP, 2001, 17.

³⁷ Peterson, *한 길 가는 순례자*, 17.

³⁸ Ibid., 17.

³⁹ Ibid., 18.

히브리서 11 장은 믿음으로 산 성경인물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된다. 그리고 이어서 12 장은 결론적인 권면을 준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1-2) 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인이란, ‘일평생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며, 목회자도 동일하다.

‘유종의 미’ 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 받아 일평생 예수를 바라보고 한 방향으로 순종하여 자신의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공헌하는 것’ 이라고 하겠다.

(2) 성경적 모델

클린턴은 성경의 인물 약 1,000 명을 조사하고, 그 중에 중요한 리더 100 명을 대상으로 리더십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 약 절반만이 그들이 어떻게 삶을 마쳤는지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한다.⁴⁰ 그는 실제로 49 명의 인물에 대하여 평가하였고, 생애를 끝까지 잘 마치고 유종의 미를 거둔 전형적인 인물은 아브라함, 욥, 요셉,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예레미야, 다니엘, 예수, 요한, 바울, 베드로라고 한다.⁴¹ 클린턴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초기에 몰락함 - 암살, 전쟁에서 죽음, 예언적인 탄핵, 지위박탈 등으로 리더십에서 일찍 제외된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인물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시) 아비멜렉, 삼손, 압살롬, 요시아, 세레 요한, 야고보 등.
2. 초라하게 마침 - 사역 후반기에 타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것은 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또는 사역 능력의 관점에서 혹은 둘 다 의미한다.
(예시) 기드온, 삼손, 엘리, 사울, 솔로몬 등.
3. 그저 그렇게 마침 - 그들이 가능한 할 수 있었던 일이나, 혹은 했어야만 올랐던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기 원하셨던 것을 완수하지

⁴⁰ Clinton, *유종의 미*, 29.

⁴¹ Clinton, *유종의 미*, 31.

못한 것이다. 그들이 삶의 말기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을지라도 그들의 시역과 리더십에서 실패하고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등.

4. 끝까지 잘 마치고 유종의 미를 거둔 - 자신의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공헌한 것을 의미한다.

(예시) 아브라함, 욥, 요셉,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에레미야, 다니엘, 예수, 요한, 바울, 베드로 등

5. 확실하지 않음- 어떤 리더는 별로 주목 받지 못했을지라도 아마 끝까지 잘 마쳤을 것이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들의 삶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⁴²

이러한 분석은 전적으로 동의할 수 밖에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성경의 인물은 고정된 인물이며 누가 연구해도 동일한 결론에 이를 것이다. 다만 누가 먼저 이런 연구를 해내고, 하나의 원칙을 만들어 성과를 이루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클린턴의 연구는 성경 전체 인물을 분석한 방대한 연구이며, 탁월하고 그 성과는 매우 소중하다 할 것이다. 여기서 구약과 신약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 대표적인 인물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성경 속의 ‘유종의 미’ 모델들

(1) 아브라함의 ‘유종의 미’

유진 피터슨은 신앙인을 ‘제자와 순례자’로 규정하면서 아브라함을 그 원형으로 삼았다.⁴³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순례자의 길을 시작한다. 그의 나이 75세이다. 여기서 순례자로서 시작하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소 늦은 나이에 부름을 받고 시작하지만 ‘유종의 미’가 중요하다. 아브라함의 기록은 창세기 12장에 시작하여 25장에서 마친다. 그러나 그의 유산은 창세기를 넘어 구약 전체에 이르고, 신약성경까지 나아간다. 그리스도

⁴² Clinton, *유종의 미*, 29-31.

⁴³ Peterson, *한 길 가는 순례자*, 17.

안에서 현대 모든 크리스천에게까지 그 유산이 이른다. 그것은 그가 예수 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유종의 미'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많았다. 가장 큰 장애물은 상속자와 관련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낳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창세기 15:4) 하였다.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래의 몸종 하갈을 취하여 상속자를 얻으려 하였다. 이 하갈을 통해 86세 때 이스마엘을 얻는다, 그러나 그 이후 13년간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었다(창세기 16:16-17:1), 아브라함 생애에 어두움이 임한 것이다. 13년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것은 사실상 사역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약속에 대한 불순종은 '유종의 미'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의 하나이다.

'유종의 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다(창세기 17:1).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게 하셨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 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5-6)

이 언약 이후, 아브라함 나이 100세 이르러 아들 이삭을 얻게 된다. 언약대로 '웃음'을 웃게 하신다(창세기 21:6).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산 증거이다. 이삭의 출생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는 무난하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것으로 예상할 것이다. 그러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삭을 통한 커다란 시험이 다가온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명령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수 많은 시험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하나님을 순종할 뿐이다. 순종의 근거는 다름아닌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신실함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12)고 하셨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시험에 통과하게 되고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취하게 된다. 히브리서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하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19) 라고 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동력을 삼는다. 이 사건 이후 아브라함은 마지막 생애를 무난하게 마친다. 아브라함은 175세 나이로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창세기 25:7-8). ‘유종의 미’ 를 이루게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 과 ‘언약’ 그리고 ‘순종’ 과 ‘믿음’ 으로 ‘유종의 미’ 를 거두었다고 할 것이다.

스팁스 (A.M. Stibbs)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직접 친밀한 교제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름 받았다” .⁴⁴ 그의 모범을 따라 좋은 결과를 바라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그의 소망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는 사실부터 가르침을 받으라” ⁴⁵고 권면한다.

(2) 모세의 ‘유종의 미’

리더십 연구에 탁월한 존 맥스웰(John Maxwell)은 그의 책 ‘성경에서 배우는 불변의 리더십’ 에서 ‘리더십의 21가지 불변의 법칙’ 주장한다. 구약과

⁴⁴ A.M. Stibbs, *하나님의 친구*, 김남식 역, 한국개혁주의신행협회, 1972. 85.

⁴⁵ Ibid., 92.

신약의 성경 인물을 중심으로 리더십의 원리를 21가지로 정리한 것이다. 그는 다만 모세에게서는 2가지 원리를 찾아내는데, ‘모세와 여호수아의 재생산의 법칙’과 ‘모세의 회생의 법칙’이 그것이다.⁴⁶

모세의 생애는 아브라함의 생애와 다르다. 아브라함은 75세부터 기록되었다면, 모세는 출생부터 마지막 죽음까지 전 생애가 다 기록되었다. 모세는 출생부터 위기를 맞는다.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출애굽기 1:16)’ 명령하였으나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왕 바로 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세를 살린다. 부모는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상자에 담아 나일강 떠워 보냈으나 애굽의 공주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다. 여기서 그 이름을 모세라 부르게 된다.⁴⁷

모세의 생애는 3주기로 나눌 수 있다. 출생에서 40세까지 애굽 궁정에서 삶, 40세에서 80세까지 광야에서 삶, 그리고 80세에서 120세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한 것이다. 모세 역시 그 생애의 주기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인약과 은혜로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 첫 번째 위기는 애굽 사람을 쳐죽여 살인자로 낙인 찍혀 바로가 그를 죽이려 한 것이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 지라 모세가 바로의 낮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출애굽기 2:15). 당시 세계적인 제국 애굽의 바로가 찾아 죽이려고 한 것은 엄청난 위기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모세는 위기를 피하여 미디안으로 갔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 위기는 하나님의 손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⁴⁶ John Maxwell, *성경에서 배우는 불변의 리더십 (The 21 most powerful minutes in a leader's day)*, 채천석 역, 서울: 정우, 2001, 243, 343.

⁴⁷ 모세는 '건져 냄'이라는 의미이다.

두 번째 위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는 일이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음으로 가능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월절을 제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사자로부터 지켜주신다. 모세 역시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출애굽하게 된 것이다. 유월절 양은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상징한다. (히브리서 7:27, 9:12, 10:12, 10:19, 11:28, 13:12).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생명을 얻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섬기다가, 유월절 예식을 제정하고, 마침내 '유종의 미' 를 거두게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사역자들의 '유종의 미' 는 예수 안에 있는 언약, '피로 세운 새언약' 에 기초한다고 할 것이다.

모세의 세 번째 위기는 광야 4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이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광야생활의 지도자가 겪는 비난과 희생을 감당 해야만 했다. 호렙산에서 40일 금식기도와 백성들의 불순종 과정에서 여러 번 위기를 겪게 되고, 마침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신명기 3:27). 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 '유종의 미' 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기성세대는 광야에서 거의 다 죽음을 당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 죽음을 맞게 된다.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죽음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와 종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뱃브울 맞은 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신명기 34:4-6)

그렇다면 모세는 '유종의 미'를 거두었는가? 이어서 그에 대한 마지막 기록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백이십 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신명기 34:7) 하였고, 신약성경에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유다서 1:9)하였다. 무엇보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할 때 모세에 대하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좌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26)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모세는 '유종의 미'를 거둔 것으로 확신할 수 있다. 모세는 '언약' 과 '믿음' 그리고 '온유함' 으로, '유종의 미'를 거둔 리더였다.

맥스웰은 "성경에서 한 리더가 가졌던 희생의 가장 좋은 예는 구약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의 삶이다."⁴⁸ "모세는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부서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겪었다. 그는 히브리인들을 한 손으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특권층 자녀에서 벗어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민수기 12:3).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⁴⁹ 라고 말하면서 '성경에서 배우는 불변의 리더십'의 모델로 본다.

(3) 다윗의 '유종의 미'

다윗의 선택은 사울 왕의 실패에서 시작된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상 15:35). 그리하여 사무엘로

⁴⁸ Maxwell, *성경에서 배우는 불변의 리더십*, 347.

⁴⁹ Ibid., 347.

⁵⁰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께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오 나를 견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지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하였는데 이 모든 용어는 전투적인 용어들이다.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지다. 다윗이 '유종의 미'를
 하셨느니라' (역대상 28:3). 이처럼 대적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것도 그런 연유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없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하는 성전건축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은
 승리하였고, 전쟁 과정에서 대적의 피를 흘리게 하며, 그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이런 전투적인 삶에서 나온 신앙고백이다.⁵⁰ 그 이후 다윗은 수많은 전투에서
 하였지만 그를 지켜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다윗이 남긴 수많은 시편은
 사울과 전투적인 삶을 시작하였다. 사울은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이요 다윗은 만만 이로다' (사무엘상 18:7)로 인하여
 시작하였고(사무엘상 17장), 블레셋 사람(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여인들의 노래
 다윗의 힘은 전투적인 생애였다. 그가 전면에 등장할 때도 전쟁터에서
 하나님 먼저 불러야 한다.
 13:22). '유종의 미'를 이루는 출발점은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훗날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사도행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7). 다윗의 선택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나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와 나 여호와께는 중심을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아들 중에서 그를 부를 자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을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여금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기를 못게 하셨다. 사무엘이 이새의

거두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맥스웰의 지적처럼 “다윗은 결점이 있었고, 문제를 일으켰으며, 실패하기도 했다.”⁵¹ 특히 그의 심복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한 것은 엄청난 범죄였다. 선지나 나단의 지적처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와 말씀의 언약을 맺었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12:9-10).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명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유종의 미’ 를 이루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다.

다윗의 생애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는 언약이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하 7:16). 이 언약은 예수 안에서 성취된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으로 다윗의 왕권을 이어간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유종의 미’ 를 거두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유종의 미’ 는 개인의 능력이나 영광을 위함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언약을 위함이다. 다윗의 생애가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이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사십 년이라 헤브론에서 칠 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 동안 다스렸더라’ (열왕기상 2:10-11).

(4) 바울의 ‘유종의 미’

신약성경에서 사도바울의 출현은 사도행전 8장에서 시작된다. 스테반의

⁵¹ John Maxwell, *성경에서 배우는 불변의 리더십*, 208.

순교에 대하여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행전 8:1),

그리고 9장에서 사울의 회심이 나타나고 13장에서 안디옥으로 파송된다. 그 이후 사도행전은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된다. 신약성경을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 이후 사역으로 나눌 때, 예수님 이후는 사도 바울이 그 중심을 이룬다. 바울의 사역은 신약성경과 초대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 바울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는 ‘유종의 미’를 거둔 사역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⁵² 그의 말년에 기록된 디모데후서의 고백이 이것을 뒷받침한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6-8). 이 말씀은 목회자의 ‘유종의 미’를 규정하는 정의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바울은 복음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3차에 걸쳐 소아시아와 유럽 선교 여정을 가졌다. 그가 선교여정에서 겪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는 다음과 같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때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린도후서 11:23-27)

이러한 고난과 위기를 지나서 바울사도가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유종의 미’를 거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라고 한다.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 (고린도전서 15:10)라 고백하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고린도후서 12:9) 라고

⁵² Clinton, *유종의 미*, 28.

⁸³ 은혜인 성경, 성경 검색, '은혜'

인격과 삶, 사역에서도 동일하다. 목회자의 '유종의 미'를 이루는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가장 완전한 모범이 되신다. 그것은 목회자의

(5) 예수님의 '유종의 미'

모델(role model)이다.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현대교회 목회자에게 역전의 롤 목회자는 이러한 사명과 사역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20:24)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13:45-46)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므로 그 가슴에 역동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달려갈 온혜'이며, '복음 전도'와 '하나님나라 확장'에 그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된다.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하는 목회자의 '유종의 미'는 '하나님의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며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10-14)

다음 고백은 이를 잘 보여준다.

참아게신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그를 부르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 가슴에 역동하는 것을 것이다.

고백하였다. 바울서신에서만 '은혜'가 95회⁸³ 사용된 것으로 이를 확인할 수

동일하게 완전한 모범이 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 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 이라’
(빌립보서 2:5-8)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30) 라고 선포하셨다. 그 외침에는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 성육신의 목적이 다 포함된다 (주석 참조).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의 완성 곧 ‘유종의 미’ 를 온전히 이루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은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사역의 완성이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처형 이전에 여러 번 예고하신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그 완성을 뒷받침한다. 복음은 예수의 오심과 사심과 죽음과 부활을 다 포함한다.
(고린도전서 15:1-4)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면서 ‘완전한 사람’ 으로 오셨다. 그럼으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직면하셨고, 우리와 같은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다 (마태복음 4:1-11). 따라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사명을 완전히 성취하는 일을 아무런 갈등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명의 완성 곧 ‘유종의 미’ 를 이루는 일도 우리와 동일한 어려움과 장애물을 겪었다고 보아야 한다. 예수께서 ‘유종의 미’ 를 이루는 과정에서, 그 장애물과 그것을 극복하는 요소들을 규명하고 정리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목회자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기록 가운데 유년시절과 공생애 전까지 개인 사역에 대한 성경기록이 많지 않은 것을 불평하거나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성경의

기록자이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드리는 것이 지혜롭다. 성경 이외 자료를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성경의 한 두 구절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유추 할 필요도 없다. 적은 분량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 이다.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을 중심으로 평가할 때 공생애 이전의 삶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마태복음 3:13).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은 잘 알려진 대로 대략 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 길지 않음을 보여준다. ‘짧고 굵게’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약 3년의 기간을 매우 밀도 있게 사역함으로 ‘유종의 미’ 를 거두었다고 할 것이다. 목회자의 사역도 사역의 기간이 얼마나 많은가, 기간에 대해 중요성 보다는 사역의 질, 밀도에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보듯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부터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삶을 살고 마침내 ‘유종의 미’ 를 거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클린턴(J. Robert Clinton)은 ‘유종의 미’ 를 방해하는 걸림들을 ①재정의 오용과 남용, ②권력 남용, ③교만, ④성-부적절한 이성 관계, ⑤가정문제, ⑥정체기 등으로 규정하였다.⁵⁴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전혀 걸림들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성경의 기록에서 거의 찾을 수 없다. 예수님께에서 ‘유종의 미’ 를 방해하는 걸림들은 다른 데 있다. 그것은 먼저, 사탄의 방해이다. 사탄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 하였다(마태복음 4:1-11).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였다.

⁵⁴ Clinton, *유종의 미*, 38-42.

그 다음 방해물은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내내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과 그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비방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다. (마태복음 26:4,59, 마가복음 14:55, 누가복음 19:37, 요한복음 7:1,19)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의 흉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사역의 완성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하나님의 지혜였다 (고린도전서 1:23-24).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걸림들 중의 또 하나는 제자들이다. 이것은 역설적이다. 제자들은 예수 사역의 동역자였지만 동시에 걸림들이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세상 나라를 꿈꾸며,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를 요구하였다(마가복음 10:37).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는 예수의 죽음에 실망하여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기도 하였다(요한복음 21:3).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은 변화되어 증인으로 순교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의 사역자로서 ‘유종의 미’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자기정체성이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음을 인식하였다 (요한복음 5:19,30). 요한복음에 나타난 7번의 ‘나는 ...이다’⁵⁵는 예수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 거늘 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요한복음 14:9-11).

⁵⁵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6).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문은 예수님의 자기정체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자기정체성은 그 사역을 끝까지 수행하는 강력한 힘이 되어 '유종의 미'를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요소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였다. 그것은 삼위일체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 섭리에서 출발하여(구원에 대한 삼위일체 의논), 예수님 사역 전반에 나타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29).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39). 라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잔'을 받았다.

셋째 요소는 '하나님과 교제'이다. 예수님은 틈나는 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였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35). 라는 기록은 상징적이다. (예수님의 기도 참조)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이며, 대화이고, 영적인 섭이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사역하였다. 기도예 대한 예수의 대표적인 가르침은 주기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9-10).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며, 직접 기도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기에 충분하였다.

넷째 요소는 '성령과 교통'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태함으로 세상에 와서 성령과 함께 교통하며 사역하였다. 예수의 사역에서 성령을 제외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동등한 신적 지위를 가지며 온전히 교통하며 동행하였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며 (누가복음 4:1-2),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누가복음 4:18-19),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내쫓고, 만물을 다스리며,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에베소서 1:20). 예수님의 사역에서 성령의 명칭이 직접 나타나지 않아도 모든 사역 배후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일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간 이후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고 하였다(요한복음 14:16-17, 26, 16:13). 예수님의 약속은 오순절에 성취되었다.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연약한 모습에서 벗어나 능력 있는 사역자로 활동하였고(사도행전 2:1-4), 마지막에는 순교자가 될 수 있었다. 성령의 교통과 충만함은 목회자로 하여금 '유종의 미'를 거두기에 충분하도록 일하신다.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을 효과적으로 받아드리는 원리는 다음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21-26).”⁵⁶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 됨을 집착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비워 우리같이 되심은 우리로 당신같이 되게 하사 당신의 신성한 삶을 함께 나누게 하려 하심입니다.”⁵⁷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⁵⁶ Henri J.M. Nouwen, 모든 것을 새롭게, 윤종석 옮김, 두란노, 2000, 48.

⁵⁷ Ibid., 49.

것은 우리를 신성한 삶의 온전한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진리란 어떤 사상이나 개념이나 교의가 아니라 참된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진리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누리시는 바로 그 관계로 인도받는 것이요, 신성한 약혼에 들어서는 것입니다.”⁵⁸ “그러므로 성령 안에 사는 삶이란, 예수님의 삶의 특징처럼 아버지를 향해 순종의 관계에 들어선 자들이 예수님의 지상 강림 - 성육신, 죽음, 부활 - 을 계속 뒤이어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아들이셨듯이 역시 아들 딸 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⁵⁹

4. 성경 인물들의 ‘유종의 미’ 종합

성경 인물의 유종의 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 인물의 유종의 미

성경인물	방해요소	가능케 하는 긍정 요소
아브라함	상속자와 관련 약속의 불순종	하나님의 ‘선택’ 과 ‘언약’
모세	교만한 특권층 자녀	‘언약’ 과 ‘믿음’ 그리고 ‘온유함’
다윗	살인과 간음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바울	고난과 위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사탄의 방해, 유대인, 제자들	자기정체성, 순종, 성령과 교통

⁵⁸ Ibid., 50.

⁵⁹ Ibid., 52.

1.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이것

이러한 특징과 함께 성경에서 가장 선명하게 강조하는 요소는,

- (1) 플카지 하나님과 개인적인 생생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 특징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지도자는 구약의 다니엘이고, 신약의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요한이다.
- (2) 배후는 자세를 유지하고 다양한 종류의 자포를 통해 배우며, 특히 삶의 경험들 통해 계속 배운다. 이 특징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강화 수단이기도 하다. 다니엘은 이 특징을 잘 보여준 전형적인 구약의 지도자이다.
- (3) 삶에서 성명의 열매의 증거로 그리스도를 잃은 성품을 나타낸다. 다니엘은 정진한 삶의 끈을 보여주는 구약의 전형적인 지도자이다. 신약에서는 바울의 삶에 나타난 성품의 변화에 대한 증거를 주목하라.
- (4) 진리를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본다. 여호수아가 그의 고별 연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응하여 있음을 고백한다.
- (5) 하나님 혹은 더 많은 영적 유산을 남긴다. 다니엘의 궁극적 공헌은 성자, 멘토, 작가, 안정가를 포함한다. 그리고 바울의 궁극적 공헌은 성자, 멘토, 개척자, 개척가, 작가, 주창자를 포함한다.
- (6) 사명의식을 전자적으로 분명히 확신하고 그것의 일부나 전부가 성취되는 것을 본다. 사명의식은 리더가 어떤 경험이나 연속적인 경험들에서 생기는 내적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자적으로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다. ... 요셉이 꾸었던 꿈을 통해 사명의식이 계시되었고, 그가 이제 갖 태동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의식을 성취하며 자기 백성을 구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비전과 사명을 성취했다.⁶¹

무엇인가? 클린턴은, '유종의 미'를 거둔 리더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성경 인물들이 '유종의 미'를 이룰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한 요소들은

'정년'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 조수는 매우 귀한 존재들이다.

그들은 사역에는 원정한 임기나, 나이 제한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들에게는

인물들이, '유종의 미'를 평가 할 때, 그들은 일평생을 전제로 평가하는 것이다.

클린턴의 연구에 의하면 볼과 30% 미만이라고 한다.⁶⁰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다.

2. 언약과 관련이 있다. 성경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 이다.

3. 복음에 핵심이 있다. '은혜' 와 '언약' 은 '복음' 으로 귀결된다.

'복음' 은 '하나님의 은혜' 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 선물을 받은 자는 '유종의 미' 를 거둘 수 있으며, 그 역으로, '유종의 미' 는 복음의 결과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유종의 미'를 알 수 없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을

'실패한 인생' 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성경의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의미한 존재는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은 크기나, 외모,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아니다. 참새 한 마리의 운명도 과장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운명을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의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으로 사용하신다.

제 3 장

서울북노회 목회자의 사역 마무리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고, 나아가 목회자로 직분을 받는 것은 귀하고 복된 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정규 신학교육을 이수하고, 건전한 교단에서 목사로 안수 받는 것은 그 과정과 기간이 매우 긴 시간과 열정이 소요된다.⁶² 그 이후, 한 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일생을 받쳐 사역하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본인에게는 영광스러운 일로 존경과 명예를 가지는 일이며 교회도 아름답고 복된 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목회자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그들의 남은 생애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현대교회에서 한 사람 목회자가 장기 목회를 하는 경우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⁶³ 특히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사역하고, 70세 정년으로 사역을 마무리하는 경우는 '원로목사'로 청빙하여 그 명예를 보존하고, 남은 생애 동안 생활비를 책임지는 제도는 매우 소중하며,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⁶⁴ 교회 역사가 오래 될수록 원로목사가 많아지고, 원로목사의 유무에 따라 교회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목회자가 '유종의 미'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의 규정대로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하고, 나이가 70세 되어 정년 은퇴한

⁶² 대한예수교장로회는 목사의 자격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만 30세 이상 자로 규정한다 - 정치 제4장 제1조. *총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011, 155.

⁶³ 백운형, *개혁에서 성장까지-장기 목회와 관련하여*, 서울:지평서원, 1996, 67.

⁶⁴ 헌법,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57.

경우를 말한다. 70세 정년과 관련하여 성경의 인물들은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정년제도가 없었다. 그러나 한국교회 장로교 대부분 총회에서는 70세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의 서울북노회 목회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서울북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에 속한 노회로 경기도 고양시와 과천시 지역을 기반으로 2001년 서울노회에서 분립하여 세워진 노회이다. 2001년 분립당시 69개 교회, 목사회원 89명이었다.⁶⁵ 2017년 현재 105개 교회, 목사회원 269 명이다.⁶⁶

1. 사례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북노회에서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 30명이 교회를 사임하였다. 여기서 단순히 사역지를 옮긴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북노회 안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 목회 사역을 계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목회자로 최종적으로 사역을 마무리한 경우이다. 그 중에는 70세 정년이 되어 명예롭게 은퇴한 사역자들이 있고, 70세 이전에 조기 은퇴한 사역자들이 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그만두고 사역을 마무리한 퇴임자들이다. 그들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명예롭지 못한 퇴임이라고 할 것이다.

30명의 퇴임자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정년은퇴자 : 17명

조기은퇴자 : 5명

불명예퇴임 : 7명

⁶⁵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제1회 의사자료, p.8-9.

⁶⁶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제32회 의사자료, p.12-20.

사망자 : 1명

2. 사례분석

서울북노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한 목회자 30명 중, 정년 은퇴한 17명의 목회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13명의 목회자에 대하여 그들의 사역 마무리 이유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C교회 C목사⁶⁷ - 1978년 C교회를 개척하여, 2012년 교회를 폐쇄하였다.
34년간 사역하였지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였다. 결국 교회를 폐쇄하고 C목사는 더 이상 목회 사역을 하지 않게 되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가 무작정 성장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대를 살면서, 동일한 지역에서 목회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목회자들이 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것을 시대나 환경 등 외적인 이유만을 탓할 것이 아니다. 아울러 장기 목회가 교회 성장에 유익하다는 평가도 한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교회에 따라, 목회자에 따라 평가를 달리해야 할 것이다.
- 2) B교회 C목사⁶⁸ - 1992년 B교회를 개척하여, 2010년까지 18년까지 목회하였으나, 정년까지 목회하지 못하고 사임하였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원인도 있지만, 재정과 관련하여 교회로부터 신뢰가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재정에 대한 불신은 목회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된다.⁶⁹
목회자나 그의 가족은 교회 재정에 대하여 공과사를 철저히 나누고,

⁶⁷ 교회와 목회자의 이름을 이니셜로 표기한다. 그것은 본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의도이다. C교회 C목사는 직접 만날 수 없어 지인을 통해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⁶⁸ B교회 C목사의 경우 본인의 명예를 위하여 간접적으로 자료를 얻었다.

⁶⁹ Clinton, *유종의 미*, 39

직접적인 편역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E교회 L목사 - 1985년 E교회를 개척하여 22년간 목회하였으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여 2007년 교회를 폐쇄하였다. L목사의 경우도 비교적 장기간 목회하였으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것이다. L목사의 경우도 '장기 목회'의 장점만으로 설명될 수 없을 것이다.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정년 은퇴' 함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까지는 다양한 요소가 구비되고, 복합적인 요인이 갖추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목회자가 사역을 중단하는 경우, 교회를 폐쇄하는 경우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성경적인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할 때 더욱 불합리하다. 교회는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된다. 더욱 목회자의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없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어야 하고, 목회자가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경우는 교회를 폐쇄하기 전에 다른 목회자가 사역하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에서 '교회 폐쇄'라는 극단적인 결정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비극이다.
- 4) I교회 S목사⁷⁰ - 1995년 I교회에 부임하여 16년간 목회하다가 2011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의 나이 55세였다. 목회자의 건강은 '유종의 미'를 방해하는 걸림돌 중의 하나임을 보여준다. 클린턴(J. Robert Clinton)은 '유종의 미를 가로막는 장애물'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 현대목회에서는 목회자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⁷⁰ I교회 S목사는 소천하였으므로 주변 지인들을 통해 자료를 얻었다.

- 5) D교회 S목사⁷¹ - 1977년 S교회를 개척하여 27년간 목회하고 2004년 사임하였다. S목사의 경우도 사임하게 된 원인이 건강문제였다. 질병으로 목회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목회자의 건강문제가 목회에 중대한 요소인 것을 한번 더 보여주는 사례이다.
- 6) K교회 L목사 - 2000년 K교회에 부임하여 6년 동안 사역하고 2006년 사임하였다. 당회 내 갈등과 목회자에 대한 교인들의 신뢰의 상실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회의 당회는 교회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많은 장로교회가 당회 내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회 갈등이 목회자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당회원 장로들의 문제인지 보다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 7) ⁷² Y교회 P목사 - P목사는 1975년 Y교회에 부임하여 31년간 목회하고 2006년 사임하였다. P목사는 31년이나 되도록 오래 동안 사역하였지만 교회 발전이 부진하고 목회자의 건강이 문제가 되었다. 여기서도 목회자의 건강문제가 장애물이 되었다. 목회자의 건강 문제도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 아니라,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질병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장기적인 교회 발전의 부진은 목회자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어 정신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 8) K교회 Y목사 - 1991년 K교회에 부임하여 7년간 목회하고 1998년

⁷¹ D교회 S목사의 경우도 본 조사를 실시할 때, 이미 소천하여, 후임 목회자를 통해 자료를 얻었다.

⁷² Y교회 P목사의 경우, 본 연구를 진행하기 전 소천하여 후임목회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료를 확인하였다.

사임하였다. 당회 갈등으로 교인들의 신뢰가 상실하여 목회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교회에 따라 당회 갈등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포함될 것인데 장로들의 리더십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같은 교회에서 목회자 부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당회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 현재의 장로교 정치 체제에서는 문제 해결이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당회원 모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기 점검이나 컨설팅(consulting)이 필요할 것이다. 목회자의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재교육이나 세미나 등 지속적인 자기 점검이 이루어지지만 장로의 경우는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노회나 총회 차원에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9) S교회 J목사 - 2001년 S교회에 부임하여 10년간 목회하고 2011년에 교회를 사임하였다. 교회성장이 부진하여 목회를 계속하기 어려웠다. 여기서 교회 성장의 부진을 가져오는 원인과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따른다. S교회는 J목사가 사임하고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하여 교회가 점점 회복되고 발전하고 있다. 교회 성장이 안되는 것은 대부분 목회자의 리더십과 목회자 자신에게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
- 10) P교회 N목사 - 1975년 P교회에 부임하여 27년간 목회하고 2002년 N교회를 사임하였다. 오래 동안 목회하였으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목회자에 대한 교인들의 신뢰가 떨어져 조기 은퇴하였다. P교회 경우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지역의 쇠퇴도 그 중의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외부적인 조건에만 원인을 둘 수 없는 것은 인근 지역에 다른 교회는 같은 환경에서도 부흥하고, 목회자는 '유종의 미' 를 거두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11) K교회 M목사⁷³ - 1981년 K교회에 부임하여 20년간 목회하고 2001년 조기 은퇴하였다. 교회 성장이 부진하여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목회자가 조기 은퇴한 경우이다. 이 경우 목회자의 결단은 평가 받을 만할 것이다. 목회자가 오래 동안 자리만 보전하고 안주 할게 아니라 새로운 목회자가 올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으로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교회 발전에 유익하다.

12) M교회 K목사 - 1983년 M교회에 부임하여 19년간 사역하고 2002년 사임하였다. 사임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였다. 그 중의 하나는 당회의 갈등으로 신뢰를 상실하였다고 본다. M교회는 K목사 사임 이후,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하여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13) G교회 L목사 - 1998년 G교회를 개척하여 19년간 사역하고 2017년 교회를 폐쇄 하였다. 교회성장이 부진하여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G교회 역시 장기 목회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한 목회자의 장기 목회가 교회 발전에 장애가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회 구성원이 목회자 가족들이나 친척 또는 지나치게 친밀한 그룹으로 한정될 경우 새로운 외부인의 유입이 어렵게 되어 교회 발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한편, 정년 은퇴한 17명의 목회자의 경우, 사역하던 교회에서 정년 은퇴를 하여 외적으로는 '유종의 미' 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가 점점 쇠락해지고, 목회자는 은퇴까지 시간만 채우는 '시간 끌기' 목회를 한 경우도 발견된다. 정년 은퇴한 17명의 목회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필요하다. '목회의

⁷³ K교회 M목사의 경우도, 이미 소천하여 간접인 방식으로 자료를 얻었다.

성공'이란 세속적인 기준으로 평가 될 수는 없다.⁷⁴ 그러나 일반적인 기준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목회 성공'으로 '유종의 미'를 이룬 목회자와 '시간 끌기' 목회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그 기준은 명확할 수 없고, 경계가 불분명하다. 단지 시찰이나 노회에서 인정하는 일반적인 평가를 참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나 목회의 내적인 실상은 잘 드러나지 않아서 알기 어려운 점이 있다. 동시에 좁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사정은 대부분 드러나기 쉽다.

서울북노회 '정년 은퇴' 목회자 17명 중, 일반적인 기준이나, 대체적인 평가로 볼 때 '목회 성공'을 이루고 '유종의 미'를 거둔 목회자는 10여명으로 추산된다.⁷⁵ 나머지 5명은 정년 은퇴는 하였지만 대체적으로 무난히 목회를 마쳤다고 할 수 있으며, 2명의 목회자는 조기 은퇴하였는데 당회 갈등과 건강문제가 내재되었다.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정년 은퇴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사례분석 종합

서울북노회 목회자들의 사역 마무리를 살펴본 결과 사례들을 종합하면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다.

* 정년 은퇴	: 17명	57%
* 교회 성장의 저하	: 6명	20%
* 당회 내 갈등 문제	: 2명	6%
* 건강 문제	: 2명	6%
* 재정 문제	: 1명	3%

⁷⁴ 목회 실패는 없다.

⁷⁵ 2장에서 성경 인물중 유종의 미를 거둔 숫자와 유사하다.

* 사망	: 1명	3%
* 복합적 요인	: 1명	3%

이러한 원인 분석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정년 은퇴하지 못하고 조기 은퇴한 여러 목회자들 경우에도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종의 미' 를 거두지 못하였다. 정년 은퇴하여 '유종의 미' 를 거두었다고 평가 받을 목회자는 17명이다. 13명의 목회자는 '유종의 미' 를 거두기보다는 오히려 목회에서는 실패한, 불명예스런 마무리였다. 가장 많은 부류가 '교회성장 저하' 이다. '당회 갈등' 과 '목회자의 건강문제' 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재정문제' 와 '사망', 그리고 '복합적인 원인' 이 소수를 차지한다.

1) '교회가 성장의 저하' 는 교회가 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출석 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재정적으로 교회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경우이다. 이 경우는 목회자는 교회를 유지하지 못하여 스스로 사임하거나, 사임 압박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를 폐쇄하거나, 합병하기도 한다. 그 원인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다양한 원인이 내포될 것인데 대부분 목회자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가 단시간 내 부흥 및 성장하여 교회사의 유례가 찾을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1990년 이후 현재까지 평가는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이미 교회성장이 멈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북노회 목회자의 사역마무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일부 대형교회로 수평이동은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장이 멈추었고, 특히 소형교회는 대형교회로 수평이동으로 교회들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목회자의 사역 마무리를 분석한 결과 '교회성장의 저하' 가 그 첫 번째 원인이라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고 충격적이라고 할 것이다.

2) '당회 내 갈등문제'는 한국교회 장로교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이다. 목사와 장로 사이 서로 협력하여 목회를 해나가야 하는 장로교 본질을 망각하고, 당회원 사이에 주도권 싸움을 하거나, 목회자의 비전과 목회 철학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이다. 당회 내 갈등이 일어난 교회는 오랜 기간 갈등이 지속되고, 심지어 목회자가 바뀌어도 또 다시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경우는 목회자 문제라기 보다는 당회원 장로들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교회마다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 내 여러 문제가 발행해도 당회 안에 신뢰가 튼튼하다면 충분히 극복해갈 수 있다. 당회 내 갈등은 다른 문제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와 목회자가 '유종의 미'를 이루지 못하는 큰 문제중의 하나가 된다.

3) 목회자의 건강문제는 '유종의 미'를 방해하는 장애물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서울북교회 경우 '사망'자를 포함하여 실제적으로는 3명, 10%에 해당하는 목회자가 건강문제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였다. 현대 사회가 갈수록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가고 있다. 목회자의 건강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필수적이다. 목회자의 질병은 육체적인 원인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적인 원인도 크게 작용할 것이다. 가장 건강할 수 있는 목회자가 목회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역설적이다. 목회자가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4) 재정문제 역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실패하게 하는 장애물이다. 목회자나 그 가족이 교회 재정을 직접 다루거나, 관여하면서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할 때 성도들에게 불신을 갖게 만든다. 여기에 목회자가 지나치게 물질에 욕심을 내거나 물질 문제에 집착할 때도 성도들에게 신뢰받지 못한다.

이러한 불신은 목회자에게 치명적인 악점이 되어 목회 자체가 어려워진다. 특히 규모가 작은 교회나, 교회가 건축을 할 경우 등 목회자가 제정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분석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목회자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 서울북노회가 17년 동안 사역을 마무리한 목회 30명중 17명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10여명 만이 개관적인 평가에서 실제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 인물에서 30%에 비하면 보다 높은 수치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경 인물은 목회자의 정년이 없는 경우이고, 서울북노회는 70세까지 한정된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성경의 인물들 보다 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북노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 목회자들이 목회 성공을 이루게 된 긍정적인 요소를 무엇인가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목회를 마치는 대부분 목회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하는 일반적인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 이는 실제로 ‘하나님 은혜’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목회자의 겸손과 신앙적인 태도가 담겨있다고 하겠다. 그런 목회자의 태도가 결국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다. ‘유종의 미’를 거둔 목회자는 ‘신앙’과 ‘성품’에서 구별된다.

2) 목회자의 충성 ‘유종의 미’를 거둔 목회자들의 조사 결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대답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목회자의 열정과 신앙의 자세를 나타낸다. ‘유종의 미’를 이루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고 복합적이지만, 목회자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은 목회자의 본연의 사명이다. 결국 사명에 충실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3) 목회자의 성품 - '유종의 미' 를 이룬 목회자들이 자신의 성품을 표현하거나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측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변의 일반적인 평가에서 일치하는 것은 그들은 '성품이 좋다' 는 것이다. 원만한 성품과 훈련된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결과이다. 좋은 성품은 숨길 수 없고, 일시적으로 위장 할 수도 없다.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하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물론 지속적인 훈련으로 변화되고 향상되어 갈 수는 있을 것이다.

4) 당회원들의 협력 - '유종의 미' 를 이루지 못한 원인이 '당회 갈등' 인 것처럼, '유종의 미' 를 이룬 목회자의 이유도 '당회원들의 협력' 라는 답이 많다. 그런 교회일수록 장로들의 성품이 원만하고, 당회 분위기가 부드럽고 원만하다.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교회의 전통이기도 하고, 목회자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바르게 지도한 결과이기도 하고, 목회자가 모범을 보인 것으로부터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이다.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영향을 받고 그 결과로 좋은 열매를 맺는다. 장로 중 한 사람의 희생과 섬김도 당회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

5) 건강 유지 - '유종의 미' 를 실패한 경우 '건강문제' 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10%였다. 반면 '유종의 미' 를 이룬 목회자의 경우 대부분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있다. '유종의 미' 를 이루는 요소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건강도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현대 한국의 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자기 절제와 훈련이 내포된 결과이다. 특히 목회자의 경우는 불규칙한 식생활과 과식으로 인한 비만, 스트레스에 의한 소화불량 등 위험 요소가 많은 가운데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관리를 잘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건강 유지' 는 '내조자의 역할' 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6) 내조자의 희생 - ‘유종의 미’를 이룬 목회자들의 대답에서 대부분 포함되는 요소 중 하나가 ‘사모의 수고’이다. 전통적인 한국교회에 ‘사모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 수고와 희생이다. 한국교회 목회자의 사표가 된 옥한흠 목사의 경우도 사모의 희생이 너무나 컸다고 말한다.⁷⁶ 대부분 한국교회 목회자의 아내들은 전문적인 직업이나 직장을 가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 목회자를 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져 오곤 하였다. 그 결과, 목회자의 사모는 수치로 측정 할 수 없는 많은 희생과 수고를 감당해 왔다.⁷⁷ 특히 ‘유종의 미’를 거둔 목회자 일수록 이와 관련된 희생과 수고는 더욱 크다 하겠다.

이 외에도 ‘유종의 미’를 이루게 된 요소로 ‘성도들이 좋은 분들이었다’라는 평가가 있다. 이것 역시 목회자 자신보다는 자기 외, 밖에서 그 이유를 찾은 경우이다. ‘유종의 미’를 거둔 목회자는 대부분 자기 밖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학벌이나 실력이 결코 아니다. 어떤 목회자의 경우도 자신이 ‘유종의 미’를 이루게 된 것이 어느 학교 출신 이라거나, 학위를 가졌다고 하는 경우는 없었다. 또한 ‘설교를 잘했다’라는 대답도 전혀 없다. 목회자에게 설교는 중요한 과제이며 교회 성장의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회자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 이유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① 목회자

⁷⁶ 김명호, 옥한흠 *은혜의 발걸음*,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0, 17. ‘지금까지 사모님은 성도들에게 남편을 빼앗기고 외로운 날들을 보냈기에 중환자실에서만은 당신의 남편으로 누워 계심을 감사히 받아들이신 것이다.’

⁷⁷ 황의영, *사모학*, 서울: 성광문화사, 1979, 213.

자기 밖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고, ② 그 이유가 어느 것 하나만이 아니라, 종합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결같이 ③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

4. 성경 인물과 비교

클린턴은 성경 인물을 분석하고 종합한 결과, 유종의 미를 거둔 지도자가 30%에 이른다고 하였다.⁷⁸ 서울북노회 은퇴자들 경우는 50%로 다소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좀더 심층적인 분석을 하였을 때 실제적으로는 33% 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점은 성경은 인물은 정년제가 없었다는 점이다. 클린턴이 조사한 성경 인물들의 경우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추적한 결과인 반면에 서울북노회 목회자는 총회 헌법에 따라 70세 정년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70세 정년까지만 그 평가 기간을 적용하였다. 그렇다면 서울북노회 목회자들이 ‘유종의 미’를 거둔 비율이 다소 높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결코 높은 것이 아니라고 본다.

서울북노회 목회자들이 성경의 인물들과 비교해 볼 때 ‘유종의 미’를 실패한 경우는 무엇 때문인가? 성경의 인물들의 경우, 유종의 미를 방해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1) 하나님의 약속의 불순종
- 2) 교만한 특권층의 자녀
- 3) 살인과 간음
- 4) 고난과 위기
- 5) 사탄의 방해와 유대인, 제자들

이러한 방해 요소는 성경 시대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⁷⁸ Clinton, *유종의 미*, 33.

것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현대 교회와 직접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클린턴이 지적한 ‘유종의 미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다음과 같다.

- 1) 제정의 오용과 남용
- 2) 권력 남용
- 3) 교만 - 몰락으로 이끄는 요인
- 4) 성(Sex) - 부적절한 이성 관계
- 5) 가정 문제
- 6) 정체기 - 비전과 열정의 상실⁷⁹⁾

서울북노회 목회자의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교회 성장의 저하
- 2) 당회 내 갈등문제
- 3) 건강문제
- 4) 재정문제
- 5) 사망
- 6) 복합적 요인

이러한 요소들을 비교 해 볼 때, 공통적인 것은 ‘제정 문제’, ‘비전과 열정의 상실’, ‘가정 문제’ 등이다. 들여다보면, 성경인물들의 실패 사례와 유사점이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교회 성장의 저하’나, ‘당회 내 갈등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현대교회의 특징이며, 한국교회의 특별한 상황에 기인한다고 볼 것이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성경적인 본질에서 멀어지고 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서울북노회 목회자의 경우, ‘교만’이나, ‘권력 남용’, ‘성(Sex)’ 문제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교회 전체를 분석하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⁷⁹⁾ Ibid., 39-42.

서울북교회 목회자가운데 ‘유종의 미’를 이룬 경우와 성경 인물들을 비교하면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성경 인물의 경우는 1)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 2) 순종과 믿음 3)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4) 자기정체성가 순종 5) 성령과 교통 등 이었다.

클린턴은 ‘유종의 미를 거둔 리더들의 특징으로,

- 1) 끝까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생생한 관계를 유지한다.
- 2)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고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통해 배우며, 특히 삶의 경험을 통해 계속 배운다.
- 3) 삶에서 성령의 열매의 증거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나타낸다.
- 4) 진리를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본다.
- 5) 하나 혹은 더 많은 영적 유산을 남긴다.
- 6) 사명의식을 점차적으로 분명히 확신하고 그것의 일부나 전부가 성취되는 것을 본다.⁸⁰

반면 서울북교회 목회자는 1) 하나님의 은혜 2) 목회자의 충성 3) 목회자의 성품 4) 당회원의 협력 5) 건강 유지 6) 내조자의 희생 등이었다. 클린턴의 지적과 서로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목회자의 충성’, ‘목회자의 성품’은 동일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회원의 협력’, ‘건강 유지’, ‘내조자의 희생’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요소이다. 클린턴도 지적하지 않은 내용들이다. 이는 한국교회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유종의 미’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에서 보다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유종의 미’ 이루는 ‘창의적인 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⁸⁰ 클린턴, 유종의 미, p. 61-65.

제 4 장

‘유종의 미’를 가로막는 장애물들

1. 클린턴(J.Robert, Clinton)의 분석

클린턴(Clinton)은 유종의 미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6가지로 분석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재정의 오용과 남용

특히 권력을 지위를 가진 리더들은 재정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재정을 옳지 않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결국 잘못 사용할 수 있다. 흔히 탐욕에 눈이 멀게 되면 결국 재정적 비리와 부정을 범한다. 수많은 리더들이 돈에 연루된 이슈들 때문에 리더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실패했다.

2. 권력 남용

효과적인 리더들은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다양한 권력 기반(power bases)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만 권력을 쉽게 얻고 매일같이 사용하다 보면 그것을 남용할 수 있다. 위계적 시스템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 리더들은 지위에 따른 특권 의식을 갖는 경향이 있다. 흔히 이런 특권은 권력 남용을 포함한다. 대개 그들은 자신들을 견제하고 다른 사람들과 균형 잡힌 책무적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3. 교만-몰락으로 이끄는 요인

교만(Pride)은 리더를 몰락으로 이끌 수 있다. 리더는 역동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우리가 사역을 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4. 성(Sex) - 부적절한 이성 관계

리더들이 부적절한 이성 관계로 인해 무너지고 실패한 것을 성경과 서구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다.⁸¹ 성적인 죄와 관련하여 요셉이 보여준 진실성 검증은 모든 리더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이상적인 모델이다.

5. 가정 문제

배우자 간에 혹은 부모와 자녀들 사이, 혹은 형제 자매들 간에 생기는 문제 때문에 리더의 사역을 가로막을 수 있다.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형제 자매 관계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필요하다. 오늘날 독신자들을 위한 사역과 결혼한 부부를 위한 사회적 기반(social base)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⁸¹ 이는 서구문화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6. 정체기 - 비전과 열정의 상실

유능한 리더들도 성장을 멈출 수 있고 정체할 수 있다. 그들의 강점이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들은 현실성이 없거나 새롭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정도 계속 사역 할 수 있다.

리더들은 대개 그들의 평생 개발 단계에서 정체기(Plateauing)를 몇 번 경험한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을 위한 강화 수단인 안목, 영적 훈련, 배우는 자세, 멘토링들의 요소는 정체를하려는 경향을 예방할 수 있다.⁸² 긍정적으로는 안정감(성장이 이루어지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개발한 단계)을 가질 수 있지만, 쇠와 비전의 상실에서 비롯된 정체 상태 사이에 역동적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⁸³

이러한 클린턴의 분석은 타당성이 높고, 신뢰할 만 하다고 하겠다. 그는 풀러 선교대학원에서 ML530 리더십 평생 개발론 과목을 8년 동안 가르치면서 '유종의 미'에 대하여 처음 발견했다.⁸⁴ 더 나아가 “ 1989년 ‘ 리더들이여, 주의하라!’ 포지션 페이퍼를 쓰면서 더 깊이 연구했다”⁸⁵ 고 한다.

그러나 유종의 미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하여 한국교회의 상황과 비교하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클린턴이 첫 번째로 지목한 ‘재정의 오용과 남용’ 이 한국교회에서는 4번째 원인이 되고, 한국교회의 첫 번째로 원인인 ‘교회성장의 저하’ 에 대하여는 클린턴은 원인으로 지목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교회와 한국교회의 풍토가 다른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특히 ‘ 당회 내 갈등문제’ 가 한국교회에서는 두 번째 원인이지만 클린턴의 경우는 원인으로 지목하지 않았다. 아마 ‘권력 남용’ 이 유사한 내용으로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한국교회 상황에서 유종의 미를 방해하는 원인들은 무엇인지 보다 상세한

⁸² Clinton, 유종의 미, 42.

⁸³ Ibid., 39-42.

⁸⁴ Clinton, 영적 지도자 만들기 (The Making of a Leader), 이순정, 이영규 역, 서울: 베다니 출판사, 2014. 307.

⁸⁵ Ibid., 307.

분석이 필요하다.

2. 서울북노회의 상황

서울북노회 은퇴자 중 ‘유종의 미’를 가두지 못한 사임자들을 분석하면,

- * 교회 성장의 저하 : 6명
- * 당회 내 갈등 문제 : 2명
- * 건강문제 : 2명
- * 재정문제 : 1명
- * 사망 : 1명
- * 복합적 요인 : 1명

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사임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유종의 미’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자세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교회 성장의 부진

한국교회는 지난 30여년 동안 (1970년대- 1990년대) 교회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급속한 교회부흥을 가져왔다. 이러한 성장 중심의 한국교회에서 ‘교회 성장의 부진’으로 목회자가 목회 사역을 그만두고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지난 17년(2000년 - 2017년) 동안 임을 감안하면 이 시기는 한국교회 성장 시대를 지나서 성장 후기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 조사에 의하면 서울북노회의 경우 ‘유종의 미’를 이루지 못한 13명 중 6명이 ‘교회 성장 부진’으로 목회 사역을 중도에 마쳤다. 유종의 미를 방해하는 제일 첫 번째 원인으로 46%에 해당한다.

비록 성장 후기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교회가 새로 시작되고, 대형교회가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교회성장 부진으로 교회를 폐쇄하거나,

함병하여 목회자가 사역을 중단하는 것은 목회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내가 느낀 것은 어느 실패의 느낌과 같았다. 배신감, 상처, 좌절감, 아픔, 상실감, 낙심, 비통함, 의심, 분노, 생존 욕구, 그리고 불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서 나는 다른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는데 실패했다.”⁸⁶ 또 어떤 목사는 이 경우 “꿈의 상실, 마음속에 그리던 가족의 상실, 필라델피아로 이주를 분명히 지시하였다고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상실, 멘토의 상실, 교회 상실, 기회 상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 상실, 지역 친구들의 상실, 고향과 기댈 수 있는 봉급과 재정적 안정의 상실, 나는 슬픔과 고독, 좌절감에 심하게 몸부림쳤다”⁸⁷ 고 한다. 브리스(J.R. Briggs)는 목회 실패 이야기를 ‘죄, 결단력 부족, 분별력 결여, 도덕적 연약함’ 등 분명한 특성이 있는데, 어떤 원인은 도덕과 무관한 것으로 ‘비극적 사건’, ‘서서히 진행되는 누수’, ‘탈진’을 꼽는다.⁸⁸ 복미 지역에서 목회자의 탈진에 대한 다음 같은 자료들이 있다.

- * 매달 목회자 1,500명이 탈진이나 교회 내 언쟁 때문에 영영 목회를 떠난다.
- * 결혼한 목회자 50%가 이혼한다.
- * 목회자 80%가 목회자 역할에 실망하고 있다.
- * 지난 석달 동안 목회자의 40%가 목회 중단을 진지하게 고려했다.
- * 주당 50시간 일한 목회자의 실직 가능성이 35%더 높다
- * 목회에 들어선 목회자 20명중 목회자로 은퇴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다.
- * 목회자의 80%는 목회가 자신의 가족에게 악영향을 끼쳤다고 말한다.
- * 목회자 50%는 직업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매우 실망스러워서 되도록 목회를 떠나고 싶지만 다른 생계 방편이 없다고 말한다
- * 목회자의 25%는 한번 이상 사임을 강요당하거나 해고당한 적이 있다.
- * 목회자 90%가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 * 목회자의 45%는 우울증이나 탈진 상태가 심해서 휴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 여론조사에 응한 목회자 가운데 거의 40%가 목회를 시작한 이후 혼외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말했다.
- * 웨퍼 연구소에서 조사한 목회자 1,050명은 모두 신학교를 졸업한 가까운

⁸⁶ J.R. Briggs, *목회, 성공은 없다*, 생명의말씀사, 김태곤 역, 2015. 35.

⁸⁷ Ibid., 37.

⁸⁸ Ibid., 50.

친구나 동료 중에 탈진이나 교회 분쟁, 도덕적 실패로 목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고 대답했다.

* 목회자 37%가 현재 인터넷 포르노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

* 목회자의 70%가 가까운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한다.

* 목회자의 70%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보다 자존감이 더 낮아졌다고 말한다.

* 교단 건강보험 담당자의 보도에 따르면, 성직자의 의료비가 다른 어떤 직업군보다 높다.

* 일반연구소가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표본 집단에 포함된 목회자의 62%가 영적인 삶을 거의 추구하지 않는다.⁸⁹

이런 보고는 북미지역의 통계이지만, 한국교회의 조사 보고가 필요하다고 본다.⁹⁰ 아마 상당히 근접한 결과가 나오리라 전망된다. “실패는 우리 문화에서 용서 할 수 없는 죄라고들 말한다.”⁹¹ “실패의 고통을 겪는 목회자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서 가장 흔히 엿볼 수 있는 감정은 분노, 두려움, 혼란, 체념이다. 그런 감정은 감춰질 수도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적어도 하나는 드러나게 마련이다.”⁹² 교회성장 부진으로 목회를 중단하거나, 교회 폐쇄를 경험한 목회자들의 생계와 심리적 안정, 치료를 위한 교단 또는 노회 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2) 당회 갈등

‘유종의 미’를 방해하는 두 번째 원인은 당회원, 즉 목사와 장로 사이의 갈등이다. 이는 한국교회의 고질적 병폐인데, 목회자의 ‘유종의 미’를 방해하는 걸림돌로도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교회들 중에는 ‘교회 풍토가 나쁘다’는 부정적 평판과 100년 역사를 가졌지만 원로목사를 한 분도 배출하지 못한 교회가 있기도 하다. 교회 역사가 60년이상 되었지만 목회자 평균 사역

⁸⁹ Ibid., 53-54

⁹⁰ 이 통계를 보면서 큰 슬픔과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⁹¹ 브릭스, op.cit., 55.

⁹² Ibid., 116.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도 있다.⁹³ 지속적인 당회 내 갈등으로 인해 목회자들이 장기 목회가 아예 불가능한 것이다.

필자의 경우는 1993년, 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1999년까지 7년간 목회하였다. 처음 부임 할 때 교인 수는 장년 35명, 주일학교 학생 12명이었다. 해당 교회의 시공간적 배경은 신도시가 시작되는 1990년대, 서울 근교 제1기 신도시 지역이다. 신도시 지역은 주로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한다. 따라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교회성장과 교인 정착에 필수조건이다. 여기서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 장로들과 마찰이 예상될 수 있다. 그러나 교회의 성장과 교인들의 눈높이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신도시 교회들이 지역에 안착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회 장로들의 전통적인 사고와 교회의 전통, 관습들로 인해 목회자와 장로들 사이에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이 깊어지며 목회는 점점 어려워진다. 그 과정에서 목회자의 고민과 탈진이 일어났다.

필자의 경우는 처음 6년간 평안한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7년째 되는 해에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마침내 교회를 분립하기에 이르렀다. 장로들이 노회에 요청한 문제 제기는 ‘주일 예배시간에 찬송가 외에 복음성가를 부른다’는 이유로 ‘예배 모범’에 위배된다는 것이다.⁹⁴ 당시 필자가 속한 노회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를 받아드려 갈등 수습 차원에서 교회 분립을 권고하였던 것이다. 필자가

⁹³ 필자가 1993년-1999년까지 섬긴 교회는 65년 이상 된 전통 교회로 필자가 16대 목회자였다. 목회자 평균 재직 년 수가 5년 이하이다. 원로목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

⁹⁴ 그 당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예배모범에는 ‘주일예배는 찬송가만 부르도록 되어있었다. 그 이후, 이 조항은 개정되었고, 많은 복음성가가 찬송가 속에 삽입되었다.

목회하는 7년 동안 교회는 외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⁹⁵

그러나 갈등에 몰입하면 그런 외적 성장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장로들의 관행이고, 신세대에 유연한 새로운 물결은 오히려 노회나 총회 내 목회자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심지어 교회의 분란을 틈타 목사의 후임 자리를 탐내는 경향도 보였다. 교회는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결국 분립되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장로들이 갈등의 주체가 된 것은 아니었다. 그 중 일부가 선동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과정에서 나머지 중 일부는 분위기에 따라 서서히 동참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필자는 마치 실패한 목회자들과 같은 정서적 고통과 상실감, 분노와 신뢰 상실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⁹⁶

목회자가 ‘유종의 미’를 이루지 못하는 장애물 중에 ‘당회 내 갈등’은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친다. 당회 내 갈등은 치유가 쉽지 않고, 목회자에게는 큰 상처를 가져온다. 한번 상처받고, 실패한 목회자는 그 트라우마(trauma)가 오래 지속되며 다음 목회에 큰 지장을 준다. 그것을 치유하고, 건강한 목회를 이루는 것은 많은 시간과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고, 건강한 목회를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목회자의 소명과 영성, 훈련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브릭스는 이러한 목회자들의 회복을 위하여 멘토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한다. “슬픔의 과정에 머물러 있는 목사들은 멘토가 없었다. 반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치를 받는 목사가 수용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 요컨대,

⁹⁵ 필자가 목회한 7년 동안 장년 교인은 35명에서 1,200으로 증가했고, 교회학교 어린이는 12명에서 7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⁹⁶ 그 이후 당시 장로들 중에 대하여 자신의 판단에 후회하며 사과한 장로들이 있었고, 필자는 이웃 도시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이어가고 있다.

멘토나 코치를 찾는 일은 건강한 회복을 위해 필수적이다.”⁹⁷ 그는

‘수용’ 과 ‘리듬’ 을 제시한다.

“회복 과정에서 필수적인 네 가지 리듬이 있다고 밝혔다. 전혀 새롭지는 않으나 그들은 이 리듬이 필수적임을 확인했다.”⁹⁸ “첫째, 그들은 성경 읽기에 계속 몰두했다. 둘째, 그들은 계속 기도했다. 셋째, 그들은 침묵과 고독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넷째, 그들은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했다. ... 슬픔 가운데서라도 다른 교회에 출석하면 비통한 마음이 수그러든다.”⁹⁹

아울러 ‘안식과 기쁨의 재발견’ 하라고 조언하면서, ‘활력을 불어넣는 활동에 참여하라’ ... 사진 촬영, 바둑, 자전거 타기, 하프 마라톤, 좋은 소설 읽기 등을 추천한다.¹⁰⁰ 그리고 ‘우편번호가 같은 지역에서 벗어나라’, ‘운동하고 잘 챙겨 먹으라’ ... 열왕기상 17-19장은 엘리야의 극적인 사역 경험을 기록하고 있다. 탈진한 엘리야는 자살하고 싶었다 ... 탈진과 위기와 고독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를 회복시킨 것은 영적이지 않은 두 가지, 곧 수면과 음식이었다 ... 엘리야는 자고 먹고 또 자고 먹었다. 그것은 엘리야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우고 그 끈을 단단히 죄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였다.”¹⁰¹

목회자 성장에 있어서 이러한 경험이 반드시 불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험은 목회자에게 큰 연단이 되고, 더 큰 훈련이 되어 다음 목회지에서 성공적인 목회자로 성장하는 데에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당신이 실패로 다리를

⁹⁷ 브릭스, 160.

⁹⁸ Ibid., 162.

⁹⁹ Ibid., 162.

¹⁰⁰ Ibid., 201.

¹⁰¹ Ibid., 203.

절며 비틀거리더라도, 그 실패가 언젠가 당신으로 하여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노래하며 춤출 수 있게 하기를 기도한다.”¹⁰² ‘유종의 미’를 이루지 못한 목회자에게도 문은 열려있다고 할 것이다.

(3) 건강 문제

서울북노회 목회자 30명 중 2명의 목회자가 건강 문제로 ‘유종의 미’를 이루지 못하고 사역을 마무리하였다. 여기에 목회 사역 중에 사망한 목회자를 포함하면 3명(10%)의 목회자가 건강 문제로 ‘유종의 미’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건강문제는 ‘유종의 미’를 방해하는 장애물 중 큰 요인 중의 하나이다.

많은 목회자가 과로, 일 중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형원 목사는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경찰관과 택시운전 기사 그리고 목사가 언급된 것 기억한다”¹⁰³고 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사역 속에서 육신이 지치고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고독과 우울감, 탈진, 등을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목회사역을 떠나는 경우도 보게 된다.”¹⁰⁴

“주당 50시간 일한 목회자의 실직 가능성이 35%더 높다 ... 목회자의 45%는 우울증이나 탈진 상태가 심해서 휴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교단 건강보험 담당자의 보도에 따르면, 성직자의 의료비가 다른 어떤 직업 군보다 높다.”¹⁰⁵ 한 조사에서 “전국 목회자 370명중 37%가 육체적 피로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40.8% 응답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피로감을 느낀다고 대답했고, 인간관계

¹⁰² Ibid., 209.

¹⁰³ 이형원, ‘선지자의 고된 사역, 오늘도 계속된다’, 목회와 신학, 2004.8월호, 70.

¹⁰⁴ Ibid., 70.

¹⁰⁵ J.R. Briggs, 목회, 성공은 없다, 생명의말씀사, 김태곤 역, 2015.53.

스트레스 41.9%, 교회행정업무, 심방, 설교, 기타의 순으로 피로감을 나타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열 명중에서 네 명꼴로 목회자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⁰⁶ “일반 직장인들이나 대부분의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분명하다. 일을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자기 영역 내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그리고 주어진 일을 마무리하면 된다, 그러나 목회자들의 일과는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의 경계선이 불명확할 때가 많으며 하는 일이 표시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 특히 대인관계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목회자는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된다.”¹⁰⁷

이관직 교수는 고된 일과의 개인적 이유를 지적하기를,

첫째, 목회자 자신의 과욕이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많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것은 탐욕이다. 둘째, 일 중독증이다. 일에 대해 욕심을 낼 때 그 욕심은 목회자로 하여금 자족할 수 없게 한다 ... 일하지 않으면 불안해져 강박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 그렇게 되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뒤에서 언급할 여러 가지 일탈행위를 표출할 위험성이 높다. 셋째, 일중독자에게서 보이는 자존감의 이슈다. 자존감이 낮은 목회자는 고된 일과를 불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얼마나 목회 사역에 열심인지 인정받기 원한다. 고된 일과의 반복으로 몸에 병이 생길 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병까지 얻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관심을 표현하며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을 은근히 즐긴다.¹⁰⁸

‘목회와 신학’의 박종호 기자의 조사에 의하면, “외부적으로 유명하고 잘 알려진 목사가 담임인 교회일수록 그 목회 사역 또한 쉴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¹⁰⁹며, 목회적으로 좋은 경험이었지만 이런 상황으로 오래

¹⁰⁶ 이관직, ‘고된 업무로 인한 목회자의 심리변화 분석’, 목회와 신학, 2004년 8월 호, 82.

¹⁰⁷ Ibid., 82-83.

¹⁰⁸ Ibid., 83-84.

¹⁰⁹ 박종호, ‘목회자의 고된 일과, 이대로는 힘들다’, 목회와 신학, 2004.8월호, 96.

사역하게 되면 쉽게 심신이 지쳐 버릴 수 있음을 지적했다. “대형교회일수록 부교역자들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심을 갖게 하는데, 그러면 목회자들도 지쳐 쓰러지기 직전까지 아주 열심히 뛰게 된다.”¹¹⁰고 한다, “언제든 교회 우선으로 사역에 전념하다 보면 운동부족과 더불어 만성피로와 스트레스, 육체의 병이 찾아오고, 목회자 자신은 무기력증과 심한 좌절에 빠지게 되며, 가족들은 불화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악순환에 직면케 된다”¹¹¹

이와 같이 현대 목회자는 건강 문제가 위협에 처했음을 깨닫고 자기 관리에 신경 쓰고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한다. 박종렬 원로목사는 목회자는 “내 몸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위한 몸이요 또 하나님을 위한 몸임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자신의 건강에 유의하는 것을 도리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 둘째 이유였다”¹¹²고 말한다. “목사가 교회를 담임하여 관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교인들을 관리하는 일은 그보다 더 어렵다. 그리고 위의 두 가지 보다 훨씬 어려운 일은 목사가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일이다”¹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자기 관리에 지혜를 가져야 한다. “잠시 물러나 쉬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영원히 물러날 수도 있다”¹¹⁴ “목회자의 길은 어려운 길이다. 특별히 현대 목회자들은 지쳐있다. 어느 때보다 경쟁의식과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속에 고통을 받고 있다, 무력감 속에 시달리고 있다 … 예수님의

¹¹⁰ Ibid., 98.

¹¹¹ Ibid., 100.

¹¹² 박종렬, *나의 목회현장*, 목양사, 서울: 교문사, 1991, 429.

¹¹³ Ibid., 428.

¹¹⁴ 장준민, '목회자의 고된 일과 다스리기 전략', 목회와 신학, 2004년 8월호, 93.

사역 원리를 따라 성실하게 걸어가야 한다.”¹¹⁵

(4) 재정문제

목회자의 ‘유종의 미’를 가로막는 장애물 중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재정의 문제이다. 목회자 중 재정 관리를 잘못함으로 교인들이나 당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결국 사임하게 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난다. 이러한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당회 장로들이나 교회 재정 담당자들, 또는 교회 직원들이 은밀하게 겪는 고민이기도 하다. 사고가 일어나서 수습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결국 목회자가 책임을 지어야 한다.

재정의 문제는 목회자 자신 경우도 해당되지만, 가족이나 특히 사모의 개입으로 재정 사고나 불신은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교회의 재정 규모가 작거나, 교회에서 일군이 없다는 이유로 목사나 사모가 재정에 직접 간여하는 경우에 위험이 뒤따른다. 목사나 사모가 직접 재정을 관여하게 되면 성도들은 겉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깊은 불신과 오해를 갖게 된다.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재정문제는 처음부터 투명하고 객관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일군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어렵다. 규모가 작은 교회는 여러 면에서 어렵다. 그러나 교회의 재정 사고는 규모가 큰 교회, 돈이 많은 경우에 빈번히 일어나는 것을 보면 역설적이다. 규모를 막론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를 통해 목회자를 보호해야 한다.

교회 재정과 직접 상관 없이도 목사가 가족이 물질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거나, 어떤 경우에는 교인들과 계를 하거나, 빈번히 돈을 차용하는 경우도 문제를 야기하고,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

¹¹⁵ Ibid., 95.

황의영은 사모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심심치 않게 교회 안에서 돈 거래로 인해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종종 있다. 신자들 사이에 돈을 꾸어 쓰는 일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꾸어 쓴 사람이 쏠 돈을 못 갚는 데 있다. 만일에 사모가 남의 빚에 보증을 서 준다면, 돈을 소개해 주는 일에 관여했다가 채무자가 빚을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떤 때는 계를 들었다가 그 계가 깨어짐으로 큰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 때에 사모가 계주 노릇을 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므로 사모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회에서 교인들 사이에 돈 거래에 관해서는 일체 참견을 말아야 한다. 사모가 이자 놀이를 한다던가 계를 주선하거나 관장하는 일은 좋은 면 보다는 나쁜 면이 더 많은 것이다. 그런 일로 인하여 남편의 목회 생명을 끊는 사례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돈 거래는 대단히 위험한 불장난인 경우가 많은 것임을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¹¹⁶

목회의 아내였던 이견숙은 '사모가 피해야 할 10계명' 에서 사모는

"성도들의 돈 문제에 절대로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¹¹⁷고 강조한다.

어떤 여 집사는 사모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돈을 맡기기도 한다. 집에 두자니 자식들이 탐을 내고 남편은 도박판에 나돌고 집 안에 숨길 곳이 없다고 들고 오는 경우다. 도장까지 뭉땅 맡기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은 사모님 밖에 없다고는 토까지 달고 간다. 그런데 어찌랴 이상하게 이 돈을 사택에 보관하고 있으면 사탄이 사모를 꼬드겨서 반듯이 큰 문제를 일으킨다. "사모님! 이번 사업에는 돈이 꼭 한달 간만 왕창 필요해요. 사모님처럼 모든 교인들을 상대하고 있으면 돈 많은 사람들을 잘 아시겠지요. 그까짓 한 달 간이니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십일조를 왕창 할 수 있으니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되겠지요. 또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되게 돈을 듬뿍 낼 수도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얄전하고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까짓 한 달만 봐준다면 일어설 것이고 그러면 십일조가 많이 들어와 교회에도 이득이고 ...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모님은 드디어 보관하고 있는 통장에 손을 대게 되었다. 도장까지 맡긴 터라 덜컥 거액을 꺼내 준 것이다. 문제는 터진 것, 일 개월이 아니라 삼 년이 가도 얄전한 집사는 시치미를 떼고 돈을 내놓지 않았다. 잠을 못 이루는 사모의 얼굴은 초췌 해지고 병어리 냉가슴을 앓기 시작, 드디어 통장을 맡긴 성도까지 알게 되어 교회가 발칵 뒤집혔다. 사모가 한 일이니 물어내라고 난리. 돈은 없고 사모는 쥐구멍을 찾아다니고 남편은 고함치고 ... 궁색 해서 사모가 내뱉은 말은 이러 했다고 한다. "그럴 줄 몰랐어요, 얄전한 성도가 사기꾼 이라니! 천국에 갈 사람이 없군요, 교인들이 무서워요" ... 빚 보증이나 무슨 일이나 성도들의 돈 문제에 초연하는 것이 남편 목회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¹¹⁸

¹¹⁶ 황의영, *사모학*, 성광문화사, 1977, 260.

¹¹⁷ 이견숙, *사모가 선 자리는 아름답다*, 신망애출판사, 1994, 238.

¹¹⁸ Ibid., 239-240.

“목사의 자기 관리에는 건강관리, 감정관리, 재능관리, 시간관리, 성대관리, 은사관리, 영력관리, 금전관리, 업적관리, 품위관리, 노후관리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¹¹⁹

박종렬 목사는 목사의 품위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목사가 자기 생활비 인상 책정을 위해 예산위원회에게 중용하거나 발언권 강한 제직을 동원하거나 부흥강사를 이용하는 일, 부유한 교인들만 자주 접촉하여 저들로 하여금 목사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도록 유도하는 일, 사석에서나 강단에서 유여한 생활을 하는 친구 목사들의 이야기를 종종 입에 올려 자신의 상대적 빈곤을 은근히 탄식하는 일, 개척교회를 구실삼아 보조비 모금에만 세월을 보내는 일, 교회 헌금을 목사가 직접 출납하는 일, 재력이 있는 교회라고 해서 목사가 너무 돈 냄새를 피우는 일, 반대로 친구들을 만나면 공상을 털어 놓는 일등은 품위 관리상 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¹²⁰

“돈이 위험하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갈망하는 마음입니다.”¹²¹ “돈은 기만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돈은 탁월한 거짓말쟁이입니다. 돈을 다루는 일은 당신을 감전사 시킬 수도 있는 전선을 다루는 일과 같습니다 ... 분명히 바울은 돈을 철저히 조심하라는 의도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¹²²

목회자에게 재정 문제가 위험하고 어렵다는 지적은 매우 많다. 재정 문제는 목회자의 ‘유종의 미’를 이루는 데 반듯이 건너야 할 강이다. 잘못 건너다 익사할 수 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¹¹⁹ 박종렬, *나의 목회현장*, 목양사, 428.

¹²⁰ Ibid., 433

¹²¹ John Piper, *돈 섹스 그리고 권력 (Living in the Light : Money, Sex and Power)*, 박대영 옮김, 생명의말씀사, 2017, 75.

¹²² Ibid., 76.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과열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¹²³

(5) 윤리문제

목회자의 ‘유종의 미’를 이루는 장애물 중 피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는 ‘윤리문제’이다. 특히 ‘성적인 시험과 유혹’이다. 서울북노회 목회자 중에서도 이 문제로 중도 하차한 목회자는 나타나지 않으나 한국교회 내에는 이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며 젊은이가 많이 모이는, 유망한 서울의 S교회, J목사의 성적 일탈은 한국교회 큰 상처를 주고, 목회자가 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었다. 더욱이 J목사가 속한 교단 총회가 이 문제를 공정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해서 총회 장소에서 3년째 항의집회를 열기도 하였다.¹²⁴

최근에는 국내외 막론하고 동성애 문제까지 이슈화 되면서 교회 안 밖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다. 성의 위험성에 대하여 파이프는, “동성애관계에서 가장 생생하게 묘사된 이런 교환은, 배우자를 부정한 파트너와 바꾸는 간음과 하나님의 순결함으로의 부르심을 결혼관계 밖의 성관계와 바꾼 간통, 정결함으로 포르노 중독과 바꾼 정욕 등 우리의 모든 성적인 범죄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범하는

¹²³ 디모데전서 6:9-10

¹²⁴ 뉴스앤 조이, 2017.9.18. 기사 - 2015년 9월 총회 앞에서 J목사 재판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홍대세교회 교인들은 'J목사는 잘못이 없다'며 맞불 시위를 벌였다. 우여곡절 끝에 긴급동의안으로 J목사 재판 건이 통과됐으나, 평양노회는 이듬해 '공직 정지, 강도권(설교) 중지 2개월'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이에 S교회는 2016년 9월 총회 장소에서도 J목사 재판을 재개해 달라는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예정함동은 처벌은 커녕 앞으로 J목사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결의했다.

성적인 범죄는 모두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¹²⁵ “성적인 죄는, 맹목과 어둠의 토양 그리고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무지라는 토양에서 자랍니다.”¹²⁶ “정리하면, 우리의 마음이 본성상 수직관계에서 무질서해지고 하나님이 최고의 갈망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그 결과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의 성적 욕망이 무질서해지고 부정한 성적 쾌락을 경건한 성적 욕구보다 더 좋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의 위험성입니다.”¹²⁷

목회자의 성적인 유혹과 범치는 고된 일과 심리 작용 사이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 이관직 교수는 “고된 일과가 일 중독증과 관련되며 탈진과 연결될 때 목회자는 통제력을 잃게 되며 불안과 분노, 그리고 외로움을 경험한다. 통제력의 상실은 무감각, 절망감, 혼란, 벽에 부딪힌 느낌을 가져온다. 그럴 때 그 고통을 경감시키며 회피하기 위하여 일탈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에 취약해질 수 있다. 가족 몰래 술을 마신다든지 음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다든지 약물을 사용한다든지 컴퓨터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일탈행동이다”¹²⁸

“목회생활에서 고통스러운 일이나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일탈 행동 후에 찾아드는 후회감과 죄책감이 있음을 알면서도 또다시 일탈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 그렇게 될 때 일탈 행동은 반복되며 중독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과정은 사탄이 목회자의 삶을 파괴적으로 만들기에 매우 적합한 과정이다.”¹²⁹ 라고 한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 진단이라고 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¹²⁵ Piper, 돈, 섹스 그리고 권력, 48.

¹²⁶ Ibid., 48.

¹²⁷ Ibid., 67.

¹²⁸ 이관직, ‘고된 업무로 인한 목회자의 심리 변화분석’, 목회와 신학, 2004.8월호, 86.

¹²⁹ Ibid., 86.

“목회생활에서 과로로 인해 고통을 느낄 때 그 동안 수면 밑에 모습을 감추고 있었던 일탈행동들이 드러나 것이 아닌지 그 연관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탈 행동의 중독성과 뇌의 화학작용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개입할 수 있는 어두움의 세력들의 역동성에 대하여 바로 인식하고 중독으로부터 치유되는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할 것이다.”¹³⁰ 목회자는 사탄의 최고 공격 대상이다. 목회자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며 어두움의 세력과 마귀와의 싸움임을 인식하고, 영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르게 서있는지 확인하는 노력이 항상 필요하다.¹³¹

(6) 가족문제

목회자는 가족을 배제하고 홀로 사역하는 존재가 아니다. 대부분 한국교회 장로교회는 목회자가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함께 헌신하는 것을 기본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목회자는 부모, 형제, 아내, 자녀의 문제가 항상 뒤따른다. 이러한 가족들은 목회에 좋은 동역자가 되어 목회에 큰 힘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좋은 일군이 되기도 한다. 반면, 교회에 부담을 주거나 목회 사역의 짐이 되고,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목회자가 ‘유종의 미’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도움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북노회의 사역자중 가족의 문제로 사역을 도중하차 하거나,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장애물이 된 경우는 드러나지 않는다. 가족의 문제도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문제이다.

한편, ‘유종의 미’를 이룬 목회자들의 회고를 들으면, 가족의 도움이 매우 컸다는 평가도 많다. 특히 목회자의 아내인 ‘사모’의 도움은 매우 크고

¹³⁰ Ibid., 87.

¹³¹ 에베소서 6:12

소중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아마 사역의 절반은 사모의 내조의 덕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¹³²

황의영은 “사모가 지혜롭게 열과 성을 다하여 목사를 내조하면 목사는 목회에 큰 도움을 받게 된다. 그럴 때 사모는 남편인 목사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다. 반면, 사목 목사와 그의 목회에 유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거치장거리나 괴롭히는 존재가 되어 목회에 지장을 주게 되면 남편인 목사는 불가불 뼈가 썩는 고통을 당 할 수밖에 없다”¹³³

목회자의 아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몫의 내조는 기도이다. “아마도 사모가 직접 할 수 있는 목회의 가장 중요한 내조는 기도하는 일 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 또한 사모는 목사의 배필로서 남편이 목회 생활 중 가지게 되는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파역을 훌륭히 해내야 한다. 억눌렀던 감정이 엉뚱한데서 폭발될 때 그것을 잘 받아드릴 수 있는 유일한 상대가 되기 때문이다.”¹³⁴

목회자의 내조자로서 사모가 범하는 실책 몇 가지를 정리하면,

1. 목사를 좌우하는 자가 누구인가? 사모가 아니다.
2. 남편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목사의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
3. 비현실적인 완전론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4. 남편과 분리되어 함부로 비난하는 버릇
5. 세상을 사랑하는 허영심
6. 과거에 대한 애착심
7. 뼈를 썩게 하는 시기
8.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짓
9. 죄를 많이 짓는 주일 아침
10. 중요 사항을 잊어버리는 건망증
11. 위험한 돈 거래¹³⁵

¹³² 정량화 목사 인터뷰, 서울북노회 향동교회에서 정년 은퇴한 원로목사이다

¹³³ 황의영, *사모학*, 140.

¹³⁴ Ibid., 153.

¹³⁵ Ibid., 231-260.

“훌륭한 사모가 되려면 자기 위치를 굳게 지켜야 한다. 결코 남편의 위치를 넘보지 말아야 한다. 자기가 설 곳이 어디며 그곳에서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자기가 하지 않을 것,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의 한계 안에서 자기 일만 충실해야 한다. 그러면 남편의 일을 간섭하는 때보다 더욱 효과적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¹³⁶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는 모든 만물이 저마다 채 위치가 있어서 서로 균형, 조화, 협력하여 아름답게 한다. 사모의 위치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사모라는 위치도 하나님이 정하신 바에 따라서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목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¹³⁷

피터 스카로지 (Peter Scazzero) 목사는 IVF 간사로 있는 아내와 결혼하여 뉴욕에서 교회를 세워 8년 뒤,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고, 매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시간은 적고 할 일은 많아 부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내가 아는 모든 목사와 리더가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여겼다. 그런데 그 즈음 내 딸을 홀로 키우던 아내의 슬픔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발전하고 말았다. ...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말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여보 차라리 따로 사는게 낫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주말에는 당신이 아이들을 돌 볼 것 아니에요?’ ”¹³⁸ 스카로지 목사는 아내와 함께 기독교 상담자와 함께 5일간 집중수련회에 들어갔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바로잡을 계획이셨다. ... 우리가

¹³⁶ Ibid., 273.

¹³⁷ Ibid., 273

¹³⁸ Peter Scazzero,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Emotionally Healthy Leader)*, 정성목 옮김, 두란노, 2015, 112-113.

‘성육신적 경청’ 이라고 부르는 간단한 기술을 배웠다 … 그 순간, 아내와 내가 건강한 결혼 생활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다. 이것이 현재 EHS (Emotionally Healthy Spirituality)라고 부르는 글로벌 사역이 탄생하는 계기다.”¹³⁹ 이들 부부는 석 달 반의 안식을 가졌고, “결과적으로 이 안식 덕분에 결혼 생활을 리더십과 통합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19년의 여행이 시작되었다 고 한다. 덕분에 예수님과 관계가 변했고, 다시 그 변화는 우리의 리더십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바꿔놓았다.”¹⁴⁰고 한다. 그는 “아내와 내가 사역이 아닌 결혼 생활을 첫 번째 열정으로 삼을 수 있었던 비결은 세 가지다. 열정으로 놓고 기도하고, 열정을 유지하는 일을 하나의 영적 훈련으로 삼고, 서로를 칭찬하는 것이 그 비결이다 … 하나님은 부부가 서로를 향한 불 같은 열정 속에서 사는 것이 최선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신다.”¹⁴¹

이와 같이 목회자의 사역은 부부가 함께하는 사역이며, 사모는 목회자의 동반자이다. 가정의 문제는 ‘유종의 미’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건강한 가정은 ‘유종의 미’를 이루는 큰 힘이 된다. 사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 외에도 자녀들이 원만하게 성장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목사의 사역에 협력한다면 목회자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에 훨씬 쉽고 무난할 것이다. 자녀들이 목회자 부모를 존경하며, 교회에서 함께 사역한다면 더욱 유익하고 편안한 사역이 될 것이다.

오래 동안 해외 선교에 헌신한 한 선교사는 “목회자가 ‘유종의 미’를

¹³⁹ Ibid., 113-114.

¹⁴⁰ Ibid., 115.

¹⁴¹ Ibid., 131-132.

거두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역, 관계, 가족, 자녀들, 건강 등 모든 요소들이 다 갖추어지고, 다 원만해야만 가능합니다.”¹⁴² 라고 말한다.

3. 예수로교회 성도들의 평가

목회자의 ‘유종의 미’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하여 일반 신자들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서울북교회 예수로교회¹⁴³의 성도들에게 설문조사¹⁴⁴를 하였다. 이들은 교회의 리더 그룹에 속한 성도들이다. 이들은 담임목사와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담임 목사를 잘 아는 신자들이다. 담임목사와 교제 기간이 평균 15년 이상으로 분석된다. 담임목사와 친밀한 대화가 가능한 신자들이다. 따라서 설문에 대하여 피상적인 대답보다는 실제적인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자신의 담임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대답을 하게 되는 한계도 가진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응답자 36명 중, 목회자의 ‘유종의 미’를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부터 ④까지 복수의 응답을 정리하면,

- ① 권력남용 - 29명
- ② 비전 상실 - 23명
- ③ 재정의 오남용 - 22명
- ④ 교만 - 19명

¹⁴² 배안호선교사, 인터뷰, 2017.8.28

¹⁴³ 예수로교회는 필자가 섬기는 교회이다.

¹⁴⁴ 부록 3. 예수로교회 리더 설문지.

그 외 ‘정치적 편견’, ‘건강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¹⁴⁵

이러한 지적은 앞서 서울북노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한 목회자들의 경우와 상당히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서울북노회 목회자들의 사역 마무리에서 분석한 결과는 ‘교회 성장의 부진’이나 ‘당회 갈등’, ‘건강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한 내용과 비교할 때 예수로교회는 전혀 다른 요소들이 나타난다. 이는 예수로교회라는 하나의 교회에 해당하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일반화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유종의 미’를 방해하는 요소는 다를 수 있다고 하겠다. 평신도들이 평가할 때는 자신의 교회에 속한 목회자의 경우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설문조사에서 다양한 요소를 제시하지 않은 결과 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평신도들도 목회자의 ‘유종의 미’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유종의 미’를 방해하는 요소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목회자들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평신도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목회자가 ‘유종의 미’를 이루는 것은 목회자 자신은 물론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신자들에게도 큰 영광이며 행복이기 때문이다. 목회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평신도 리더들은 목회자가 ‘유종의 미’를 이루는데 든든한 협력자가 될 수 있다.

4. 은퇴를 앞둔 목회자들의 평가

필자가 속한 서울북노회 목회자 중 10년 이내 사역을 은퇴하게 되는 목회자 18명을 조사하였다¹⁴⁶. 그들이 현재의 교회에서 사역해온 기간은 평균

¹⁴⁵ 필자는 이러한 지적을 진지하고 소중히 받아드리고 있다.

¹⁴⁶ 설문 양식은 부록 3. 목회자의 ‘유종의 미’에 대한 설문

24년이다. 그리고 앞으로 정년은퇴까지 남은 기간은 평균 7년이다. 이들은 서울북노회에 소속한 105개 교회, 269명의 목회자중 장기 목회를 수행해온 목회자이다. 따라서 이들은 목회자의 '유종의 미'에 관심 높고, 이 문제를 매우 현실적으로 받아드리는 목회자들이다.¹⁴⁷

이러한 상황에 처한 목회자들이 평가한 목회자의 '유종의 미'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① 비전과 열정의 상실, ② 건강문제, ③ 당회 갈등, ④ 권력의 남용, ⑤ 교만, ⑥ 재정의 오남용 등의 순서이다. '비전과 열정의 상실'을 1순위, 또는 2순위에 둔 목회자들은 9명으로, 50% 이상이 가장 큰 장애물로 선택하였다. 그 다음 순위는 '건강 문제'를 6명의 목회자가 지적하였다. '당회 갈등'과 '권력의 남용'도 각각 5명의 목회자가 지적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해본 결과 현재 목회자의 당면한 상황이나 교회의 특성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조사임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평가는 '유종의 미'를 이루는 여러 방안 중 우선순위에 반영될 것이다.

이들은 목회자의 '유종의 미'를 이루기 위한 노회나 총회의 법과 제도는 비교적 적절하다고 본다. 일부는 부적절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이들은 목회자의 70세 정년 제도에 대하여 대부분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이것은 '유종의 미'를 이루는 '인적 자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물었을 때 '자기 자신'을 1순위로 지정한 것과 동일성을 이룬다. 이는 목회자가 '유종의 미'를 이루는 모든 책임은 노회나 총회 또 법과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본 것이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아야 할

¹⁴⁷ 이들은 필자와 오래 동안 교제해왔고 본 논문의 주재를 공감하며 설문조사에 적극 협력하였다.

것이다.

5. '유종의 미' 실패자

'유종의 미'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다양하다. 목회자마다 걸려 넘어지고 가로막는 장애물은 다 다르다. 목회자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자신의 약점이 숨어있고, 성품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반응도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장애물이든지 그 장애물에 부딪치는 목회자의 고통은 유사하다. "배신감, 상처, 좌절감, 슬픔, 상실감, 낙심, 비통함, 의심, 분노, 생존 욕구, 그리고 불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서 ... 다른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는데 실패"¹⁴⁸ 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교회를 사임하는 경우 "꿈의 상실, 마음속에 그리던 가족의 상실, ... 로 이주를 분명히 지시하셨다고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상실, 지역 친구들 상실, 고향과 기댈 수 있는 봉급과 재정적 안정의 상실, 나는 슬픔과 고독, 좌절감에 심하게 몸부림쳤다. 내 영혼은 뒷골목에서 몽둥이로 맞아 어두운 데 내던져진 것 같았다."¹⁴⁹ 경우에 따라 목회자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까지 나아간다. 장애물에 넘어진 목회자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것도 이러한 결과 때문이다.

다음 브릭스 목사의 경험은 '실패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전 교회를 떠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내 마음은 어느 정도 건강을 되찾았다. 그래서 그 교회 핵심 지도자들에게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누자고 제의했다. 나는 비참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사실 돌아보면, 좀더 지혜롭게 상황에 대처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서로 화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연합하려는 뜻에서, 지난 일을 놓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 물어보았다. 그들을 초청을 받아들였다. 나는 적이 놀라면서도 화해의 가능성을 기대했다. 함께 피차 느낀 바를 솔직히 털어놓고자 했다. ... 그런데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나를 더 큰 혼란과 슬픔에 빠뜨렸다. 분노는 아직

¹⁴⁸ Briggs, 목회, 성공은 없다, 37

¹⁴⁹ Ibid., 37

가라앉지 않은 채였다. 예전 교회의 한 목사는 교회를 떠나 새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나의 목회를 소규모로 제한하실 거라고 했다. 또한 나의 목회와 우리 교회가 불법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 임대 주택으로 집을 옮기는 중이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통근 길에 예전 교회 입구를 지나쳐야 했다. 교회 입구를 지날 때마다 일정한 패턴이 생겼다. 오른쪽으로 교회 건물이 가까워지면 나는 저절로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왼쪽 면에 특별히 흥미로운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교회건물을 피하고 있었다.¹⁵⁰ …다음 번에는 차를 몰고 지나가면서 일부러 교회와 넓은 주차장을 바라보았다. 감정이 심하게 요동쳤다. 분노와 고통, 상처와 오해, 깨진 꿈과 긴장된 인간관계들이 한꺼번에 나를 엄습했다. 갓길에 차를 대고 비상점멸등을 켜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서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운전대를 이마에 댄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히 그리고 덤덤하게 중얼거렸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어. 도움이 필요해,”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 깜작 놀랐다. 내 상처와 고통의 깊이를 마침내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기독교 상담가를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삶이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음을 느꼈다.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거부해선 안 될 상황이었다. 더 이상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피해를 입을 것이었다. 나는 치료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마침내 실패에 대한 비정상적인 두려움을 실토하며 인정해야 했다. 실패에 정면으로 맞서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실패가 나를 망가뜨릴 것이었다.¹⁵¹

장애물에 넘어진 목회자는 자신의 정체성까지 실패에 매여 있지 않음을 배워야 한다. 이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면 여전히 실패에 매여 있는 것이다. “내 목회 실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좁은 감망이 되어 나를 가뒤퍼렸다. 내 영혼은 영적 밀실공포증으로 고통 당하고 있었다.”¹⁵² “실패의 위기는 도로의 갈림길과 같다.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변화로 나아가거나 파괴로 나아간다. 나는 실패를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초청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 초청을 받아 드리기만 하면 그분과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 초청을 받아들일 때 나는 자유 속으로 들어섰다”¹⁵³ “우리는

¹⁵⁰ Briggs 목사의 경험은 필자의 경험과 너무나 똑같다. 18년이 지나도 생생하다.

¹⁵¹ Briggs, *목회, 성공은 없다*, 38-40.

¹⁵² Ibid., 41.

¹⁵³ Ibid., 47.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로 규정되지 않는다. 실패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실패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실패를 친히 떠맡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 들이신다. 실패할 수 있지만, 왕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초청받는다.”¹⁵⁴

실패자는 이전에 배우지 못한 사역의 가치와 자신의 존재,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신뢰 등 실패자가 아니고는 배울 수 없는 많은 것을 배운다. 그리고 목회자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한번 실패한 것이며,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음을 기대하게 된다. 더 나아가 ‘목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도 ‘인생의 유종의 미’는 항상 이룰 수 있음을 확신한다. 목회의 성패가 인생 자체의 성패가 아닌 것이다.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목회의 성공이 세속적인 기준에서 평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목회의 성공은 외적인 기준, 즉 교회의 크기나 규모, 재정의 많고 적음, 교인 숫자가 많고 적음, 목회 기간이 어느 정도 인가 등 숫자로 평가될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셔서, 단 한번,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쓰임 받은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어도, 한 사람의 신자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다.

나우웬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거나 이루어 놓은 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한 모든 인류의 삶의 진정한 근본인 그 사랑을 전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¹⁵⁵ 라고 말한다.

¹⁵⁴ Ibid., 48.

¹⁵⁵ Henri J.M. Nouwen,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두란노출판부역, 서울: 두란노, 1998. 21.

그는 이 시대를 진단하기를,

세속화의 풍토 속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계속 성직에 남아 있어야 하는가 하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 우리 시대 이룩한 위대한 성취 이면에 절망의 심연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 여기서 새로운 크리스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지도자는 이 시대에 자신이 부적절하다고 분명히 선언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서 모든 화려하게 보이는 성공 뒤에 가려진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그 속에 예수님의 빛을 비춰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¹⁵⁶

나우웬의 지적대로 목회자의 성공은 그가 행한 일, 수치나, 크기나, 위대한 성과로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외적인 크기가 성공의 기준이 된다면 예수님은 절저히 실패한 사역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실패한 사역자로 평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는가’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예수님은 ‘온전히 성공한 사역자’이자 완벽한 모델이 되신다.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 목회자로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목회자가 실패한 사역자로 평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목회자로서 한 교회에서 일정한 기간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였다 하여도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이들에게도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기회가 열려있다는 것이다.

¹⁵⁶ Nouwen, *예수님의 이름으로*, 25. 이 책은 그가 ‘21세기 크리스천 리더십’ 강의에서 전한 내용인데 그의 글을 다시 천천히 읽으면서 그 자리에 참가한 것처럼 깊이 다가왔다. 그것은 안식일을 맞아 조용한 기도원에서 다시 읽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책 읽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 새로 배우는 느낌이다.

제 5 장

‘유종의 미’ 를 위한 창의적 방안

1. 클린턴의 방안

“우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사람들로 부터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들로 부터 배울 수 있고, 그들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강화 수단에 대해 배울 수 있다.”¹⁵⁷ 클린턴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강화수단으로 5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1) 안목

우리는 사역에 대해 안목(Perspective)을 가져야 한다. 효과적인 리더들은 현재의 사역을 평생의 안목으로 바라본다. 이것은 효과적인 리더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일곱 가지 주된 리더십 교훈들 가운데 하나이다. ... 히브리서 13:7-8 말씀¹⁵⁸에 있는 리더십 강령대로 우리는 리더들의 삶을 연구함으로써 그러한 안목을 얻을 수 있다.

(2) 갱신

성장해가는 리더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특별한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도전,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비전과 확신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이러한 사명의식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인식해야 하며, 이것은 시역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때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모든 리더들은 이러한 반복적인

¹⁵⁷ Clinton, *유종의 미*, 44.

¹⁵⁸ 히 13:7-8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 하시니라”

갱신(Renewal)을 기대하고 추구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리더 자신이 주도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역사하신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계속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 서구 사회에서는 리더들의 생애에서 30대 중반과 40대 초반 그리고 50대 중반은 영적 갱신이 종종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흔히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영적 훈련이 느슨해지고, 정체되기 쉬우며, 자신의 과거 경험과 기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성취감과 새로운 방향 감각에 대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리더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갱신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고 새롭게 헌신 할 수 있다. 갱신에 대한 마음을 열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결단하며, 이것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강화 수단인 '갱신' 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3) 영적 훈련

리더들은 다양한 종류의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 요즘 개신교계와 가톨릭에서는 영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런 움직임은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에서 실패하면서 그러한 실패를 막기 위한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하나님과과의 영적 친밀함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특상은 일종의 영적 훈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유진 피터슨(Eugene Peterson),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 리처드 포스터(Richard Foster)와 같은 저자들이 개신교계에서 영성훈련을 이끌어가고 있다. ...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내적인 삶을 지켜야 한다. 이점에 있어서 영적 훈련은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이전 세대의 많은 리더들이 입증하였다.

영적 훈련은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역사하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 리더들은 때때로 자신의 영적 훈련 상태를 평가해야 한다. 경건함 삶과 관련된 정기적인

말씀 훈련과 성경공부의 훈련을 권한다.

추가적으로 고독, 침묵, 금식, 검약, 순결 그리고 비밀 엄수와 같은 훈련을 권한다. 이러한 영적 습관과 성품을 형성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훈련들은 리차드 포스터와 달라스 윌라드의 책들을 연구하며 확인했다.

(4) 배우는 자세

정체기를 대비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바로 잘 개발된 배우는 자세(Learning Posture)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중요한 방법들 중에 하나가 그러한 배우는 자세이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중요한 리더십 교훈들 중에 하나는 효과적인 지도자는 평생 배우는 자세를 견지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간단한 일 같지만, 많은 리더들이 이 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평생 배우는 자세를 확신하게 유지하고 이 원리를 모범적으로 잘 보여준 성경의 인물들은 바로 다니엘과 바울이다. ... 서구 사회에서는 배우는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대개 독서를 포함한다. 리더십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있다. 단신은 계속 출판되고 있는 책들을 광범위하게 선택적으로 읽는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 이 독서 기법은 띄엄띄엄 읽기, 훑어 읽기, 검색하며 읽기, 전 단계 읽기, 정독, 연구하며 읽기이다. ... 다양한 방법으로 배울 수 있는 워크숍, 세미나, 컨퍼런스 등 여러 비형식 훈련(non-formal training)이 유용하다. 이런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하라, 좋은 배우는 자세는 정체기를 대비하는 방비책이 되고, 리더십에서 인내하도록 돕는 자극제가 된다. 배움에 대해 완강한 자세를 갖는 것은 대개 그저 그렇게 혹은 초라하게 끝마치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을 나타낸다.¹⁵⁹

(5) 멘토링

많은 리더들의 삶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의 긴밀한 관계가 그들을 리더십으로 도전하는데 매우 중요했다는 점이다. 이런 관계를 통해 그들에게

¹⁵⁹ 실제로 본 연구의 대상자중 유종의 미를 이루는데 실패자들은 이런 배우는 자세가 나타나지 않았고 후배들에게 그런 영향을 주지도 않았다.

적시에 조언을 제공하고, 그들이 리더십을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유종의 미를 거둔 효과적인 리더들은 한 번 내지 여러 번 도와준 10-15명의 매우 중요한 사람들을 그들 곁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멘토링(Mentoring)은 이제 하나의 운동처럼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더욱 확산되고 있다.

멘토링에 대한 일반 개념은 관계적인 능력 부여의 과정으로, 어떤 것을 알고 있는 한 사람(멘토)이 어떤 지원(지혜, 조언, 정보, 감정적 후원, 자원의 연결 등)이 필요한 다른 사람(멘티)에게 적시에 나누어 주며, 그 사람의 계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멘토링의 역동성은 매력, 관계, 반응, 책무, 능력 부여를 포함한다. ...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가능케 하는 마지막 제안을 간단히 말씀 드린다면, 당신의 영적 생활과 사역에서 당신에게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멘토를 찾으라는 것이다.¹⁶⁰ 멘토는 당신이 실패의 함정을 피하도록 하고 평생에 걸쳐 삶과 사역 가운데 성장하도록 경고와 함께 조언으로 도와줄 것이다.¹⁶¹

이러한 클린턴의 제안은 매우 탁월하며, 성경과 경험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복노회 목회자 중 사역을 마무리한 목회자들의 면면을 클린턴의 제안을 근거로 평가해 볼 때 선명하게 확인된다. 유종의 미에 실패한 사역들은 대부분 이러한 강화 수단을 활용하지 않았고, 매우거나 정보를 접하지도 못했다고 본다.¹⁶² 클린턴의 연구는 여러 책으로 출판되었지만 한국교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주로 조직신학을 중요한 신학 과제로 연구해왔고, 그 이후 ‘교회성장학’ 과

¹⁶⁰ 나의 실패 경험에서 발견한 것 중 하나는 나에게 ‘멘토’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 당시 나는 내적으로 나눌 수 있는 멘토를 가지지 못한 ‘외로운 늑대’였고, ‘교만한 자수성가자’였다.

¹⁶¹ Clinton, *유종의 미*, 44- 57.

¹⁶² 이러한 클린턴의 제안을 미리 알았다면 ‘목회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성령은사론’을 중심으로 연구와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교회성장학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교회의 양극화와 목회자들은 실패와 좌절, 황폐한 교회 생태계를 만들고 말았다. 유종의 미를 실패한 목회자들은 이러한 정보와 연구에 기회를 접하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이 도움도 받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서울북노회에서는 ‘멘토링’에 대한 정보도 극히 제한적이었다.¹⁶³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턴의 연구는 한국교회 상황에서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서울북노회 목회자 중 유종의 미에 실패한 첫 번째 장애물은 ‘교회의 성장 저하’였다. 클린턴의 ‘강화 수단’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이다. 두 번째 장애물은 ‘당회 갈등’이지만 역시 클린턴은 다루지 않고 있다. 한국사회의 갈등지수가 다른 나라보다 매우 높은 것을 교회에서 ‘당회 갈등’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장애물은 ‘건강 문제’인데 역시 클린턴은 다루지 않고 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세가지 장애물을 클린턴의 대안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이것이 서구교회와 한국교회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목회자의 유종의 미를 이루기 위해서는 클린턴의 방안을 넘어서 ‘창의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서울북노회 목회자들의 방안

서울북노회¹⁶⁴ 목회자들은 목회자의 ‘유종의 미’를 위한 여러 방안들은 제시하였다. 이들은 ‘유종의 미’를 방해하는 장애물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 10년 이내 사역을 은퇴하게 되는 목회자 17명을 조사한 결과이다. 그들이 앞서 밝힌 것처럼, 현재의 교회에서 사역해온 기간은 평균 24년으로 이미 장기 목회를

¹⁶³ 필자는 당회 갈등을 경험할 때 멘토링을 알지 못했다. 그 당시 대부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였다.

¹⁶⁴ 필자가 속한 노회로 본 연구의 대상이다.

해은 목회자들이다. 그리고 앞으로 정년은퇴까지 남은 기간은 평균 7년으로 10년 이내 은퇴할 목회자이다. 이들은 서울북노회에 소속한 105개 교회, 269명의 목회자 중 장기 목회를 수행해온 목회자로서 노회 내에서 중요한 임원을 맡아서 섬겨온 목회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목회자의 ‘유종의 미’에 관심이 매우 높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야말로 사역의 마지막 과제인 것은 당연하다.

‘유종의 미’를 매우 현실적으로 받아드리는 목회자이어서 이들의 설문 결과는 매우 실제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은 ‘유종의 미’를 위한 여러 방안 중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한 결과이다. (복수의 응답을 포함한다)

- 1) 복음의 회복과 강화
- 2) 열정의 유지와 강화
- 3) 건강 관리
- 4) 원만한 ‘관계’의 유지
- 5) 성령충만과 영적 훈련

그 외 ‘단순성의 삶’, ‘화목한 가정생활’, ‘노회 역할 강조’ 등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유종의 미’를 방해하는 요소들과 연관된다.

‘유종의 미’를 방해하는 장애물에서

- 1) 비전과 열정의 상실
- 2) 건강문제
- 3) 당회 갈등
- 4) 권력의 남용 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유종의 미’를 성취하는 방안’도 ‘비전과 열정의 상실’에 대비하여 ‘복음의 회복과 강화’, ‘열정의 유지와 강화’로 나타났고,

‘건강문제’에 대비하여 ‘건강관리’로 나타났다. ‘당회 갈등’에 대하여는 ‘원만한 관계 유지’로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권력의 남용’에 대하여는 ‘성령충만과 영적 훈련’으로 대안을 제시하였다. ‘유종의 미’를 방해하는 장애물과 ‘유종의 미’를 성취하는 방안은 서로 연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유종의 미’를 이루는 인적 자원에 대한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이며 그 다음은 ‘가족’, ‘당회 장로’, ‘교인 그룹’, ‘멘토’, ‘동기 동창’, ‘노회 동역자’ 등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서울북노회 목회자들은 목회자의 ‘유종의 미’를 이루기 위한 노회나 총회의 법과 제도가 현재 적절하다고 보는 경향이 높고, 목회자의 70세 정년 제도에 대하여도 ‘현재대로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목회자가 ‘유종의 미’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책임도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본다. 물론 그 결과로 ‘유종의 미’를 이룬 이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것이다. 그것인 이미 앞서 ‘유종의 미’를 성취한 선배들의 고백에서 나타난 것이다.

3. 창의적인 방안

방대한 연구를 통한 클린턴의 방안들은 실용적이다. 모든 목회자들이 적용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다. 그러나 클린턴의 효과적인 방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구체적인 다른 방안들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은 서울북노회 목회자들의 방안에서도 드러난다. 클린턴의 방안은 목회자 개인적인 관점에서 제시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리고 미국교회의 상황을 중심으로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교회에서는 교회와 노회, 총회적인 관점에서 방안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회자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는 목회자 혼자 힘으로 만든 불가능하다. 사역 현장인 교회와 그 교회의 당회, 성도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아가 목회자가 속한 노회, 총회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다. 클린턴의 방안에는 이 부분이 없다는 사실이 아쉽다. 그리고 그가 말한 ‘배우는 자세’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한국교회의 특수한 상황과 성경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클린턴의 방안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때 ‘유종의 미를 망해하는 장애물들’에서 드러난 것들을 출발하여 이를 아우르는 창의적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하고, 서울복노회 목회자들이 실제 체험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개인적인 방안과 교회적인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1) 개인적인 방안

① 복음의 회복과 강화

목회자를 목회자로 부르고, 사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은 ‘복음’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2)라는 성경의 정의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복음’이다. 따라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6-17). 사도바울의 이러한 고백과 같이 목회자는 먼저 자신에 대한 복음에 대하여 분명하고 강력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 복음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과 체험만이 일평생 목회자의 본분과 사역을 가능하게 한다.

필자는 복음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에 바탕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면서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면서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전파하고, 가르칠 때 열정이 솟아나고 있음을 확인한다. 목회자의 사역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복음’이라고 해도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목회자는 항상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더 깊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복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 풍토와 목회자 훈련에서 복음 그 자체에 대한 선명한 정의와 이해가 부족하고, 수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확실하다고 본다. 따라서 목회자의 사역과 '유종의 미'를 위해서 복음에 대한 확신과 실제적 이해가 요구된다.

파이퍼는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복음을 접할 때 우리 자신을 중심에 두고 만다. 복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필요로 볼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갈망을 채워 주시려고 베푸신 좋은 소식이다".¹⁶⁵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 때문에 위축되지도 제한 받지도 않으셨다.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¹⁶⁶ 라고 하였다. 파이퍼의 이러한 복음 이해는 복음과 하나님 자체가 깊숙이 연관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복음'에 대한 이해와 열정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다름 아니다. 목회자가 '유종의 미'를 가능하게 하도록 복음을 붙드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 24:14). 파이퍼는 복음 전파에 대한 확신을 말한다.

복음은 하나님이 열방에서 빛의 자녀들을 모으시려고 고안하신 무기다. 온 우주를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의 전체 계획은 그분의 말씀이 전파되는 일이 성공하느냐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말씀 선포에 실패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목적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¹⁶⁵ John Piper, *하나님의 기쁨(The Pleasures of God)*, 이상준 역, 서울: 두란노, 2013, 254.

¹⁶⁶ Piper, *하나님의 기쁨*, 255.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온 우주적 명성을 위한 하나님이 모든 계획이, 말씀 전파의 성공 여부에 결정되도록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 할 수 없다. 복음은 널리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¹⁶⁷

이러한 확신에 동의하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와 선교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한 선교대회에서 최바울 선교사는 “세계는 지금 심각한 지구적 도전 (Global Challenge)에 직면해 있다”¹⁶⁸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상황을 지배하며 일어나야 한다 ... 복음만이 능력이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마 24:14).”¹⁶⁹고 확신한다.

최근 미국교회에서 복음에 대한 새로운 열정이 되살아나는 현상은 매우 고무적이다.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섬기는 존 파이퍼(John Piper)¹⁷⁰,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 신약학 연구교수인 카슨(D.A. Carson)¹⁷¹, 뉴욕 리더머 교회의 설립자 팀 켈러(Timothy Keller)¹⁷², 복음주의자 마이클 호튼(Michael Horton)¹⁷³, 브룩힐즈 교회(The Church at Brook Hills)의 데이비드 플랫(David Platt)¹⁷⁴, 텍사스

¹⁶⁷ Piper, *하나님의 기쁨*, 255.

¹⁶⁸ 최바울 선교사, *The 4th International Global Alliance Conference*, 서울:인터콥선교회, 2017. 24.

¹⁶⁹ Ibid., 25.

¹⁷⁰ John Piper, *하나님의 기쁨(The Pleasures of God)*, 이상준 역, 서울:두란노, 2013., *하나님이 복음이다(God is The Gospel)*, 전의주 역, 서울: IVP, 2005., *최고의 하나님을 맛보라(A Godward Life)*, 차성구 역, 서울:좋은씨앗, 1997.

¹⁷¹ D.A.Carson, *복음이 핵심이다(The Gospel as Center)*, 최요한 역, 서울:아가페북스, 2012.

¹⁷² Timothy Keller,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The Prodigal God)*, 전성호 역, 서울:베가북스, 2008.

¹⁷³ Michael Horton, *복음이 이끄는 기독교(The Gospel-driven life)*, 이윤중 역, 서울:부흥과개혁사, 2010.

¹⁷⁴ David Platt, *래디컬(Radical)*, 최종훈 역, 서울: 두란노, 2011., *래디컬 투 게더(Radical Together)*, 최종훈 역, 서울:두란노, 2012., *팔로우 미 (Follow Me)*, 최종훈 역, 서울:두란노, 2013.

에클레시아 교회(Ecclesia Church) 앤드류 팔리(Andrew Farley)¹⁷⁵, 미들타운 스프링스 커뮤니티 교회의 제라드 윌슨(Jared C.Wilson)¹⁷⁶, 텍사스 에클레시아 교회의 앤드류 팔리(Andrew Farley)¹⁷⁷, 캐피털 힐 침례교(Capitol Hill Baptist Church) 마크 데버(Mark Dever)¹⁷⁸, 코너스톤 교회(Cornerstone Community Church)의 프랜시스 첸(Francis Chan)¹⁷⁹, 테네시 주 내슈빌 임마누엘 교회의 레이 오틀룬드(Ray Ortlund)¹⁸⁰, 코럴릿지 장로교회의 툴리안 차비진(Tullian Tchividjian)¹⁸¹ 등은 복음에 대한 새로운 열정과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카슨(D.A.Carson)과 팀 켈러(Timothy Keller)는 “복음연합은 복음을 지켜내야 한다고 믿는다. 복음을 지켜내는 유일한 길은 세상과 교회에 복음 중심 사역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랑하고 믿고 실현하고 전하는 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복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 요컨대 복음 중심 사역은 성경의 명령이다. 다른 시대와 다른 문화에 어긋남 없이 복음 사역을 펼치고, 예수님이

¹⁷⁵ Andrew Farley, *복음에 더할 것은 없다(God Without Religion)*, 안지영 역, 서울:터치북스, 2011.

¹⁷⁶ Jared C.Wilson, *복음에 눈뜨다 (Gospel Wakefulness)*, 안정임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11. *복음에 잠기다(Gospel Deeps)*, 안정임 역, 서울:예수전도단, 2014.

¹⁷⁷ Andrew Farley, *복음에 더할 것은 없다(God Without Religion)*, 안지영 역, 서울:터치북스, 2013.

¹⁷⁸ Mark Dever, *복음과 개인 전도(The Gospel & Personal Evangelism)*, 김귀탁 역, 서울:부흥과개혁사, 2009.

¹⁷⁹ Francis Chan, *크레이지 러브(Crazy Love)*, 정성목 역, 서울:아드폰테스, 2008.

¹⁸⁰ Ray Ortlund, *복음(The Gospel: How a Church Portrays the Beauty of Christ)*, 김태곤 역, 서울:부흥과개혁사, 2014.

¹⁸¹ Tullian Tchividjian, *예수로 충분합니다(Jesus All)*, 정성목 역, 서울:두란노, 2013. *더 크리스찬(The Christian)*, 정성목 역, 서울:두란노, 2014.

집중하신 일에 집중하는 사역은 복음 중심 사역 밖에 없다”¹⁸² 라고 한다.

제라드는 ‘복음에 눈뜨다’ 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한 목사이다.¹⁸³ 그는 “실상 그 말은 조나단 에드워드와 마르틴 루터 같은 사상가들의 책을 읽고 존 파이퍼(John Piper)나 팀 켈러(Tim Keller) 같은 목사들의 설교를 듣다가 생각해 낸 것이다. 물론 이삼년 동안 내가 그 표현을 자주 사용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내 말로 만들겠다는 저의 없이 어느새 내 말이 되고 말았다.”¹⁸⁴ 라고 말한다. 이 표현은 사실 목회자들에게 복음의 회복과 강화에 대한 강력한 요청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제라드에 의하면, 목회자는 ‘복음에 눈떠야’ 한다. 그리고 ‘복음에 잠겨야’ 한다. 그는 복음에 대한 전승은 마틴 루터로부터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 존 파이퍼, 팀 켈러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려준다. “복음은 충고나 제안, 가르침이 아니라는 점이다. 모호한 영성, 도를 깨닫는 단계, 실천을 요구하는 계을 역시 해당 사항이 없다. 복음은 정보이자 광고이며 소식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소식이 아니라, 이미 일어났고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일에 대한 소식인 것이다.”¹⁸⁵

복음에 눈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끔찍하게 사랑하며 그분의 능력을 더 진하게 맛보려는 것이라고 ... 무엇보다 더 끔찍하게 사랑하고 무엇보다 더 진하게 맛보라는 것인가? 대답은 ‘사랑하지 않을 때 보다 더 사랑하고, 맛보지 않을 때보다 더 맛보라는 것’ 이다. 아울러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것과 복음에 눈뜨는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했으므로, ‘이전보다 더 깊이 사랑하고 맛보라’ 라는 뜻도 될 수 있다.

... 내가 말하는 것은 능력과 각성의 체험이다. 이는 마음과 의식 깊숙이 또렷하게 새겨져서 감정과 상관없이 늘 일정하게 지속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이 두 번째 구원의 체험인 것은 아니다 구원은 처음 한 번으로 충분하다. 다만 그 구원을 더 깊이, 더 충만하게 느끼고 인식한다는 뜻이다.¹⁸⁶

¹⁸² D.A.Carson, *복음이 핵심이다(The Gospel as Center)*, 최요한 역, 서울:아가페북스, 2012. 19-27

¹⁸³ Jared C.Wilson, *복음에 눈뜨다 (Gospel Wakefulness)*, 29.

¹⁸⁴ Ibid., 29

¹⁸⁵ Ibid., 31

¹⁸⁶ Ibid., 35.

그는 자신의 변화에 대하여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상황에 따라 웃고 우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고 평안하게 참된 예배자로 살면서, 복음에 눈뜨기 전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더욱이 그것은 지속적인 변화다. 은혜로운 예배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없을 때 유일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생긴 변화이기 때문이다.”¹⁸⁷ 라고 한다.

복음에 대한 이런 확신과 변화, 열정은 모든 목회자들에게 필요하다. 바로 여기서 ‘유종의 미’를 넉넉히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목회자의 ‘유종의 미’는 자신의 힘과 지혜, 능력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할 것이다. 비록 연약한 목회자이지만, 그를 부르셔서 복음전파의 막중한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그 배후에 능력과 권세가 온전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붙드시고 그를 통해 일해 가신다. 목회자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역을 감당하므로 ‘유종의 미’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목회자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복음의 능력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지며,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유종의 미’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모든 목회자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24)”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사명을 동일하게 감당해 가는 자이다. 따라서 오늘의 목회자도 사도바울이 이해하고, 증거하고, 전해준 ‘복음과 복음의 능력’으로 ‘유종의

¹⁸⁷ Ibid., 43.

미'를 이루게 될 것이다.

② 비전과 열정의 유지와 강화

정년은 앞둔 목회자들이 '유종의 미'를 방해하는 장애물 중 가장 실제로 인식하는 장애물은 '비전과 열정의 상실'이다. 이것은 서울북노회 목회자에 대한 설문에서 드러난 결과이다.¹⁸⁸ 특히 한 교회서 장기 목회를 해온 목회자들일수록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장애물이다.¹⁸⁹

따라서 '유종의 미'를 성취하는 인적 자원에서도 첫 번째가 '자기 자신'으로 드러났다.¹⁹⁰ 자기 스스로 목회자로서 비전과 열정을 상실하는 것이 두렵고 목회의 한계로 다가오는 것이다. 때로는 그런 비전과 열정을 상실하고도 장기 목회를 유지해가고, 정년은퇴까지 끌고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 교회는 약화되고, 성도들마저 열정이 상실되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장기 목회는 교회에 유익하기보다는 교회 발전에 장애가 되고 교인들에게도 부담을 줄 뿐이다. 교회를 위해서라도 결단하고, 리더십을 교체해야 한다. 비전과 열정을 상실한 목회자는 이미 리더가 아니다.

김상복 목사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리더십과 비전을 강조해온 목회자 중 하나이다. 그는 "지도자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큰 꿈을 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꿈이나 어떤 개념이나 비전이나 목적이 큰 사람입니다."¹⁹¹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종이에 꿈을 적고 그것을 몸에 지니고 자주 펼쳐

¹⁸⁸ 서울북노회 목회자 설문에서 우선순위 1번으로 드러났다.

¹⁸⁹ 서울북노회 목회자 설문에서 그들은 평균 24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였다.

¹⁹⁰ 서울북노회 목회자 설문조사 우선순위 1번으로 드러났다.

¹⁹¹ 김상복, *목회자의 리더십*, 서울: 엠마오, 1987, 79.

보도록 하였다. “제가 처음 목회 할 때 종이 석장 꺼내서 꿈을 펼쳐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 종이의 내용을 읽습니다. 꿈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¹⁹² 이런 방식도 비전과 열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그는 목회자의 리더십은 ‘열정의 소유자’ 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리더십에는 긍정적인 열정이 있습니다. 왜? 내가 본 그 비전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¹⁹³라고 한다. “리더는 언제나 긍정적인 면을 봅니다. 교인들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어둡게 보던 사람이 끌려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밝은 것을 좋아합니다”¹⁹⁴ 그리고 “열정은 언제나 희망적입니다. ... 낙관적이고 열정적인 것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 신앙의 리더십은 말을 안 해도 옆으로 퍼져 나갑니다. 이런 리더는 사람들이 따릅니다.”¹⁹⁵ 라고 한다, 이러한 지도자를 멘토로 삼고, 교제하며 함께 나아가면 비전과 열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오정현 목사는 한국 초대형교회 중 하나를 섬기는 목회자이다. 그는 자신의 비전과 열정을 공개하면서 목회자는 ‘열정의 비전메이커’로 부른다. 초대형교회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형교회를 이루기까지 유지해온 비전과 열정은 좋은 도전이 될 것이다. 그는 목회자의 비전과 열정에 대하여 말하기를,

만약 목회자에게 주님과 교회에 대한 믿음과 꿈이 없다면 그는 목회자로서 제일 중요한 지도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임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과 비전으로 시대에 맞는 옷을 입혀서 끊임없이 재해석시켜 주고 보다 명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 담임목사에게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독특하고도 확고한 영역이 있음을 인식 해야하는데 그것은 바로

¹⁹² Ibid., 80.

¹⁹³ Ibid., 120.

¹⁹⁴ Ibid., 121.

¹⁹⁵ Ibid., 124.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은사와 꿈, 비전입니다. 이것이 부흥하는 교회의 지도력의 요체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성장하는 교회의 목사는 선교지향적(Missionary)일뿐 아니라 비전지향적(Visionary)이라는 평을 듣습니다.¹⁹⁶

그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성장하고,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끊임없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며, 열정적인 비전메이커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가지지만, 목회자가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있어서 좋은 도전을 주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체계화하고 그것을 교회에 성공적으로 접목시킨 리더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는 옥한흠 목사라고 평가한다.¹⁹⁷ 그는 평신도를 깨워, 제자로 훈련하여, 소그룹인 ‘다락방’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세웠다. ‘사랑의 교회’는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의 상징적인 교회이며, 건강하게 성장한 모델교회로 자리 잡아 왔다. 옥한흠목사는 ‘평신도의 중요성’을 발견하고¹⁹⁸, 훈련하여 동역자로 세워가는 목회철학과 그것을 수년 동안 지속해온 탁월한 열정을 지녔다. 목회자가 지역과 사회에 영향력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고, 존경과 추앙을 받는 것은 교회의 규모나 크기만이 아니라, 목회자의 비전과 열정 때문이다. 옥한흠 목사는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에 대한 강력한 비전과 그것을 성취하는 열정이 탁월한 목회자로 추앙 받는다.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훈련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유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목회철학 때문이다.

그는,

¹⁹⁶ 오정현, *열정의 비전메이커*, 서울:규장, 1997. 231.

¹⁹⁷ 옥한흠, *은혜의 발걸음*, 서울:국제제자훈련원, 2010, 29.

¹⁹⁸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두란노, 1984. p.122.

교회를 움직이는 추진력, 이것이 목회철학이다 ... 지도자의 목회 철학은 방법론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흔히 목회 성공을 어떤 방법 탓으로 돌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철학이나 원리를 방관하여 버리기 쉽다. 건강한 교회는 방법론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급한 것은 목회 철학을 정립하는 일이다. ... 목회 철학은 목회 전략과 방법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¹⁹⁹

따라서 '제자훈련'은 목회의 전략 중 하나인 것이다. 이와 같이 목회자가 비전과 열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회 철학의 정립이 최우선이다. 사랑의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교회의 장점'을 설문조사 한 바에 따르면 '담임목사의 설교'라고 하는 비율이 '은혜스러운 다락방'보다 두 배나 높게 나왔고, '제자훈련'도 그보다 절반 수준에 미치지 않은 점²⁰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성도들에게는 목회자의 열정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할 것이다. 분명한 목회철학에서 나오는 '비전'과 그 비전을 유지하는 '열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진 피터슨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을 '한 길가는 순례자'로 정의하면서, 칼 바르트(Karl Barth)를 추억한다.

칼 바르트는 위대한 신학자이며 지성이 뛰어나고 학식도 뛰어났으며, 신학적인 업적은 깜짝 놀란 만하다. ... 바르트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가 쓴 글 가운데 가장 심각한 글 이면에도 웃음소리가 울리며, 그의 눈가에는 항상 생기가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긴 적이 없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가득했고, 송축이 넘쳐났다. 그는 신학자로서의 자기 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일할 때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신학자는 신학자가 아니다. 뚱한 얼굴, 침울한 생각, 지루한 연설은 신학에 어울리지 않는다'²⁰¹

목회자가 일평생 이러한 열정과 기쁨으로 사역한다면 '유종의 미'를

¹⁹⁹ Ibid., 66.

²⁰⁰ Ibid., 402.

²⁰¹ Eugene H. Peterson, *한 길 가는 순례자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김유리 역, 서울: IVP, 2001. 206-207.

거두기에 충분할 것이다. 목회자의 열정을 자기 자신 안에서 찾으려 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열정은 밖에서 들어와야 한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와서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열정은 존 파이퍼에게서 배울 수 있다. 존 파이퍼는 ‘기쁨의 신학자’로 이 시대 목회자들에게 열정을 불려일으키고 있다.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기쁨’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③ 성령충만과 영적훈련

목회자가 항상 성령충만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명제이다. 이것은 성경의 명령²⁰²이면서 목회 현장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필수 요소이다. 성령충만이나 성령세례,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등에 대한 신학적인 논란은 다양하다. 성령론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입장에 대하여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다만 성령론을 다루는 필자의 원칙은 철저히 성경을 중심으로 한 개혁주의 전통에 입각한 신학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다.²⁰³

여기서는 목회자가 유종의 미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성령충만을 유지하는 방안과 그와 연관된 영적 훈련을 언급하고자 한다.

잭 하일스²⁰⁴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엡 5:18). 성령 충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술 취함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우리가 성령

²⁰² 에베소서 5:18 “—오직 성령충만을 받으라”는 ‘계속 받으라’는 의미이다.

²⁰³ Sinclair B. Ferguson, *성령 (The Holy Spirit)*, 김재성 역, 서울:IVP, 1996. 15.

²⁰⁴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가 있는 인디애나주 해몬드 제일침례교회(First Baptist Church of Hammond) 담임목사.

207 권성남,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성서유니온선교회, 2005, 410-411.

206 Hyles, *성령님을 만나세요*, 67.

205 Jack Hyles, *성령님을 만나세요(Meet the Holy Spirit)*, 박희원 역, 서울:두란노, 1996, 58.

로이드 존스는 '성령의 지배'라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렘 4:30). 우리가 정복과 탐성과 악한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님은 스스로 뒤로 물러앉으신다. 성령에 의해 중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둘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광스럽고 반가운 손님'으로 늘 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 성령을 찬양하고 그와 함께 교제하며 교통하기를 찬양해야 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뿐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에 극히 유의해야 한다. 성령은 감작스레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싶은 마음이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신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성령의 요구에 따라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성령의 지시에 복종하면 합수복 성령은 더 깊은 영적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모든 강종과 소원과 요구에 세심하게 주의할 기쁨을 복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말씀, 곧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복종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정을 다해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자 자발적으로 복종할 때, 우리는 성령에 의해 지속적으로 중만하게 될 것이다.²⁰⁷

해야 하는가? 권성남은 에베소서 강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 중만하려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외에 무엇을

필요합니다.²⁰⁸
 참전합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 그 중만함이 당신에게
 지냈지만 지금 나는 내게 거들거들 재물고 신성한 기쁨 부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원리교회회가 탄생하였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한지 21년 (1982년 현재)이
 것입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가히 전설적입니다. 그날 밤 위대한 해몽도
 새롭고 신성한 성령의 중만함을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신성한 기쁨부름이 임했던
 기도와 성령과의 씨름이 있고 나서야 그 '어떤 것'이 왔습니다. 다짐은 내가
 머물려야 한다면 내가 갖추어야 할 어떤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룻밤의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였습니다. 밤새도록 간구하였습니다. 해몽도에 계속
 뚫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다음 주일에 교회를 사임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시종, 나는 빌 라이스 목장의 윗너관(Windner Inn) 11호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있다가 잠이 들어 있다가, 성령께서 광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열

잭 하일스(Jack Hyles)목사는 자신의 성령중만 경험을 이렇게 말한다.

목회자가 성령중만으로 목회의 '유종의 미'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목회의 처음과 끝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은 망망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²⁰⁹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 주고 사신 양 무리를 돌보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맡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²⁰⁸고 권고한다.

목회자의 영적훈련에 대하여 클린턴(Clinton)은 “유진 피터슨(Eugene H. Peterson)²⁰⁹, 달라스 윌라드(Dallas, W illard)²¹⁰, 리차드 포스터(Richard J. Foster)²¹¹와 같은 저자들이 개신교계에서 영성 훈련을 이끌어가고 있다”²¹²고 소개한다. 더불어 헨리 나우웬(Henri J.M. Nouwen)²¹³, 존 화이트(John, W hite)²¹⁴등 영성가들의 도움도 매우 유익할 것이다.

영성 훈련에 대하여 달라스 윌라드의 분류를 소개하면,

1. 절제훈련 (Disciplines of Abstinence): 고독, 침묵, 금식, 검약, 순결, 비밀 유지, 희생.
2. 참여 훈련(Disciplines of Engagement) : 학습, 예배, 축제, 봉사, 기도, 친교, 고백, 순복.
3. 기타 훈련 : 자발적 고립, 잠을 청하지 않고 간병하기, 안식 실천, 청빈의 삶, 영성일기 쓰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 등.²¹⁵

²⁰⁸ Ibid., 413.

²⁰⁹ Eugene H.Peterson, *한 길 가는 순례자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김유리 역, 서울 : IVP, 2001.

²¹⁰ W illard, Dallas, *영성훈련(The Spirit of the Disciplines)*, 엄성욱 역, 서울:은성 , 1988., *하나님의 모략 (The Conspiracy)* 윤종석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00.

²¹¹ Richard J, Foster, *단순성의 기독교 (Freedom of Simplicity)*, 편집부 역, 서울:보이스사, *영적성장을 위한 제자훈련 (Celebration of Discipline)*, 편집부 역, 서울: 보이스사, 1999.

²¹² Clinton, J.Robert, *유종의 미(An Exhortation to Finish Well)*, 48.

²¹³ Nouwen, Henri J.M., *모든 것을 새롭게(Making All Things New)*, 윤종석 역, 서울:두란노, 2000, *예수님의 이름으로(In The Name of Jesus)*, 두란노출판부 역, 서울: 두란노, 1998.

²¹⁴ White, John, *믿음의 싸움 (The Fight)*, 유화자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2.

²¹⁵ Clinton, J.Robert, *유종의 미(An Exhortation to Finish Well)*, 49.

나우웬은 ‘묵상기도’²¹⁶에 대하여 말한다,

미래의 성직자와 목회자들은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거나 훈련이 잘 되었다거나 동료들을 도우려고 간절한 열망과 그 시대에 불붙는 논쟁들에 대하여 창조적인 대응책을 제시할 능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주 가치 있고 귀중한 것들임에 틀림이 없지만 기독교 리더십의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된 질문은 ‘미래 지도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존전에 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고 또한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하심을 맛보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 기독교 지도자들은 지속적인 묵상기도를 통하여 사랑의 목소리를 거둬서 듣는 훈련을 해야 하며, 그들에게 어떤 이슈가 주어지든지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그 사랑 안에서 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에 뿌리 내리지 못한 채 불붙는 이슈들을 다루는 것은 본질을 조장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미처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우리 자의식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 미래에 진정으로 열매 맺는 크리스천 리더십을 위해서는 도덕으로부터 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²¹⁷

나우웬은 “영적인 삶은 선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들어올리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나라로 끌어들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서 그것이 주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²¹⁸ 라고 하면서 영적훈련을 강조한다. “훈련 없는 영적인 삶은 불가능합니다. 훈련은 제자도의 다른 측면입니다. 영적 훈련의 실천은 우리를 하나님의 세미하고 부드러운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해줍니다.”²¹⁹ 또한 나우웬은 특히 두 가지 영적 훈련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고독의 훈련이요. 또 하나는 공동체 훈련입니다.”²²⁰

²¹⁶ Henri Nouwen, *예수님의 이름으로*, 31.

²¹⁷ Ibid, 33-34.

²¹⁸ Henri Nouwen, *모든 것을 새롭게*, 두란노, 63.

²¹⁹ Ibid., 64.

²²⁰ Ibid., 66.

고독 없이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독이란 하나님 한 분 만을 위한 시간과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뿐 아니라 그분의 우리 삶 속에 활발하게 임재하고 계심을 - 치유, 가르침, 인도 등- 정녕 믿는 우리라면, 나눠지 않은 마음으로 그분께 집중할 시간과 장소를 떼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의 삶 속에 고독을 들여오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면서도 무척 어려운 훈련 중 하나입니다. ... 일단 홀로 시간을 보내는 일에 꾸준히 자신을 드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민감함이 생겨납니다 처음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은 말짱 시간 낭비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 분명한 사실은 훈련에는 성실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 고독 훈련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소망의 임재를 서서히 느낄 수 있게 해주며,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기쁨과 평안의 첫 열매를 지금부터 맛볼 수 있게 해줍니다 ... 고독의 훈련에는 따로 구별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우리 심령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고요한 골방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훈련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²²¹

공동체의 신비는 아무리 제각각 다른 사람들일지라도 모든 사람을 다 품어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하늘 아버지의 아들 딸로 함께 살게 하는데 있습니다 ... 공동체 훈련은 그런 우리에게 함께 침묵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이 훈련된 침묵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침묵이 아니라, 우리를 나란히 부르신 주님에게로 함께 시선을 모으는 침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인간이 만들어 낸 정체에 초조히 매달리는 자들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께 아주 친밀하고 독특한 사랑을 입은 자들로 알게 됩니다. ... 진정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를 서로에게 끊임없이 새롭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훈련은 진정한 기도 훈련이기도 합니다.²²²

그 동안 한국교회는 이러한 나우웬의 공동체 이해와 공동체 훈련에 대하여 익숙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교회 특히 일부 보수적 기독교단에서는 이런 영성가를 통한 영성훈련에 대하여 소홀히 해올 뿐 아니라, 무관심하며 정보도 가지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YWAM의 '목회자 제자훈련(PDTS)'은 공동체훈련에 대한 좋은 경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²²³

이런 영적훈련은 목회자로 하여금 정체성을 새롭게 하게하고, 목회 본질과

²²¹ Nouwen, 67, 70-72, 76.

²²² Ibid., 80-81, 83.

²²³ 필자는 2002년 하와이 코나 YWAM 본부에서 PDTS와 2009년 캐나다 밴쿠버의 'PDTS 한국어 과정'에서 공동체훈련을 경험한 바 있다.

사역에 대하여 신선한 도전을 가지게 한다. 목회자가 정기적으로 영성훈련을 병행하면 목회 사역에서도 지치지 않을뿐더러, 목회자로 하여금 마침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것이다.

④ 건강관리

목회자의 건강 문제는 서울북노회 목회자의 경우 ‘유종의 미를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 세 번째 요소로 분석되었다. 그만큼 중요한 요소이다. 실제로 ‘유종의 미’를 위한 다른 어떤 방안도 건강하지 못한 목회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목회자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사역 전반이 방해 받고, 균형 있는 목회가 어렵다. 건강한 목회를 위해서 목회자의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사역에 매여있는 목회자가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건강관리를 잘 해가는 것은 쉽지 않다. 은퇴를 앞둔 서울북노회 목회자 설문조사에서 은퇴 이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고 답하였다.²²⁴ 특히 한국교회 현실에서 목회자는 공사 구분이 어렵고, 출퇴근 개념이 쉽지 않다. 밤낮 구별 없이 상담이나 심방, 설교 준비, 그리고 새벽기도회 인도는 건강관리를 어렵게 한다.

목회자의 건강관리는 일반인과 다름이 없지만, 사람의 육체는 영적인 면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훈련’과 연관지어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사항들은 목회자의 건강관리에서 유의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1) 일 중독에 빠지지 말라.

목회자가 “일주일에 한 번도 쉬지 않거나 일년에 휴가 한번 가지 않는다면

²²⁴ 은퇴를 10년 앞둔 목회자 17명중 15명이 은퇴 후 건강관리에서 ‘운동’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일중독자’로 진단해도 틀리지 않을 것”²²⁵이다. 이관직 교수는 “휴식, 휴가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성경적이면서 신학적인 이해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 여전히 사치라는 인식이 보편화돼 있습니다.”²²⁶라고 지적한다. “휴가도 없이 일한다면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쉼다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쉼다는 것은 단순히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인간다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잘 누려야 목회도 창의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²²⁷

박호근 목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하프 타임에선 ‘식스 휠(six wheel)’이라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가정, 건강, 영성, 직업, 일, 여가에 대해 다룹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건강’이며 ‘가정’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추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목회자가 가져야 할 균형에 대해선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이 빨리 지치고 탈진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회에 대한 계획들이 결핍돼 있습니다.²²⁸

이관직 교수는 “중년기는 나이가 들수록 은퇴도 가까워지고 내면적으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휴가나 쉼이 없이 계속 가면 고갈된 부분이 생깁니다. 뭔가 퍼내야 하는데, 산출(out-put)은 많은데 입력(in-put)이 없으니 탈진할

²²⁵ 목회와 신학, 2007년 6월호, ‘목회에 쉼이 필요합니다’, 42.

²²⁶ Ibid., 42.

²²⁷ Ibid., 42.

²²⁸ Ibid., 43.

수밖에는요”²²⁹ “따라서 사역현장에서 모든 에너지와 자원이 소진되고 타버리는
번아웃(burn-out)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이 현재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²³⁰ 고 한다.

일중독자* 라는 용어 자체를 만들어낸 사람이 남침례신학교 목회상담학
교수였는데, 본인이 일중독자였습니다. ... 일중독자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역기능 가정 출신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자존감에 문제가 있다든지, 일을
통한 자기 성취감을 확인 받고 싶어합니다. 일은 조금 노력하면 가시적으로
보이거든요. ... 그런데 쉬면서 충전한다는 것은, 당장 표시가 나지 않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꼭 필요합니다.²³¹

이처럼 목회자들이 휴가, 휴식에 대하여 성경적이고 바른 인식을 가지고
균형 있게 일하므로 ‘일중독자’가 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므로 장기적인
목회가 가능하여, ‘유종의 미’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2) 안식일을 지키라

피터 스카지로(Peter Scazzero)는

성경의 안식일은 24시간 동안 일을 멈추고 쉬고 즐기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다.
전통적인 안식은 금요일에 해가 떨어질 때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떨어질 때 끝이
난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기독교 교단에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왔다.
사도바울은 안식을 어떤 날에 지켜도 좋다고 생각했다 (롬 14:1-7). 따라서 일주일
중 어떤 요일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날이든 24시간을 따로 떼어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²³²

“안식은 24시간 동안 일을 ‘멈추고’, ‘쉬’을 누리고, ‘즐기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다 ... 안식일을 준비할 때 생각해야 할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무엇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가?’ 이다, 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²²⁹ Ibid., 44.

²³⁰ 목회와 신학, 2004년 8월호, ‘목회자의 탈진 자가진단법’, 105. (p.106에는 자가진단표가
있다.)

²³¹ Ibid. 45.

²³² Peter Scazzero,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Emotionally Healthy Leader)*, 정성목 역, 서울: 두란
노, 2015. 199.

안식일은 피조세계와 그 안의 선물들을 즐기는 날이다 ... 바다와 호수, 해변, 산, 별이 총총한 밤하늘까지 생각만 해도 절로 웃음이 나온다 ... 음식이라는 선물을 맛보는 시간도 빼놓을 수 없는 안식일의 즐거움이다 ... 안식일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오감을 동원해서 삶이라는 만찬을 즐긴다.”²³³ “이 땅에서 우리는 안식을 통해 영원을 연습한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서 완벽히 멈추고 쉼과 즐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날을 고대한다. 안식일은 이 망가진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 만물이 본 모습을 회복할 내세를 기대하는 날이다. 매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안식일은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날이다. 안식일을 통해 우리는 일에서 쉼 뿐 아니라 쉼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²³⁴ 고 하면서 자신이 그런 생활을 향유하였다. 이와 같이 목회자는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실천으로 자신이 먼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려가는 것이 반듯이 필요하다.

(3) 정기적인 운동

목회자에게 휴가나 휴식, 그리고 안식일 같은 균형 있는 삶과 더불어 매일 매일 시간을 내어 운동하는 것은 건강에 필수적이다. 아침이나 저녁 시간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건강에 매우 유익하고 필요하다. 매일 운동에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체조, 조깅, 헬스 등 가벼운 운동부터 등산, 탁구,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족구 등 구기운동 등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혼자 하는 운동도 좋지만, 때로 부부가 함께 하거나, 동호회원, 교우들이 함께 하는 운동 방식도 유익하다. 그것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공감하며 친교와 섬김, 우정을 나누는 기회가 된다. 실제로 운동을 좋아하는 목회자들은 친구도 많고,

²³³ Ibid., 203-204.

²³⁴ Ibid., 205.

성격도 밝아지면서 목회에 큰 유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 물론 지나친 운동이나 친교활동은 오히려 목회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되는 경우도 있다. 모든 것이 적당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중독자도 문제이지만 운동중독자도 문제가 된다. 목회자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 몸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4) 균형 있고 절제된 식생활²³⁵

목회자의 건강문제는 식생활과 연관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한국교회는 아직도 목회사역 중 심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목회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 때 과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잦은 심방과 상담, 새벽기도 등은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식생활의 균형과 절제가 필요하다. 여기서 사모의 역할과 지혜가 요구된다. 사모의 내조가 여러 부분에서 필요하지만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는 더욱 지혜와 책임이 따른다고 하겠다.

목회자는 먹고 마시는 일에도 ‘욕망의 절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31)

(5) 몸 관리

목회자가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몸을 잘 돌보지 않고 살아간다. 하지만 몸을 관리하는 것도 예배나 기도 못지않게 영적인 일이다. 자신의 삶의 규칙에 어떤 운동을 포함시키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무슨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해야 할까? 일을 할 때 어떤 버릇이 있는가? 영양분을 고루 갖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는가? 내 몸에 잘 맞는 특정한 음식이 있는가? 적당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 있는가? 성경은 잠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다(시127:2). 건강 검진을 위해 마지막으로 병원을 찾았던 적은 언제인가? 삶의 규칙에 포함시킬 수

²³⁵ Briggs, 202-203.

있는 몸 관리를 위한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자신의 몸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 보라, 예를 들어 두통이나 위경련, 수면장애, 만성 피로 등의 문제가 있다면 삶의 속도를 늦추고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도 있다. 우리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 몸을 돌보는 것은 삶의 모든 측면이 기록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²³⁶

⑤ 원만한 ‘관계’ 유지

‘관계’는 목회 사역의 거의 전부라고 할 것이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이고 다음은 사람과 관계이다. 하나님과 관계는 너무 중요하므로 별도로 깊이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사람과의 관계는 먼저,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 -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핵심 그룹들 - 과 관계이다. 특히 당회원들과 관계는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 목회자들이 이 분야에서 실패한다. 그들은 신학교에서 이러한 훈련을 받지 못하고 목회 일선에 나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신학교 커리큘럼은 이런 목회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여 보다 실제적으로 재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당회원들은 목회자보다 연령대가 높으면서 교회생활이나 사회 경험에 익숙하다. 반면 목회자는 그런 경험이 부족하고, 신학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대화한다. 여기서 관점이 차이와 방법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의 발생은 중대한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로 의견 차이가 나고 갈등이 발생하고 감정이 동반하면서 관계의 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목회자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와 당회 그리고 특히 당회원들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 가족’으로 이해하고 모든 좋은 것을 나누고, 화노애락을 나누어 가야 한다. 목회자는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²³⁶ Peter Scazzero,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Emotionally Healthy Spirituality)*, 정성목 역, 서울: 두란노, 2015. 299-230.

물론 이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주님의 위한 것이며, 교회를 위한 것이며,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 해야 한다.

당회 또는 기획위원회와의 원만한 소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은 유익할 것이다.

첫 번째는 모두가 의견을 발표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반대하면 보류하고, 전원이 합의하면 통과시키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장로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장로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불장군식으로 일한다는 생각이 들어 신뢰관계가 깨져버리면 소통도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당회, 기획위원회가 특정인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분위기라면 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으며, 이 같은 관계는 담임목사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의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²³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발생하면 지혜롭게 해소해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 방법에 있어서 다음 사항도 유익하다고 본다.

첫째는 영성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담임목사가 신실한 제자임을 장로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공감을 받고 함께 신실한 제자가 되어 갈등을 해소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격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바라보고 의견의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하나님을 믿고 참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목회자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목회자의 영성 훈련은 갈등을 해소하는 초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선 용어리가 남아 소통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²³⁸

목회자가 일평생 ‘유종의 미’를 이루기까지 그 사역에서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탁월한 방법은 ‘멘토링(Mentoring)’을 이해하고 ‘훌륭한 멘토(Mentor)’를 가지는 것이다. 제프리 길(Dr. Jeffrey A. Gill)은 ‘멘토링(Mentoring)’²³⁹에서 자신의 28년간 사역과 리더훈련에서 만난 영적

²³⁷ 목회와 신학, 2010년 6월호 소통하는 목회 리더십, 51.

²³⁸ Ibid., 53.

²³⁹ Jeffrey A. Gill, *지역교회에서의 리더십 (Leadership in the Church)*, Grace Thrological Seminary, October 26-30, 2015. 강의안. 27

멘토들을 소개하며,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는 나를 위해 기도했고 기도하고 있다”²⁴⁰고 증언한다. 따라서 멘토링은 “학교 교육 이상으로 중요했다”²⁴¹고 한다. 성경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마가요한’, ‘바울과 디모데’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멘토가 그의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사 중 하나는 목회철학 혹은 목회전략이다. 이것은 목회가 왜 특정한 방식으로 행해지는지를 명확하게 해준다. 이것은 초점과 방향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전략의 값비싼 보물을 제공한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딤후 2:2)”²⁴² 한국교회에서 ‘관계 훈련’으로서 ‘멘토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시행할 필요가 여기 있다.

목회자가 사역과정에서 주변의 리더들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다른 어떤 것들이 조금 부족하고 실수한다 해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지금은 마지막 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목회자 라는 것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목회자와 장로 사이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은 교회를 무너트리는 사탄의 전략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스캇 모로우(Scott Morrow)는 ‘영적 전쟁’에서 “실제 전쟁은 초자연적이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것이다 ... 사단은 모든 전방에서 관계를 파괴한다”²⁴³고 말한다. “어떤 의미에서 악의 세력은 의도와 실천에서 가장

²⁴⁰ Ibid., 28.

²⁴¹ Ibid., 28.

²⁴² Ibid., 61.

²⁴³ Scott, Morrow, *영적 갈등(Spiritual Conflicts)*, Grace Theological Seminary, March 6-10, 2017. 강의 안, 26.

친밀한 관계와 가장 피상적이고 기능적인 관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를 이용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의롭게 통치하신다는 확신에서 멀어지게 한다.”²⁴⁴ 라고 지적한다.

⑥ 화목한 가정 생활

한국교회의 대부분 목회자는 사도 바울같이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고 아내와 함께 사역한다. 아내는 가장 가까이 있는 ‘돕는 배필’이다. 동시에 목회자의 아내는 목회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목회자가 목회에 성공하는 것은 사모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말하는 사역자들이 많다. 동시에 목회의 실패에 대한 책임도 같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²⁴⁵ 목회자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모의 역할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목회자 혼자서 목회를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목회자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도 절대적으로 사모와 연관된다. “목회자가 일단 결혼 한 이상, 목회자의 아내의 도움 없이는 결코 혼자서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목회자의 아내는 확실히 ‘에제르’의 응원군입니다.”²⁴⁶ 여기서 사모의 역할에 대하여 두 가지 면을 살펴본다.

먼저 적극적인 면에서 사모는 목사와 함께 목회철학 공유해야 한다. 그래야만 목사가 사역해갈 때 동력을 얻고, 보람과 기쁨을 나눌 수 있다. 목회자는 자신만의 분명한 목회철학을 가지고 사역해야 하며 가장 가까운 동역자인 사모가 인정하고 존중할 때 더 큰 힘을 얻고,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다. 목회의 성공과

²⁴⁴ Ibid., 26.

²⁴⁵ 이것은 필자의 경험과 판단에 근거하는 주장이다.

²⁴⁶ 김남준, *목회자의 아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서울: 두란노, 1998. 63.

실패도 외적으로 나타난 크기나 숫자에 있지 않고 자신의 목회철학에 따라 사역을 수행해 가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목회자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인 사모와 목회철학을 공유하고 함께 추구해 갈 때 목회자는 가정도 화목하고, 목회 자체도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이다.

목회자가 화목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의 친밀함’에 달려있다. 목회자는 ‘가정생활과 부부관계’에서도 모범을 보이는 리더 이어야 하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부부 사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가야 한다. 따라서 목회자가 영적인 일 못지않게 육체와 정서, 감정 등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훈련해가야 한다.

특히 성에 대한 건강한 지식과 균형 있는 사용으로 ‘친밀한 부부관계’를 유지해가야 한다. 파이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Sex)으로 즐기기’에서 “결혼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절정에 이르는 성적인 쾌락을 만끽한 후 차분하고 평안하게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나란히 누워 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멋진 분 실까 하는 생각으로 벅차게 될 것입니다”²⁴⁷라고 가르친다. 따라서 사모는 이러한 성경적인 성의 이해를 가지고 지혜로운 내조와 사랑의 역할이 요구된다. 지나치게 경건주의적인 신앙이나 금욕주의적인 사고로 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화목한 부부관계를 어렵게 할 수 있다.

화목한 가정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는 무엇보다 사모가 목회에 대하여 분명한 소명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 이럴 경우 목회자는 일평생 사역에 부담을 안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며 사역에 실패 할 수밖에 없다. 동역자이어야

²⁴⁷ John Piper, *돈, 섹스, 권력 (Living in the Light: Money, Sex and Power)*, 박대영 역, 서울:생명의말씀사, 2017, 169.

하는 사모가 목회에 대하여 지나치게 무관심하고, 평신도보다 못한 헌신을 가지고 목회에 걸림들이 될 수 있다.

반면, 사모가 목회에 지나치게 깊이 관여하여 교회 다른 리더들에게 불협화음과 불신과 견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교회 재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교회의 규모가 작은 경우, 일할 사역자가 부족하여 사모가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될 수 있다.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사모는 교회 재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회자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걸림들 중에 윤리 문제는 가장 결정적이다. 이것은 충분한 인식과 주의와 경각심,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사모의 역할은 여기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목회자 곁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속사정까지 알 수 있는 존재가 사모이다. 사모는 목회자의 육체적, 정신적 필요와 문제를 알고, 도움을 주고, 관리해야 한다. 여기서 지혜가 필요하고, 상당의 기술과 사랑의 기술이 요구된다.

목회자의 '유종의 미'는 사모에게도 동일한 영광이며 행복이다. 목회 사역을 잘 마치고 남편과 함께 노후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반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목회자의 사모 역시 상처와 슬픔이 크다.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이종 직업이 금지되어 있어 대부분 교회에서는 사모가 직업이나 직장을 가지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여기는 현실이다. 따라서 경력이 단절된 사모가 목회 현장을 떠나서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려운게 현실이다. 목회자나 사모는 목회현장에서 사역하는 때가 가장 소중하고 복된 것으로 알고,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유종의 미'를 방해하는 걸림들에 넘어질 때, 사모나 가족들이 겪게 되는 고통과 수치, 불행을

예상하면 목회자는 더더욱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다. 실제 주변에서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가야 한다.

⑦ 교회 이해와 행복목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²⁴⁸,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²⁴⁹이 충만하다. 목회자가 교회의 영광과 신비를 깊이 체험해 간다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그 영광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영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전 생애를 드릴 것이다. 그러한 목회자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교회의 사역자로서 '유종의 미'를 넉넉히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는 목회자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게으르고, 실수하고, 무책임하여 '유종의 미'를 이루기가 어려울 것이다.

목회자가 '유종의 미'를 이루지 못하는 그 근저에는 '교회를 바로 알지 못하는 데' 있다고 본다. 맥아더(John MacArthur, Jr.)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일단 그것을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신자들에 대한 의무와 관계도 이해하게 된다"²⁵⁰ 고 하였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교회의 본질과 영광, 그 신비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모순이며 비극이다. 한 순간의 감동이나 헌신으로 자신을

²⁴⁸ 에베소서 2:23

²⁴⁹ 에베소서 3:16, 21

²⁵⁰ John MacArthur, Jr.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한화룡 역, 서울:두란노, 1981. 5.

드리고, 목회자로 훈련을 받았지만 단지 관습과 전통에 따라 교회를 섬기거나 목회 사역을 유지해 가기만 한다면 교회의 본질과 영광. 그 신비를 바로 알기 어렵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는 복음과 더불어 교회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되물어야 하고, 그 본질을 찾고, 추구해 가야만 한다.

카이퍼(R.B.Kuiper)는 “교회의 기능 중에서 특수 직분을 받은 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교회 영광을 드러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목사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²⁵¹ 그리고 “목사의 주된 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목사의 이 직부는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목사가 맡은 과업이 얼마나 지대하고 훌륭한 일인가!”²⁵² “목사가 맡은 그 직분이 귀한 것이다 ...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것이 목사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다 ... 목사란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디까지나 겸손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여야 한다. ... 하나님의 교회의 충실한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사는 틀림없이 주님의 교회 위에 빛나는 영광을 더할 것이다.”²⁵³ 라고 말했다. 이러한 교회 이해와 사역 이해는 목회자로 하여금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할 것이다.

한국교회, 특히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쾰링(Küng)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부활한 주님으로서 교회에 현존한다. 교회 없이 그리스도 없고, 그리스도 없이 교회 없다. ... 교회 안에 현존하고 있다.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가 과거에 행한 업적의 결과나 미래에 완성될 그의 업적의 기대만이 아니라 현재에 활동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생한 현존에서 나온다. ...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자신이 일하고 있다. 둘이나 셋이나 그분 이름으로 모여 있는

²⁵¹ R.B.Kuiper, 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했나? (*The Glorious Body of Christ*), 서울:성광문화사, 이창우 역, 1978, 136.

²⁵² Ibid., 138.

²⁵³ Ibid., 141.

곳에는 그 가운데 그분이 있다(마태 18:20).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마태 28:20).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그분의 활동 결과나 그분의 역사상의 의의만이 아니다.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교회는 존재한다.²⁵⁴

라고 말한다. 이는 교회 이해에 대한 우리의 지평을 넓혀 준다고 하겠다. 목사는 끊임없이 교회의 본질과 현대교회의 상황을 바르게 분별하여 건강한 교회관을 유지해야만 한다. 교회 본질에 대하여 쾨은 “교회의 본질은 언제나 역사적 형태 안에서 보아야 하고, 역사적 형태는 언제나 본질을 출발점과 목표로 해서 이해해야 한다.”²⁵⁵ 고 한다.

반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이런 평가가 있다 “처음에 교회는 사람들이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단체였다. 그 후에 그리스로 옮겨 가서 하나의 철학이 되었다. 그리고 로마로 옮겨 가서 하나의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엔 유럽으로 가서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와서 하나의 기업이 되었다.”²⁵⁶ 그런데 한국에서는 ‘개인기업’이 되어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교회의 각성과 목회자의 각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스윈들(Charles R. Swindoll)은 “당신의 진실성은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왜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그리스도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과 그의 교회의 명성을 위해 산다. 당신의 진실성을 타협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한 부분이 고통을 당하며 우리 모두 고통을 당한다. ... 하지만

²⁵⁴ Hans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Was ist Kirche?)*, 이흥근 역, 왜관:분도출판사, 1978. 148.

²⁵⁵ Ibid., 24.

²⁵⁶ Charles R. Swindoll, *교회의 각성 (The Church Awakening)*, 서울:두란노, 유정희 역, 2012. 54.

리처드 할버슨(Richard C. Halverson)의 말 재인용.

당신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신의 삶에 대해 조심스러워진다”²⁵⁷ 라고 한다. 이러한 교회 이해와 목회자의 사명을 이해한다면, 그러한 목회자는 ‘유종의 미’를 이루게 될 것이다.

최근 한국교회 일부에서 새로운 도전과 영향력을 주는 ‘행복목회’는 목회자로 하여금 ‘행복한 목회자’가 되게 하는데 좋은 도전을 주고 있다.

‘행복목회’로 목회자들에게 좋은 반향을 일으키는 백동조 목사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릴 때 가장 기뻐하신다. 그리고 행복해하신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 춤추게 하실 일은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뿐이다”²⁵⁸.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 제1문을 해설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사실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행복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즐겁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으로 인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복과 신자들의 행복은 하나이다.”²⁵⁹ 라고 한다.

그는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의 목회철학이 행복이라는 사실과 존 파이퍼(John Piper)도 환희의 목회, 환희의 강해 설교를 외친 것을 기둥으로

²⁵⁷ Ibid., 71.

²⁵⁸ 백동조, *당신의 교회는 행복합니까?*, 서울:두란노, 2012. 61.

²⁵⁹ Ibid., 62.

삼아 ‘행복목회’를 주장한다고 여겨진다.²⁶⁰ 그는 예수님의 목회가 행복 목회이고 사도바울의 목회도 행복목회라고 주장한다.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을 온 인류에게 주고 싶어 몸부림치셨던 분이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데 있었다. 소외되고 그늘진 세리와 창녀들을 구원하여 기쁨을 주고, 병든 자를 구원하여 치료해 주고,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거하도록 사역하셨다. 그들을 행복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행복목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목회자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을 주기 위해 설교하며 몸부림치는 목회가 바로 행복목회다.”²⁶¹ 목회자가 이러한 ‘행복목회’를 올바르게 추구한다면 ‘유종의 미’를 넉넉히 이룰 것이라고 확신한다.

랜디 알콘(Randy Alcorn)은 ‘행복’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 그리고 성경적인 방대한 연구로 이 분야에 기념비적 업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경에 나타난 ‘행복’의 단어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본래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드러낸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행복하시기 때문이다.”²⁶²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에도 그분의 행복이 드러난다. 그분은 ... ‘궁홀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행복하나니) 그들이 궁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 5:7)’ 이 모든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중심의 행복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그분은 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요 15:11)’ 고 말씀하신다 ... 예수님

²⁶⁰ Ibid., 15. 권성수목사 글 재인용.

²⁶¹ Ibid., 70-71.

²⁶² Randy Alcorn, *행복(Happiness)*, 윤종석 역, 서울:디모데, 2017, 187.

만큼 행복해지는 것, 얼마나 위대한 인생 목표인가!”²⁶³ 라고 말한다.

그는 ‘행복’에 대한 단어연구에서 ‘아셀(asher)’은 ‘행복’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시편에서 아셀이 최초이자 가장 결정적 의미로 등장하는 곳은 시편 1편 1절이다”²⁶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마카리오스(makarios)는 신약에 50회 쓰였다. … 마카리오스는 일관되게 아셀의 역어로 쓰였기 때문에 … 그 의미인 행복과 거의 불가분의 관계다”²⁶⁵라고 한다.

‘행복’에 대한 알콘의 방대한 연구를 이해한다면 기독교 신앙과 목회에 대하여 ‘신천지’가 열릴 것이며, 아울러 ‘유종의 미’를 넉넉히 이루게 될 것이다.

⑧ 문화이해와 성육신적 상황화

목회자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문화는 한 집단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복잡한 시스템이다”²⁶⁶ 그리고 “우리는 자기 문화를 표준으로 타 문화권과 비교하는 성향이 있다”²⁶⁷ 대부분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자문화 중심에 젖어 있다고 본다. 예컨대, 해외선교지에서도 한국교회가 시행하는 새벽기도를 시행하는 것이 목회를 잘하는 기준으로 평가한다.²⁶⁸ “모든 문화에는 결점들과 부적합성이 있다”²⁶⁹는 사실과 “우리는

²⁶³ Ibid., 267.

²⁶⁴ Ibid., 323.

²⁶⁵ Ibid., 324.

²⁶⁶ Thomas M. Stallter,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TMS Mar, 2016. 강의안. 12.

²⁶⁷ Ibid.

²⁶⁸ 배안호 선교사 인터뷰

²⁶⁹ Ibid.

현지 문화에 대한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의 이해력과 판단력이 왜곡되는 것을
감안하게 될 것이다.”²⁷⁰

문화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경험과 만남, 그리고 최근의 연구 성과를
사용하는 것이 유익하다. 토마스 탐 스톨터(Thomas M. Stallter), 셔우드
링엔펠터(Sherwood G. Lingenfelter), 찰스 크레프트(Charles H. Kraft), 폴
히버트(Paul G. Hiebert), 하비 콘(Harvie Conn) 등 잘 알려진 학자들의 연구와
도서들이 유익할 것이다.

링엔펠터(Sherwood G. Lingenfelter)는 “모든 개인은 일생을 통하여
학습과정, 혹은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문화화과정(enculturation)을 겪는다. 각
개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회의 문화적 유산을 습득한다.”²⁷¹고 하면서,
‘개인문화’와 ‘공유문화’를 구분한다.

개개인으로서 우리의 개인문화는 독특한 것으로, 부모나 다른 사람의 문화와
같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다음 세 가지가 결합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1)
부모와의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습득된 개인의 문화적 유산, (2) 문화화 과정과
사회로부터 반응(feedback)에 의하여 습득된 문화적 유산, (3) 그러한 영향력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우리의 상호작용. 각 개인은 개인적인 생활방식과 기준들과
가치관을 발전시켜서 그것으로 자신의 생활을 규제하고 조직하게 된다.
공유문화는 우리 모두가 독특한 개성을 가지 사람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과 공통의 신념과 가치 및 생활방식을 공유한 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는 그러한 신념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강화시키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생활방식을 전수한다. 우리가 각각의 사회적 상황에 적용되는
공통의 가치와 우선순위 및 행동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개인문화의
공유된 측면이다. 우리는 무기력한 아기 때부터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며,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의 인격과 행동은 그것들에 의해 형성된다. 공유된 문화는
우리에게 대단히 가치가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계획을 실제로
이룰 수 있다는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장래를 계획할 수 있다. ...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가 공유하는 문화의 기준과 절차가 그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법을 제공해 준다.”²⁷²

²⁷⁰ Ibid., 13.

²⁷¹ Sherwood G. Lingenfelter, Mavin K. Mayers, *문화적 갈등과 사역(Ministering Cross - Culturally)*,
왕태종 역, 서울:조이선교회, 1989.19.

²⁷² Ibid., 20-21.

문화에 대한 이해와 변혁에서 “효과적인 초문화사역을 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는 … 성육신적 태도(incarnational attitude)를 갖는 것이다.”²⁷³ 그것은 “예수께서 죄가 없는 상태로 유대문화에 완전히 성육신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²⁷⁴ “초문화사역에서 성장과 성숙의 열쇠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성육화하는 것이다.”²⁷⁵ 문화에 대한 성육신적 접근은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친히 본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성육신한 것이다. 링엔펠터(Sherwood G.Lingenfelter)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선교와 기타 기독교 사역을 위한 모델이다.”²⁷⁶ 라고 했는데, 이는 목회에도 동일하게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찰스 크레프트(Charles Kraft)는 예수의 접근방법을 ‘수용자 중심적이며 개인적’ 이라고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 사역에서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할 의사소통 방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⁷⁷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에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은 ‘비판적 상황화’ 이다. 아직까지 한국교회에서는 ‘상황화’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상황화’ 를 진보적인 신학사상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비판적 상황화’ 는 한 지역의 전통 관습을 ‘성경적으로’ 전환하는 노력이다. 히버트(Paul G. Hiebert) 는 “목사나 선교사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적 교훈에 비추어 자신들의 옛 관습을 분석하도록 한 후에는 그들 스스로 선택한 관습을

²⁷³ Ibid., 60.

²⁷⁴ Ibid., 72.

²⁷⁵ Ibid., 145.

²⁷⁶ Ibid., 147.

²⁷⁷ 링엔펠터에서 재인용, Sherwood G.Lingenfelter, Mavin K.Mayers, *문화적 갈등과 사역 (Ministering Cross - Culturally)*, 왕태중 역, 75.

기독교적 의미를 표현하는 새로운 의식으로 바꾸어 가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의식은 분명히 성경적 교훈을 표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의식이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 속에 익숙한 형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토착적이라고 할 수 있다.”²⁷⁸

더불어 목회자는 다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사회는 급속히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문화를 알면 목회가 여유롭고 따뜻해진다. 그리고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아울러 목회에 대하여 새롭고 신선한 접근이 용이하다. 문화를 이해하는 목회자는 균형과 품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목회를 유지해 간다면 ‘유종의 미’를 이루게 될 것이다.

⑨ 역사와 종말 이해

지금은 종말의 때이다.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볼 때 목회자는 항상 긴장하고, 그런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건강한 종말의식은 목회자로 하여금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역사의 의미만큼 중요한 질문은 별로 없다. 한 세대 안에 벌어진 양차 세계대전의 정신적 충격, 히틀러 시대의 독일의 악몽, 베트남 전쟁의 허무함을 겪고 난 우리 세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애타게 찾고 있다. … 벌코프(H.Berkhof)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역사의 의미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해답을 주기

²⁷⁸ Paul G. Hiebert, *선교와 문화인류학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김동화의 역,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1996, 269.

때문이다.”²⁷⁹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의미라는 문제를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그에 비추어 살아가고 일해야 할 종말론의 한 측면이다.”²⁸⁰

“신약 종말론을 구체적으로 특징짓는 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근원적인 긴장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오스카 쿨만(Oscar Cullmann)은 이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신약의 새로운 요소는 종말론이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이미 성취된’ 것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사이의 긴장, 현재와 미래 사이의 긴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신약의 전체 신학은 … 이 긴장에 의해 좌우된다’”²⁸¹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우리의 현재 모습과 우리가 언젠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모습 사이의 긴장에 비추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전부를 살아 내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과 결정적인 승리를 감사함으로 되돌아본다. 또한 …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신한 일을 완성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며 바라본다.”²⁸²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목숨을 드려 지상명령을 완성하기를 소원하고 헌신할 신실하고 충성된 성도들과 교회들이 남은 자의 영성을 가지고 일어나야 한다. 함께 영적 동맹하며 사악한 체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²⁸³

²⁷⁹ Anthony A. Hoekema, *개혁주의 종말론 (The Bible and the Future)*, 이용중 역, 서울:부흥과 개혁신사, 2012, 39.

²⁸⁰ Ibid., 40.

²⁸¹ Ibid., 27.

²⁸² Ibid., 113.

²⁸³ 최바울, *The 4th International Global Alliance Conference*, 서울: 인터콥선교회, 2017, 55.

오스카 쿨만은 “구속사에 뿌리를 박고 있는 윤리는 정적이거나
 율법주의적일 수도 없거니와 ‘상황윤리’ 처럼 반 법률적인 것도 될 수 없다 ...
 신약에서 발견되고 있는 구속사의 모든 특징은 신약의 윤리에서 재발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구속사에 있어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을, 즉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적 발전의 우연성과의 상호 결속 및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의 상호 결속을 찾고 있는 것이다.”²⁸⁴ 따라서 “윤리가 구속사 속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시간이 그 길에 상관없이 마지막 때이다 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²⁸⁵ 하였다.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이 바로 문 앞에 다가오는데 목회자가 게으르고
 안일하게 살 수 있겠는가? 하물며 자기중심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고 심지어 범죄에
 빠질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사이에 종말론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해야
 하며 매일 새롭게 그런 긴장감에 비추어 살아가야 한다”²⁸⁶

종말론의 최근 경향을 연구한 후크마(Anthony A. Hoekema)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언급한다. “(1) 성경의 종말론적 가르침은 성경 메시지의 핵심이며
 무시될 수 없다. (2) 어떤 의미에서 현재 우리는 말세에 속해 있다. (3) 또 어떤
 의미에서의 역사의 최종적인 종말론적 완성은 여전히 미래에 속해 있다. (4)
 하나님 나라는 현재인 동시에 미래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성경적 종말론은 반드시

²⁸⁴ Oscar Cullmann, *구원의 역사(Salvation in History)* 김광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363.

²⁸⁵ Ibid., 367.

²⁸⁶ Hoekema, *개역주의 종말론(The Bible and the Future)*, 이용중 역, 161.

현재의 현실과 미래의 소망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 ²⁸⁷

유진 피터슨은 "목회자들이 그와 같은 올바른 목회적 종말론을 가지고 신앙공동체 안에서 제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일은 그 무엇보다 더 긴박하며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삶은 그 자체가 내외적으로 종말론적이기 때문이다 ... 목회자들은 반드시 종말론적인 태도를 지닌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²⁸⁸

피터슨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방식으로 매일 사소한 삶을 일기로 쓰면서 '나의 종말론적인 세탁물 목록' ²⁸⁹이라고 명명한다.

목회자는 이러한 건강한 종말론과 역사의식을 가져야만 하며, 그러한 자세로 목회를 감당해간다면 '유종의 미'를 넉넉히 이루어 갈 것이다.

⑩ 단순성의 삶

"현대문화는 소유욕의 열병에 앓고 있다" ²⁹⁰는 포스터(Richard J. Foster)의 지적에 동의한다. 그 결과로 이 사회는 풍요해지려는 욕망이 이미 정신병으로 까지 번지게 되었다. 목회자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교회 특히 신도시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성장' 과 '비교' 라는 질병으로 신음하며 목회 사역을 감당하다가, 마침내 그 과도한 욕망은 크고 작은 사고를 야기하게 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실패하게 된다. 필자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오늘의 모습이다. 따라서 "기독교의 단순성이 이러한 현대의 병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²⁸⁷ Ibid., 445.

²⁸⁸ Eugene H. Peterson, *성공주의 목회자 (Under the Unpredictable Plant)*, 차성구 역, 서울:좋은씨앗, 2002. 242.

²⁸⁹ Ibid., 250.

²⁹⁰ Richard J. Foster, *단순성의 기독교 (Freedom of Simplicity)*, 편집부 역, 서울:보이스사, 1985. 19.

있을 것”²⁹¹ 이다.

교황 요한 23세는 “내가 나이가 들수록 사고와 행동과 말에 있어서의 단순성이 얼마나 귀중하고 훌륭한 것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단순성은 다시 말해서 복잡한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고 모든 일에 최대한으로 정성적으로 취급하고 명쾌하게 대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²⁹²

포스터의 지적처럼, 단순성에 대한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에 역설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도 종종 역설적으로 표현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성을 잘 터득했기에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었다.²⁹³ 포스터가 제시하는 ‘단순성을 기르는 방법들’은 오늘날의 현대 목회자에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매우 유익한 요소가 될 것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제시한다.

단순성을 기르는 한 방법은 침묵 훈련을 통한 방법입니다. 내적 단순성을 배우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주기에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단순성을 기르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기 형편에 걸맞지 않은 감정적인 사치를 거부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적 단순성을 배양하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맹세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계율 중에서 단순성은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단순성은 내적 하나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²⁹⁴

단순성을 주제로 다룬 저서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포스터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클레멘트(Clement)의 <부자들의 구원> (The Rich Man's Salvation)과 사이프런(Cyprian)의 <훌륭한 일과 자선> (On Good Works and Alms), 성 제롬(St. Jerome)의 서신과 에크하르트(Eckhard)와 타울러(Tauler)와 수소(Suso)의 작품들이다. 또한 급진적 종교개혁자들의 저서와 죠오지 폭스(George Fox)의 서간과 윌리엄 펜(William Penn)의 <십자가의 영광> (NO Cross, No Crown)등도

²⁹¹ Foster, *단순성의 기독교 (Freedom of Simplicity)*, 20.

²⁹² Ibid., 23. 재인용.

²⁹³ Ibid., 25.

²⁹⁴ Ibid., 192-199.

마찬가지입니다. ... 프란시스 플로렌드(Francis Florand)는 <단순성의 단계>(Stages of Simplicity)란 책을 썼고 아더 기쉬(Arthur Gish)는 <헛된 욕망을 넘어서>(Beyond the Rat Race)란 책을 썼으며, 로날드 사이더(Ronald Sider)는 <기아와 빈곤에서의 해방>(Rich Christians An Age of Hunger) (한국판:보이스사 발행)이란 책을 썼습니다. 이들 모두가 단순성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²⁹⁵

이어서 교회사에서 기독교적 단순성을 다루는 대표적인 책 세 권을 추천한다. 기로라모 사보나롤라(Girolamo Savonarola)의 <기독교적 삶의 단순성>(The Simplicity of the Christian Life), 쾨펜 키에르케고르(Soren Kierkegaard)의 <마음의 순결함은 하나만을 바라는 것>(Purity of Heart Is to Will One Thing)과 존 울만(John Woolman)의 <일기>(The Journal) 또는 <가난한 자를 위한 기원>(A Plea for the Poor)이다.²⁹⁶

“단순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는 우리의 말은바 소명과 똑같은 것이며 단순성은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본질인 것”²⁹⁷이라는 포스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목회자에게는 이러한 속성이 더욱 필요하고, ‘유종의 미’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미덕 중의 하나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경이로울 정도로 단순성의 삶을 사셨음을 기억할 때 오늘날 그 중요성이 더욱 선명해진다.

“단순성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요체, 그 자체인 것”²⁹⁸이다. 예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멍에를 메라 하시며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다. 우리의 할 바는 그리스도와 함께 발맞추어 가는 것 그것뿐이다.

²⁹⁵ Ibid., 153.

²⁹⁶ Ibid., 153-154.

²⁹⁷ Ibid., 389.

²⁹⁸ Ibid., 390.

(2) 교회적인 방안

① 노회 역할 강화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목사는 그 소속이 노회이다.²⁹⁹ 노회의 기능 중 하나는 목사를 인수하고, 관리하고 감독한다. 최근 노회들이 행정 위주 및 제도화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목사가 노회에 속하여, 노회 감독을 받고, 노회원들과 교제하면서 지역 교회를 섬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노회의 역할이 실제적으로 발휘되고 그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교회의 명예를 수치스럽게 하는 목회자들이 주로 대형교회 목회자이면서 이들은 대부분 지역 노회의 지도를 받지 않는 것은 우연히 일치가 아니다. 노회에 속하여 노회 지도를 받으면 이런 사고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노회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나누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니 (행 6:1-6, 9:31, 21:20) 서로 협의하여 도와 교회 도리의 순전을 보전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함심하여 발휘하며, 배도함과 부도덕을 금지할 것이요, 이를 성취하려면 노회와 같은 상회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³⁰⁰

나우웬은 우리 시대가 경쟁 사회이며 스타 의식과 개인주의적 영웅주의가 교회에서도 낳은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³⁰¹ 공동체의 가치를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십니다(막6:7). 우리는 우리가 둘씩

²⁹⁹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3, 154.

³⁰⁰ 헌법, 166.

³⁰¹ Henri J. M. Nouwen,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두란노출판부역, 서울: 두란노, 1998, 40.

꼭지어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계속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혼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단위로 함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 18:19-20) ... 나는 혼자 있을 때 예수님께 진심으로 신실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거듭거듭 체험했습니다. 나는 함께 기도하고, 당면한 영적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며,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늘 순수하도록 나를 도전할 형제와 자매들이 필요합니다. ... 참으로 우리가 함께 사역 할 때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들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더욱 쉽게 안식시킬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목회란 공동체적 경험일 뿐만 아니라 상호 관계의 경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양사역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 10:14-15). 예수님께서 목자이듯이 그분은 우리도 목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양을 치고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환자의 문제를 알고 그것을 다루는 ‘전문가’ 로서가 아니라 남의 문제를 알지만 또 자신의 문제도 알릴 필요가 있고, 남을 돌볼 뿐 아니라 자신도 돌봄을 받아야 하며,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그런 연약한 한 인간으로 목회하기를 원하십니다. ... 우리는 치료하는 자도 아니요, 화해자도 아니요, 생명을 주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돌보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요, 깨어지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제한적이고 매우 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는 한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데 바로 목회의 신비가 있습니다.”³⁰²

“그러므로 진정한 목회는 반드시 상호 보완적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목자를 알지 못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목양 자체가 재빠르게 다른 사람들을 교묘히 힘을 행사하는 한 방법이 되어 버리거나 아니면 권위주의와 독재적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³⁰³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리더십은 이 세계가 제공하는 리더십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리더십은 로버트 그린리프의 용어를 빌리면 ‘섬기는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는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만큼 자신에게도 사람들이

³⁰² Ibid., 41-45.

³⁰³ Ibid., 45.

필요한 그런 연약한 종입니다.”³⁰⁴ 이는 리더십을 연구하고 입으로 리더십을 강조하면서도 오히려 섬김으로 그 대상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자신도 섬김을 받는 연약한 종이라는 사실에 기초한 진정한 리더십을 말한다. 지역교회 목회자는 지역노회에 속하여 노회원들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소속감과 연대감을 가질 수 있다. 같은 지역 안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노출 될 수밖에 없는데, 목회자가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잊은 행동과 삶을 살기는 어렵다. 언제나 형제와 같은 노회원들과 교제하며 자신을 노출하고, 문제를 공유하며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노회의 존재와 노회원들과 관계가 목회자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노회의 하위단위인 시찰회 역시 더 가까운 이웃이며, 서로의 사정을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회는 교회를 감독하는 처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소속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시찰 위원을 선택하여 지교회 및 미조직 교회를 순찰하고 모든 일을 협의하여 노회의 처리하는 것을 보조할 것이니 위원의 정원과 시찰할 구역은 노회에서 작정한다.”³⁰⁵ 진정 목회자의 이웃인 시찰회 역시 목회자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실제적인 고리가 될 수 있다. 목회자들은 시찰회나 노회를 자신의 사역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불편하고 부정적인 기관으로 매도하지 말고, 자신을 돕고 유익하게 하는 ‘더 큰 교회’로 받아드리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교회에서 노회나 총회 등 전통적인 제도권 교단을 벗어나

³⁰⁴ Ibid., 45.

³⁰⁵ 헌법, 169.

‘독립교회’를 선언하고 ‘독립교회 연합회’에 가입하는 교회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독립교단은 목회자의 정년을 제도화하지 않고 개교회나 목회자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목회자 개인에게 모든 책임과 결정을 맡기는 것으로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제도권 교단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회나 총회의 지도를 벗어나는 지나친 개교회주의는 매우 위험하다. 특히 목회자가 관리나 감독을 받지 않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위험하다. 그것은 목회자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방종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2:13,16).

② 총회의 역할

대한예수교장로회는 각 지역마다 노회를 조직하고, 노회들을 총괄하는 총회가 있다.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하되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송달하고 차점 순으로 부총대 몇 사람을 정해 둔다.”³⁰⁶ 총회의 직무는 “총회는 소속 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 관계를 총괄하며,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각 하회록을 검열하여 찬부를 표하고 산하 각 교회 간에 서로 연락하며 교통하며 신뢰하게 한다”³⁰⁷ 따라서 총회는 노회의 지도를 강화하고,

³⁰⁶ 헌법, 173.

³⁰⁷ 헌법, 173.

목회자의 본문과 윤리를 강화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 특히 소속 목회자로 하여금 ‘유종의 미’를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에서는 사역자의 정년이 규정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유종의 미’를 평가할 때 임종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목회자의 정년을 70세로 규정³⁰⁸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유종의 미’는 70세까지 제한을 둘 수 밖에 없다. 여기서 그 범위를 더 축소하여 목회자의 정년을 65세로 축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사회에서 공무원 정년 은퇴가 60세이다. 목회자는 그 사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60세 이상도 사역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자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감안하면 70세는 매우 길게 여겨진다. 60세 이상 70세 이하인 중간 지점으로 65세 정도가 적당하다고 여겨진다.

(2) 은퇴 목회자들의 견해를 조사해보면 일반적으로 70세는 많고, 60세는 너무 이르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 중간쯤 65세 정도가 적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한다.³⁰⁹ 70세가 가까워지면 목회자의 열정이 식고, 장기 목회에 대한 피로감과 새로운 변화가 쉽지 않다. 특히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70세는 적응력과 순발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신자들은 대체로 젊은 목회자를 선호한다.

(3) 최근 한국교회 추세로 볼 때, 목회자가 70세 정년 이전에 조기 은퇴하므로 후배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름답게 여겨진다. 조기 은퇴함으로써

³⁰⁸ 헌법 정치 제4조, 156.

³⁰⁹ 조귀현목사 인터뷰.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목회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기은퇴한 허영 목사(64세, 우이동교회)는 평생 성경공부와 설교 준비를 우선시했고 성도들의 아픔을 해결해주고자 기도하고 행동했던 좋은 목회자였다. 허목사는 정년을 7년이나 앞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후임이 있다면 속히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교회를 위하여 유익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자신은 후배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컨설팅을 돕는 일로 제2의 목회를 시작했다."³¹⁰

한편으로는 한국교회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그 지위를 자녀에게 세습하게 하여 비난을 받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최근 서울의 초대형교회 중 일부가 자녀를 후임목회자로 세워 ‘목회 세습’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³¹¹

반면, 일부 목회자들은 정년보다 일찍 조기 은퇴함으로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들도 많다.³¹² 그들은 많은 신자로부터 존경을 받고 큰 책임과 영향력을 끼치는 대형교회 목회자로서, 조기은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조기 은퇴함으로 ‘유종의 미’를 거둔 목회자는 더욱 귀하고 ‘배나 존경할 자’이다.

이러한 사례를 비추어, 총회가 목회자의 은퇴연령을 65세로 앞당기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 목회자들의 사역이 결코 쉽지 않는 ‘고난의 길’이라면 그 정년을 조금 더 앞당겨 ‘유종의 미’를 무난히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혜로운 방안일 것이다.

³¹⁰ 기독교신문, 제2107호, 2017년 6월 6일.

³¹¹ 뉴스앤조이, 2018.02.27, 예장통합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청빙 무효 소송 심리

³¹² 사랑의교회 옥한흠목사와 지구촌교회 이동원목사, 높은뜻송의교회 김동호목사, 안산동산교회 김인중목사 등이 그러하다.

③ 지교회의 이해와 협력

목회자가 '유종의 미'를 이루는 일을 목회자 개인의 노력과 역량으로만 맡길 수 없다. 개인의 힘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소속한 지교회가 적극 도와주고, 여건을 만들어 주고,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 그것은 목회자 개인 뿐 아니라 지교회의 유익이며 영예이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단기간에 자주 교체되는 것은 교회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 목회자가 장기 목회를 수행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며,³¹³ 그 목회자가 '유종의 미'를 이루는 것은 더욱 아름답다.

목회자의 '유종의 미'를 위해서 지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 중 하나는 안식년 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것이다. 안식년은 성경에서 제시되었고³¹⁴ 대학이나 선교 기관, 서구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국교회는 일부 교회에서만 시행되고, 교회 규모가 작거나 재정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교회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안식년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목회자가 자신의 부재를 두려워하고 교회가 위축될 것을 염려하여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은 목회자가 안식년을 통해 목회자 자신과 교회의 유익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안식년을 가지게 될 때 큰 유익을 얻는다. 일에 지치고 심지어 '일중독증'에 걸린 목회자가 쉼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무엇보다 영적 재충전과 열정의 회복이 가능하게 된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른 교회를 방문하거나, 밀린 독서를 하게 되고, 다양한

³¹³ 백운형, *개척에서 성장까지-장기목회와 관련하여*, 서울:지평서원, 1996, 64.

³¹⁴ 레위기 25:8

체험들을 하면서 재충전하게 된다.³¹⁵

안식년을 1년 동안 가지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안식년을 시행하되 융통성있게 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예컨대 약 6개월 정도 안식년 휴가를 가지거나, 매년 1달씩 안식월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본래 의도한 안식년의 효과는 미치지 못하지만 교회가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안식년 제도를 구약의 율법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교회의 형편에 따라 일정을 조정 할 수 있다. 안식년 제도를 시행한다면 목회자로 하여금 건강하고 행복한 목회가 가능하여 '유종의 미'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피터 스카지로는 “안식년도 삶의 눈보라 속에서 우리를 안전한 집까지 인도하는 로프와 같다. 안식년의 원리를 오늘의 삶에 접목시킬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마지막으로 당신이 목회자나 기독교 지도자라면 7년이나 8년에 한번씩 안식년을 가질 것을 추천한다. ... 땅도 경작을 쉬고 묵혀 두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다.”³¹⁶ 라고 하였다.

안식년을 시행하는 것 못지않게 시급한 것은 목회자 안식일을 누리는 것이다. 물론 이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적인 안식일이 아니다. 안식일의 본래 개념을 살려 한 주일에 하루를 완전히 쉬면서 'shalom(shalom)'을 누리는 것이다.

“성경의 안식일은 24시간 동안 일을 멈추고 쉬고 즐기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다. 전통적인 안식일은 금요일에 해가 떨어질 때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떨어질

³¹⁵ 필자는 두 번의 안식년을 가진 경향이 있다.

³¹⁶ Peter Scazzero,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Emotionally Healthy Spirituality)*, 강소희 역, 서울: 두란노, 2015, 251-252.

때 끝이 난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기독교 교단에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왔다. 사도 바울은 안식을 어떤 날에 지켜도 좋다고 생각했다(롬14:1-17). 따라서 일주일 중 어떤 요일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날이든 24시간을 따로 떼어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³¹⁷ 매주 자신만을 위하여 안식일을 가진다면 목회자가 지치지 않고 늘 신선한 몸과 마음으로 목회를 감당할 수 있으며, 마침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것이다. 지교회는 목회자로 하여금 이러한 목회가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협력해야 한다. 목회자가 ‘유종의 미’를 이루는 것은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하는 데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4. 목회자의 ‘유종의 미’

목회는 시련과 시험의 연속이다. 그 가운데 일평생 바른 목회를 감당하고 그 사역에 대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매우 귀하고 존경받아 마땅하다. 이는 70세 정년은 물론 명예로운 조기 은퇴를 포함해야 한다.

옥한흠 목사는 35년간 사역하고 난 뒤 후배들에게 "사실 목회자만큼 위선자가 될 확률이 높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선이 악습으로 몸에 배면 양심도 없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벼랑 끝에 서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³¹⁸ 라고 말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그 역시 목회자의 외로움을 직면하고

우리 역시 사역을 하다보면 ‘외로움’과 직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극단적인 외로움은 아니더라도 실존적인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 주어진 사역을 성실히 감당해도 열매가 없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때 지도자에게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 따라서 영적인 사역을 하는 지도자는

³¹⁷ Peter Scazzero,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Emotionally Healthy Leader)*, 정성목 역, 서울: 두란노, 2015, 199.

³¹⁸ 옥한흠, *옥한흠 목사가 목사에게*, 수원: 도서출판 은보, 2013, 400.

사역자로서 겪는 내면의 고독을 극복해 낼 만한 자생력이 있어야만 합니다."³¹⁹

그는 이런 여러 난제들을 극복하고 목회자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그리고 72세 나이로 소천하였다.

한경직 목사는 한국교회 상징적인 목회자이다. 그는 1992년 4월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종교 분야의 노벨상으로 알려진 템플턴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상금 전부를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본부'에 현금했다. 그 자리에서 말하기를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이 상을 주셨습니다"³²⁰. "한국교회 거목으로 칭송 받는 구십의 노 목사는 스스로

'죄인'임을 자처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해방과 전쟁과 근대화 과정에서 옹하고 설킨 한국 근대사 1세기 동안 그를 통해 교회를 생존케하고 보호하고 키우셨으며, 교회의 힘과 사랑을 이 민족의 약한 자들에게 흘려 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삼으셨다".³²¹ "한경직 목사는 은퇴 후 한사코 좋은 집을 마다하고 남한산성 영락여자신학원으로 거처를 삼았다. 무릇 목회자는 돈과 여자와 검약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그의 신념에 따른 선택이었다. 그는 예수의 삶을 따라 사는 목사라면 가난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평생 그렇게 살았다."³²² 여기서 목회자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비결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김수환 추기경은 한국 천주교의 상징적인 존재이다. 그 역시 목회자라고 할

³¹⁹ Ibid., 140.

³²⁰ 김수진, *아름다운 빈손 한경직* 서울: 홍성사, 2000. 139.

³²¹ Ibid., 139.

³²² Ibid., 139.

수 있으며 ‘유종의 미’를 거둔 아름다운 모델 중의 한 분이다. 그가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 비결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으나, ‘죽음 준비’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죽음을 생각할 때 어쩔 수 없이 느끼는 것은 두려움이다. ... 그들이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게 호소할 때면 나는 그것이 미구에 나의 것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당황하게 된다. ...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죽음의 준비이다.”³²³

그는 목회자로 신앙의 본질과 삶에 충실한 것이다.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죽음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용조 목사는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한국교회에서 거시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수많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면서 2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얻고 최고의 열매를 거두었다.”³²⁴ “하용조 목사는 사도행전이 보여 준 원형 그대로의 교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는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살고 싶었다. 그는 사도행전의 원형대로 설교하고 복회하고 선교하고자 애쓰면서 한평생을 살았다”³²⁵

“한국교회는 하용조 목사의 비전과 사역을 인정하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한 그의 순수한 열정과 헌신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온누리교회를 통한 그의 설교와 목회와 선교의 노하우를 공감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³²⁶ “그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쇠약한 육신을 가졌지만, 모든 사역에서 강인함이 넘쳐났고 피곤을 모르는 열정으로 선교의 마라톤을 완주한 보기 드문

³²³ 김수환, *김수환 추기경의 신앙과 삶*, 서울: 천주교 서울대교구, 1997.96.

³²⁴ 문성모, *하용조 목사 이야기*, 서울:두란노저원, 2010, 296.

³²⁵ Ibid., 296.

³²⁶ Ibid., 301.

전사다”³²⁷ ‘비전과 열정’, ‘복음과 성경’은 한 목회자를 ‘유종의 미’로 이끈다.

오스 기니스(Os Guinness)는 “소명은 인생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특전과 그 도전에 중심적인 것이다”³²⁸ 라고 말하면서 “소명의 진리는 우리 인생의 시작에서 만류이나 인생의 마지막에도 중요하다. 소명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중요한 열쇠와 같은데, 그 이유는 인생의 말년에 맞이하는 세 가지 큰 도전에 대처하도록 돕기 때문이다”³²⁹ 라고 하였다. “소명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도달할 때까지 목적의식을 갖고, 그래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는 가운데 인생 여정을 걸어가도록 박자를 가해준다. … 우리가 직업에서 은퇴할 수는 있으나 개인적인 소명에서 은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공적인 책임에서 물러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적 소명에서는 퇴진할 수 없다”³³⁰ 고 하였다. 목회자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만이라도 분명하게 붙든다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것이다.

5. 인생의 유종의 미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목회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실패한 목회자들이 훨씬 많다. 그 이유와 원인은 다양하다. 앞서 장애물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 성장의 정체로 인한 교회 유지의 어려움, 목회자의 건강문제 그리고 가정문제와 윤리문제, 재정관리 실패, 당회의 갈등, 열정의 상실, 그 외 ‘도덕과 무관한 사역의 실패’도 있다.

³²⁷ Ibid., 295.

³²⁸ Os Guinness, *소명 (The Call)*, 홍병룡 역, 서울:IVP, 2000. 373.

³²⁹ Ibid., 373.

³³⁰ Ibid., 374.

특히 ‘도덕과 무관한 사역의 실패’를 경험한 목회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상상할 수 없이 크다. “중대한 실패가 종종 슬픔을 동반한다는 사실에 학자들은 동의한다. 중대한 실패를 겪는 이들은 깊은 슬픔을 경험한다. 실패의 슬픔이 워낙 깊으므로 목사들은 죽음보다 더한 느낌이라고 말한다.”³³¹ 어떤 목회자는 자신의 목회 실패를 ‘자녀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다’³³² 고 말했다. “실패를 경험한 또 다른 목사는 거의 이혼할 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³³³ “슬픔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은 몹시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건너편에 도착하면 소망의 빛을 볼 수 있다.”³³⁴ 목회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세속적인 ‘효율’에만 둘 수 없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사역은 참으로 비효율적이었으나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분의 초점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맞춰졌다.”³³⁵ “우리의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나라보다 지역교회를 더 우선시한 것일지도 모른다.”³³⁶ 그것도 ‘내 교회’를 최우선시 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목회 기준은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둔 것이며, 하나님나라는 지역 교회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그 초점은 결과에 있지 않고 과정에 있다.”³³⁷ 따라서 ‘지역교회의 성공과 실패’에 ‘목회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다고 보지 않아야 한다. 나아가 ‘지역교회의 성공과 실패’에 ‘인생의 성공과

³³¹ J.R. Briggs, *목회 성공은 없다(Fail)*, 김태곤 역, 147.

³³² Ibid., 147. 필자는 그 경험을 ‘이혼당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³³³ Ibid., 156.

³³⁴ Ibid., 157

³³⁵ Ibid., 72.

³³⁶ Ibid., 72.

³³⁷ Ibid., 83.

실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없다. 지역 교회의 목회에는 실패한다고 해도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 그것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저 주시는 은혜에 근거를 둔다.

목회자 역시 한 사람의 신자이다. 목회 사역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목회가 끝나도 한 사람의 신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며 승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본회회는 독일 교회가 치열한 믿음의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가는 위기에 처했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네 번의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앞에 있는 그 시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에서 마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³³⁸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통가운데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

존 파이퍼가(John Piper) 데이비드 브레이너드(David Brainerd)의 마지막 글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승리를 확신하며 격려하는 말은 목회자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옳았다. 하나님의 진리의 기저까지 뚫고 내려가는 노력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질 때에도 이 위대한 진리 위에서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그 진리란, 영원하시고 자족하신 하나님이 무한히 흔들림 없이 영원토록 그분의 위대하고 거룩한 이름에 헌신하신다는 것이다. 교회의 선교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지키실 뿐 아니라 온 땅 위에서 그분의 대의를 지키실 것이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죽을 때까지 이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³³⁹

³³⁸ Dietrich Bonhoeffer,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정현숙 역, 서울:좋은씨앗, 2014. 121.

³³⁹ John Piper, *하나님의 기쁨*, 148.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29세 나이로 그 생애를 마쳤다. 그의 마지막 일기를 소개하는 것은 이 시대 목회자들에게도 도전이 되어 ‘인생의 유종의 미’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0월 2일 금요일, 내 영혼은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 즐거이 안착하였네. 나는 ‘주와 함께’ 있기를 바라니 이제 ‘주의 영광을 볼’ 것이기 때문이네. 나는 모든 것을 즐거이 그분께 바치기 원하네. 내 가장 소중한 친구들도, 내 소중한 양 무리도, 세상을 떠난 내 형도, 그리고 시간과 영원에 대한 나의 모든 걱정도 드리겠네. 아, 주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주님의 주님 되심으로 인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복되신 구세주가 ‘자기 영의 산고를 친히 보시고 만족하실 수 있도록’ 하소서. 오, “주 예수여, 오소서. 속히 오소서!”³⁴⁰

오스 기니스는 “소명은 인생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특전과 그 도전에 중심적인 것이다”³⁴¹라고 하였다. 목회자이든, 신자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소명)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 8)고 고백한다면 그는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고 할 것이다. 목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자에게도 ‘인생의 유종의 미’는 열려있다.

6. 은퇴 준비와 은퇴 이후

목회자의 ‘유종의 미’는 곧 은퇴로 이어진다. 따라서 목회자는 목회의 마지막 때에 ‘유종의 미’를 추구함과 동시에 ‘아름다운 은퇴’와 ‘은퇴

³⁴⁰ Ibid., p.149. Edwards,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 474. 재인용.

³⁴¹ 오스 기니스, 소명(The Call), 371.

이후'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목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지만 준비 없는 은퇴는 새로운 도전과 위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유종의 미'를 거둔 목회자일수록 준비 없는 은퇴로 인한 어려움과 절망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목회 사역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은퇴 준비를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최선의 수고에 걸 맞는 보상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퇴 이후 삶이 피폐할 수도 있는 까닭이다. 따라서 목회자는 목회에 대한 '유종의 미'와 더불어 은퇴를 성실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혹 목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 하더라도 은퇴 이후 삶에서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은퇴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서울북노회 목회자들의 경우, 은퇴에 대한 개념은 70세 정년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3년 이후이다.³⁴² 그 이전에는 목회자의 은퇴 연령이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퇴에 대한 준비도 소홀하였다. 목회자의 은퇴에 대한 준비 역사가 짧기 때문에 실제로 은퇴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자료 또는 경험이 매우 제한적이다.

서울북노회 목회자 가운데 10년 이내 은퇴를 앞둔 목회자는 대략 24여명이다, 그 중 18명의 목회자를 설문조사 하였다. 그 결과 6명(33%)은 아직 은퇴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은퇴 이후 사역에 대한 계획을 가진 목회자 경우, '선교지를 돌아보며 선교사역을 지원' 하는 계획이 가장 큰 비중(27%)를 차지하였고, 그 외 노인복지사역, 자녀 사업지원, 후배 목회자 지원, 세미나 인도 및 저술 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교회가 선교 사역에 대한 비중이

³⁴²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결의사항, 78회 총회(1993년 9월 21일)에서 70세로 규정되었다. (http://www.gapck.org/pds/bbs_read.asp)

크다는 것과 선교 지원에 많은 관심과 인력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퇴와 관련하여 목회자가 섬겨온 '본 교회와 관계' 는 매우 특이한 통계를 보여준다. 그것은 '교회가 요청할 때만 도움을 준다' 가 13명(72%)에 달하고, '가능한 멀리 떠난다' 가 4명(22%)이었고, '가까이서 필요한 도움을 준다' 가 단 1명에 불과하다. 그것은 은퇴 이후 목회자가 본 교회와 가까이 거주하거나, 교제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비록 한 노회의 통계이지만, 한국교회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아직까지 '목회자의 은퇴' 에 대한 훈련과 좋은 선례가 교회와 목회자 모두에게 부족하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은퇴 이후 영적 관리는 '성경연구와 묵상' (10명), '기도생활' (6명), '독서' (1명), '설교 경청' (1명)으로 나타났고, 육체적 관리는 '운동' (14명), '여행', '건축사역', '낚시'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목회사역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운동' 인 것을 보여 준다. 서울북노회 목회자들은 '성경연구와 묵상' 을 경건 훈련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그러한 훈련은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최상의 영적 관리 목록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은퇴 준비를 은퇴 이후에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은퇴 이전부터 준비되어야 효과적인 실행이 가능 할 것이다. 평소에 운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은퇴 이후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고, 악기를 다루는 것이나, 글을 쓰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도 평소에 훈련 되어야 은퇴 이후에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다.

은퇴(retirement)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한다. "직업에서 물러나거나 사회 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 생산활동은 중지했지만 지속적으로 소비는 하고 있는 삶의 형태로,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하는 '퇴직'과는 차이가

있다.”³⁴³ 따라서 경제적 준비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 은퇴 이후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삶은 초라하고 비참할 수 있다. 특히 목회자의 경우 부의 축적을 죄악시하고 ‘온전한 헌신’을 요구 받기 때문에 경제적인 준비는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목회자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교회는 ‘원로목사’로 예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³⁴⁴ 그리하여 남은 생애 동안 적절한 생계비를 지원하고 노년에 품위 있는 삶을 가능하도록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목회자가 사역 기간 중 목회에 전념하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였기 때문이며, 자신의 소유나 경제적인 여력까지 포함하여 헌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회자는 사역 기간 중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역하므로 ‘유종의 미’를 이루어야만 한다. 교회는 이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기꺼이 감당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유종의 미’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은퇴 준비가 될 것이다.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원로목사’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유종의 미’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총회적인 차원에서 목회자들의 은퇴 이후 생활 대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서울북노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시행하는 현재의 은급제도는 생계보장성이 현저히 부족하고, 자주 일어나는 사고로 말미암아 신뢰도가 높지 못하다. 이 같은 제도가 보완된다 하더라도 총회적인 제도만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목회자의 은퇴 준비에 대하여 총회적인 제도 보완과 지교회의 노력, 그리고 목회자 개인의 노력과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³⁴³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18320&cid=50298&categoryId=50298>

³⁴⁴ 헌법, p. 157.

할 것이다. 목회자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유종의 미'를 이루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은퇴 준비'가 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제 6 장

결론과 제언

목회자의 ‘유종의 미’는 목회자의 신뢰 문제에서부터 아름다운 은퇴까지 목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과제이다. 현재 한국교회 위기는 목회자에서 시작하여 기독교 전반에까지 총체적 위기라고 판단되는 바, 목회자의 유종의 미는 기독교의 위기 극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침체 일로에 있는 한국교회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또한 이것은 목회자가 처음 목회자로 부름 받았을 때부터 신실하게 감당할 소명이기도 하며, 교회가 목회자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고 위임하면서 갖는 기대이자 목표라고 할 것이다.

모든 교회들은 목회자들이 본 교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원한다. 따라서 목회자의 ‘유종의 미’는 한국교회의 시대적 요구이며, 기독교와 한국교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안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본 연구의 주제는 매우 적절하고 시급한 것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 본대로 자료의 부족과 연구역량의 부족으로 그 한계는 적지 않으나, 동시에 이에 대한 필요성과 가치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과정을 요약하며 그 중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방안을 정리함으로 결론을 삼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제언하려고 한다.

1장에서 연구배경을 밝혔다. 그것은 한국교회 위기에서 출발한 것인데 그 중 목회자의 불신이 가장 큰 이유이다. 한국교회 신뢰회복과 ‘목회자의 유종의 미’는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창의적인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연구 목적과 중요성은 사역에 바쁜 목회자들을 돕고, ‘유종의 미’를 이루게 함인데, 필자 자신의 실제적인 이유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필자의 연령과 은퇴시기를 감안할 때 ‘유종의 미’에 대한 실제적이고 절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연구 가설과 연구 질문은 ‘유종의 미’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들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적인 상황에 근거를 둬서 창의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범위는 필자가 속한 서울북노회 목회자중 은퇴한 30명의 목회자와 은퇴를 10년 이내 앞둔 목회자 18명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범위와 규모가 크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연구방법과 절차는 이 분야에 권위자인 풀러신학교 클린턴 박사의 연구 성과를 기본으로 한국적인 상황을 적용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창의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2장에서는 ‘유종의 미’의 성경적 근거를 밝혔는데, 성경과 상황화, 성육신을 신학적 기초로 삼고, 성경적 모델들을 제시하였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유종의 미’를 살펴보았다.

3장은 서울북노회 목회자 중 지난 17년간 은퇴한 30명의 목회자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성경 인물의 ‘유종의 미’와 비교하였다. 서울북노회 목회자들이 ‘유종의 미’를 이루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은 70세 정년을 기준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4장에서는 ‘유종의 미’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규명하였다. 클린턴의 분석을 기초하여 서울북노회의 은퇴자들의 상황과 필자가 속한 예수로교회 성도들의 평가, 그리고 은퇴를 앞에 둔 목회자들의 평가를 정리하였다.

5장은 본 연구의 핵심 과제인 창의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클린턴의 방안을 요약하고, 서울북노회 목회자들의 방안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한국교회 실정에 맞는 창의적 방안을 개인적인 방안들과 교회적인 방안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인 방안은 1) 복음의 회복과 강화, 2) 비전과 열정의 유지와 강화, 3) 성령충만과 훈련관리, 4) 건강관리, 5)원만한 '관계'유지, 6) 화목한 가정생활, 7) 교회 이해와 행복목회, 8) 문화이해와 성육신적 상황화, 9) 역사와 종말 이해, 10) 단순성의 삶 등이다.

교회적 방안은 1) 노회 역할 강화, 2) 총회의 역할, 3) 지교회의 이해와 협력 등이다. 이러한 방안들을 하나 하나 충실히 수행한다면 목회자로 하여금 '유종의 미'를 넉넉히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아울러 '유종의 미'를 이룬 목회자들의 실례를 소개하고, 끝으로 '유종의 미'를 이루지 못한다 해도 '인생의 유종의 미'가 열려있음을 설명하였다. 은퇴 준비와 은퇴 이후 사역에 대한 조사를 추가하였는데, 한국교회는 '은퇴'에 관한 역사가 짧고, '은퇴준비'가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목회에 충실하면 할수록 은퇴준비는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목회자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유종의 미'를 이루는 것이 최상의 은퇴 준비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교회 위기와 목회자의 리더십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노력 없이 현재의 상태로 더 진행된다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 5:13). 목회자의 '유종의 미'는 시대적 사명이라는 사실을 공감하고, 모든 목회자가

함께 반듯이 '유종의 미' 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둘째, 목회자들이 '유종의 미' 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것이다. 먼저 '유종의 미' 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자신에게 비추어 보면서 자신의 사역을 점검하고, 창의적 방안들을 유의하여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데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목회자의 '유종의 미' 는 목회자 개인의 열정만으로 불가능하다. 교회의 이해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당회 안에서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더 친밀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장로교 원리에 충실하여 목사와 장로가 서로 협력을 강하게 해가야 한다. 그리고 지교회들은 안식년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목회를 가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목회자의 피로 누적은 영육간에 큰 질병과 같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종의 미' 는 목회자 자신에게 최종적인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유종의 미' 를 이루는 것이 최고의 은퇴 준비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창의적인 방안 하나 하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를 제안한다.

끝으로, 노회와 총회의 역할을 제고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소속된 목회자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철저히 해가야만 한다. 동역자들 사이에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목회자의 '유종의 미' 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종의 미' 를 목표로 목회 자체가 성공적이어야 한다. 그저 안일하게 시간만 보내고 은퇴하려는 태도는 그 존재 자체가 교회에 무익할 뿐이다. 목회자는 언제나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복음을 전하고, 교우들을 섬기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사명과 열정이 항상 유지되고 강화되어야 함은

아무리 반복되어도 부족할 것이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7-8). 목회자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남은 생애를 경주해야 한다.

부록 (APPENDIX)

부록 1. 서울북노회 목회자 사역 마무리 조사

* 기간: 2001년 - 2017년

* 조사 내용

1. 사역한 교회명
2. 목회자 이름
3. 사역 기간
4. 교인 수(사역 초기와 사역 말기)
5. 사역을 마무리하게 된 사유
6. 사역을 마친 연령
7. 사역의 유산
8. 교인들의 일반적인 평가
9. 목회자 그룹의 평가

* 대상 교회와 목회자

교회	목회자	사역 마무리
1. 행주교회	임 * 환 목사	정년은퇴
2. 향동교회	정 * 화목사	정년은퇴
3. 벽제중앙교회	박 * 수목사	정년은퇴
4. 새순교회	함 * 성목사	정년은퇴
5. 대원교회	조 * 현목사	정년은퇴
6. 오산교회	박 * 재목사	정년은퇴
7. 상지교회	이 * 호목사	정년은퇴
8. 봉일천중앙교회	박 * 순목사	정년은퇴

9. 충성교회	황 * 기목사	정년은퇴
10. 백마중앙교회	윤 * 현목사	정년은퇴
11. 금촌중앙교회	정 * 철목사	정년은퇴
12. 아동교회	옥 * 권목사	정년은퇴
13. 통일촌교회	최 * 도목사	정년은퇴
14. 장파교회	황 * 홍목사	정년은퇴
15. 관문점교회	윤 * 영목사	정년은퇴
16. 선유중앙교회	고 * 결목사	정년은퇴
17. 화전중앙교회	이 * 렬목사	정년은퇴
18. 천성교회	최 * 원목사	교회폐쇄
19. 브니엘교회	최 * 수목사	사임
20. 은빛교회	이 * 룡목사	교회폐쇄
21. 일산교회	손 * 수목사	소천
22. 덕이교회	심 * 영목사	조기은퇴
23. 광탄중앙교회	이 * 희목사	사임
24. 운정교회	박 * 연목사	조기은퇴
25. 광탄중앙교회	유 * 준목사	사임
26. 성동교회	전 * 길목사	사임
27. 파주교회	남 * 학목사	조기은퇴
28. 관유중앙교회	민 * 식목사	조기은퇴
29. 마정교회	김 * 식목사	조기은퇴
30. 가람교회	이 * 영목사	교회폐쇄

부록 2. 은퇴를 앞둔 서울북노회 목회자 설문

이 설문은 김석진목사의 Grace Theological Seminary D.Min 연구논문 <한국교회 목회자의 ‘유종의 미’를 위한 창의적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목회자의 아름다운 은퇴(유종의 미)는 목회의 최종 열매입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목사님의 생각과 준비를 알려주시면 ‘은퇴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귀하는 현재 사역하는 교회에서 사역기간이 몇 년 되었습니까?

: 19 년 - 2018년 현재 (년)

2. 귀하는 정년은퇴까지 몇 년을 남겨두고 있습니까?

: 년

3. ‘유종의 미’ (정년은퇴)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의:총회헌법 규정대로 한 교회에서 20년이상 시무, 70세 정년, 원로목사가 되는 경우) (중요한 순서대로 지적해보세요)

*. 당회 갈등 ()

*. 재정의 오남용 ()

*. 권력의 남용 ()

*. 교만 ()

*. 부적절한 이성관계(성적방종) ()

*. 가정문제(자녀포함) ()

*. 비전과 열정의 상실 ()

*. 건강문제 ()

*. 기타() ()

() 기타(_____)

9. 은퇴 이후, 본 교회와의 관계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 은퇴 이후 영적,육적 건강관리 계획은 무엇입니까?

* 위 자료는 목적대로만 사용할 것이며, 피 설문자는 약자(J교회, K목사)로 사용할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

부록 3. 김석진목사의 사역과 '유종의 미'에 대한 설문

* 김석진목사 사역/ 1993- 1999 주엽교회 담임목사 / 예배당 신축

외적인 큰 부흥

2000- 2008 예수로교회 1기 사역 / 바로그 교회 분립개척

예수로교회당 신축

2009- 2017 예수로교회 2기 사역 / 본당 증축및 교육관 신축

아름다운 전원교회 조성

2018 - 예수로교회 3기 사역 /

* 당신은 김석진목사와 교제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 약 년

(그 동안 동역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 지금까지 사역을 평가 -

* 안식월 이후, 2018년부터 <제3기 사역>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외적인 성장 ()

시설및 환경개선 ()

해외선교 ()

지역사회봉사 ()

차세대 교육 ()

북한사역 ()

노인사역 ()

문화및 NGO 사역 ()

기타 :

참고 도서 목록 (BIBLIOGRAPHY)

국내서적

길성남,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5.

김남준, *목회자의 아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서울:두란노, 1998.

_____, *인간과 잘 사는 것*,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5.

김명호, *옥한흠 은혜의 발걸음*,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0.

김상복, *목회자의 리더십*, 서울: 엠마오, 1987.

김수진, *아름다운 빈손 한경직*, 서울: 홍성사, 2000.

김수환, *김수환 추기경의 신앙과 삶*, 서울: 천주교 서울대교구, 1997.

문성모, *하용조 목사 이야기*, 서울:두란노서원, 2010.

박종렬, *나의 목회현장*, 서울: 교문사, 1991.

백동조, *당신의 교회는 행복합니까?*, 서울:두란노, 2012.

백운형, *개척에서 성장까지-장기목회와 관련하여*, 서울:지평서원, 1996.

오정현, *열정의 비전메이커*, 서울: 규장, 1997.

오정현 외, *옥한흠, 은혜의 발걸음*, 국제제자훈련원, 2010.

옥한흠, *옥한흠 목사가 목사에게*, 수원: 도서출판 은보, 2013.

이강현, *유종의 미*, 서울:보이스사, 1994.

이관직, *성경 인물과 심리 분석*,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_____, *복회심리학*,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_____, *한 크리스천 상담학자의 묵상*, 서울: 지혜와 사랑, 2016.

이문장, 앤드류 윌즈, *기독교의 미래*, 파주:청림출판, 2006.

정훈택, *천국은 어떻게 오는가*, 대전: 대장간, 1991.

최바울, *The 4th International Global Alliance Confernce*, 서울: 인터콥선교회, 2017.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한 흥, *시간의 마스터*, 서울: 비전과 리더십, 2005.

황의영, *사모학*, 서울:성광문화사, 1977.

번역서적

Alcorn, Randy *행복(Happiness)*, 윤종석 역, 서울:디모테, 2017.

Bonhoeffer, Dietrich,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정현숙 역, 서울:좋은씨앗, 2014.

Briggs, J. R., *목회 성공은 없다(Fail)*, 김태곤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5.

Clinton, J. Robert., *지도자 평생 개발론 (Leadership)*, 장남혁 황의정 역, 서울: 하늘기획, 2011.

_____, *영적 지도자 만들기 (The Making of a Leader)*, 이순정, 이영규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2014.

_____, *유종의 미(An Exhortation to Finish Well)*, 이영규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2015.

_____, *인생주기에 따른 리더십 개발(The Life Cycle of a Leader)*, 이영규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2016.

Cullmann, Oscar, *구원의 역사(Salvation in History)* 김광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Farley, Andrew, *복음에 더할 것은 없다(God Without Religion)*, 안지영 역, 서울: 터치북스, 2013.

Foster, Richard J. *단순성의 기독교 (Freedom of Simplicity)*, 편집부 역, 서울: 보이스사, 1985.

_____,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훈련 (Celebration of Discipline)*, 편집부 역, 서울: 보이스사, 1999.

Guinness, Os, *소명(The Call)*, 홍명룡 역, 서울: IVP, 2000.

_____, *인생(Long Journey Home)*, 박지은 역, 서울: IVP, 2009.

Hiebert, Paul G., *선교와 문화인류학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김동화의 역,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1996.

_____, 인류학적 접근을 통한 선교현장의 문화이해 (*Anthropological Reflections on Missiological Issues*), 김영동 외 역,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1997.

Hoekema, Anthony A. *개혁주의 종말론 (The Bible and the Future)*, 이용중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2.

Henry & Bullekcuby, Tom,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The Man God Uses)*, 이현우 역, 서울: 좋은씨앗, 2002.

Hyles, Jack, *성령님을 만나세요(Meet the Holy Spirit)*, 박희원 역, 서울: 두란노, 1996.

Kelly, Thomas R., *거룩한 순증 (A Testament of Devotion)*, 김태곤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Kraft, Charles H., 편저, *말씀과 문화에 적합한 기독교 (Appropriate Christianity)*, 강승삼 감수, 김요한 외 번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Küng, Hans, *교회란 무엇인가? (Was ist Kirche?)*, 이흥근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78.

Lingenfelter, Sherwood G., Mayers, Marvin K., *문화적 갈등과 사역 (Ministering Cross- Culturally)*, 왕태중 역, 서울: 조이선교회, 1989.

Macdonald, Gordon,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Ordering Your Private World)*, 홍화옥 역, 서울: IVP, 2003.

Malmstadt, Howard V., Hamilton, David Joel, Halcomb, James, *리더십, 사명을 성취하는 힘(Courageous Leaders)*, 서울: 예수전도단, 2003.

Manning, Brennan, *모든 것이 은혜다 (All is Grace)*, 양혜원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12.

Maxwell, John., *성경에서 배우는 불변의 리더십 (The 21 most powerful minutes in a leader's Johnday)*, 채천석 역, 서울: 청우, 2001.

Maxwell, John & Dorman, James, *영향력 (Becoming a Person of Influence)*, 정성묵 역, 서울: 낮은올타리, 2003.

McGrath, Alister, *내 평생에 가는 길 (Tha Journey)*, 윤종석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03.

Nouwen, Henri J.M., *모든 것을 새롭게(Making All Things New)*,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00.

_____, *예수님의 이름으로(In The Name of Jesus)*, 두란노출판부역,

서울: 두란노, 1998.

Peterson, Eugene H. & Dawn, Marva J., *껌테기 목회자는 가라 (The Unnecessary Pastor)*, 차성구 역, 서울: 좋은 씨앗, 2000.

Peterson, Eugene H. *한 길 가는 순례자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김유리 역, 서울: IVP, 2001.

_____, *성공주의 목회자 (Under the Unpredictable Plant)*, 차성구 역, 서울: 좋은 씨앗, 2002.

_____, *현실, 하나님의 세계 (as Christ Plays in Ten Thousand Places)*, 이종태, 양혜원 역, 서울: IVP, 2005.

Piper, John. *열방을 향해 가라 (Let the Nations Be Glad)*, 김대영 역, 서울: 좋은 씨앗, 2003.

_____, *존 파이퍼의 생각하라 (Think)*, 전의우 역, 서울: IVP, 2010.

_____, *하나님의 기쁨 (The Pleasures of God)*, 이상준 역, 서울: 두란노, 2013.

_____, *돈 섹스 그리고 권력 (Living in the Light: MONEY, SEX, AND POWER)*, 박대영 옮김,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7.

Platt, David, *레이디컬 (Radical)*, 최종훈 역, 서울: 두란노, 2011.

Sanders, John Oswald, *영적 지도력 (Spiritual Leadership)*, 이동원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2.

Scazzero, Peter,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Emotionally Healthy Spirituality)*, 강소희 역, 서울: 두란노, 2015.

_____,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 (Emotionally Healthy Leader)*, 정성묵 역, 서울: 두란노, 2015.

Stott, John R. W., *제자도 (The Radical Disciple)*, 김명희 역, 서울: IVP, 2010.

Swindoll, Charles R., *교회의 각성 (The Church Awakening)*, 서울: 두란노, 유정희 역, 2012.

Tournier, Paul, *모험으로 사는 인생 (L'Aventure de la Vie)*, 정동섭, 박영민 역, 서울: IVP, 1989.

Willard, Dallas, *영성훈련 (The Spirit of the Disciplines)*, 엄성옥 역, 서울: 은성, 1988.

_____, *하나님의 모략 (The Conspiracy)* 윤종석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00.

_____, 잊혀진 제자도 (*The Great Omission: Reclaiming Jesus's Essential Teachings on Discipleship*), 윤종석 역, 서울:복있는 사람, 2007.

White, John, 믿음의 싸움 (*The Fight*), 유화자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2.

_____, 탁월한 지도력 (*Excellence in Leadership*), 이석철 역, 서울: IVP, 1991.

Wilson, Jared C. 복음에 눈뜨다 (*Gospel Wakefulness*), 안정임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11.

Wright, Christopher J. H., 하나님의 선교 (*The Mission of God*), 정옥배, 한화룡 역, 서울: IVP, 2010.

_____, 하나님 백성의 선교 (*The Mission of God's People*), 한화룡 역, 서울: IVP, 2012.

정기간행물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2017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2017. 3. 3

기독신문, 제2095호, 2017년 3월 7일

기독신문, 제 2107호, 2017년 6월 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제1회 의사자료, 2001.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제34회 의사자료, 2017.

목회와 신학, 2004년 8월호

목회와 신학, 2007년 6월호

목회와 신학, 2010년 6월호

조흥식, 2017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분석, 기윤실, 2017. 3. 3

학위논문

Park, Rachel Kimchungun, "A Contextualized Study on Women Leadership in Cross-Cultural Settings: Focusing on Korean Missionary Wives", Doctor of Missiology Dissertation, Grace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2011.

Lim, Jin Tae, "A Study of Effective Leadership for Maturity and Change in the Korean-American Church", (미국 이민 교회의 성장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리더십), Doctor of Ministry Dissertation, Grace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2015.

Kwon, Soon Wung, "A Missiological Investigation on the Interrelation between Jesus' Leadership and Small Group Leadership in Fervent - Reformationism" (열정개혁주의에 근거한 '주님의 리더십'과 '소그룹 리더십'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교학적 고찰), Doctor of Missiology Dissertation, Grace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2012.

Oh, Abraham K., "Crisis in Korean Christianity: Evaluating the Influence of Syncretism on Korean Christianity" (위기에 처한 한국 기독교 - 한국 기독교의 혼합사상 영향에 대한 평가), Doctor of Missiology Dissertation, Grace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2014.

기타

Gill, Jeffrey A., *지역교회에서의 리더십 (Leadership in the Church)*, Grace Thrological Seminary, October 26-30, 2015. 강의안.

Moreau, Scott, *영적 갈등 (Spiritual Conflicts)*, Grace Thrological Seminary, March 6-10, 2017. 강의안

Stallter, Thomas M., *의미 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Leadership in the Local Church)*, TMS, October, 2015. 강의안.

Stallter, Thomas M. & Stephen Park,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 디자인 (Methods of Social Research/ Research Design)*, Grace Thrological Seminary, October 26-30, 2015. 강의안.

IVP 성경주석 구약, 서울: IVP, 2005.

존 칼빈 신약성경주석,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편, 1980.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01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18320&cid=50298&categoryId=50298>

http://www.gapck.org/pds/bbs_read.asp

약력(VITA)

Present Position :

Senior Pastor, Jesusroad Presbyterian Church 677-79, Gyoha-ro, Paj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Personal Data :

Birth Date : October 23, 1957

Marital Status : Married to Myunghee Kim and two sons

Home Address : 677-79, Gyoha-ro, Paju-si, Gyeonggi-do, Korea

Phone : (010) 3712-9613

Denomination : Presbyterian

Education :

Daegu Theological Seminary, Daegu, Korea, 1983.

M. Div. Diploma, The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1986.

M. Min., Pastoral Graduate School of The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Seoul,
Korea, 2007.

D. Min., Grace Theological Seminary, Winona Lake, IN, 2018.

Personal Experiences :

Assistant Pastor, Yonhee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1987-1993.

Senior Pastor, Juyeop Presbyterian Church, Goyang-si, Gyeonggi-do, Korea, 1993-
1999.

Senior Pastor, Jesusroad Presbyterian Church, Paju-si, Gyeonggi-do, Korea, 2000-
2018.

